걸으며 만나는
내장산의
자연이야기..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목 차

• 여는 글..

• 자연, 우리의 미래! 국립공원

•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

• 내장산의 경관자원

• 내장산의 문화유적

• 내장산의 자연, 첫 번째 이야기 – 식물편

• 내장산의 자연, 두 번째 이야기 – 동물편

• 내장산의 자연, 세 번째 이야기 – 버섯편

• 내장산을 사랑하는 이야기 보따리꾼,
"자연환경해설사"의 이모저모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란

–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다양한 활동

– 해설사에게 있어 국립공원은..?

• 내장산국립공원의 월별 생태달력

• 이 책을 마무리 하며...

• 참고문헌



여는 글...

봄 꽃천지, 여름 하청음, 가을 만산홍엽, 겨울 동설주...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국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우리나라 21개의 국립공원 중 8번째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동,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3조 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내장산국립공원을 탐방하는 탐방객을 위한 안내와 공원 홍보,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이 내장산국립공원 알리미의 역할을 더 톡톡히 하고자 그동안의 수많은 해설자원모니터링자료와 활동상들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책은 내장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들의 해설과 함께 활용되어 미래세대와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내장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내장산국립공원의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많은 미래세대와 탐방객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연환경해설사들의 작은 노력들이 국립공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큰 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1월

내장산사무소장 **서 윤 석**

자연, 우리의 미래! 국립공원

●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지역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고 국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곳이다.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가치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동 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국립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21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7년 7월 1일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 1987. 07. 0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건설부 산하)
- 1991. 04. 23 국립공원관리공단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 1998. 02. 28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 2013.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KOREA NATIONAL PARK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 국립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소개하기

- 지정 : 1971년 11월 17일 국립공원 제 8호로 지정

■ 행정구역과 면적

- 전북 정읍시, 순창군, 전남 장성군
- 8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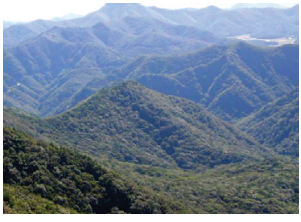
■ 내장산 이름의 유래

- 첫 번째 이야기
  - 內藏山 – 안 내(內), 감출 장(藏)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 두 번째 이야기
  -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계곡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그 많은 인파가 있는지 잘 모이지 않아 구불구불한 양의 내장과 같다 하여 내장(內藏)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내려 온다.



내장산의 자연경관

내장산의 산봉우리



■ 월영봉(月迎峰, 427m)

옛 사람들이 추령에 보름달이 뜨면 달맞이 하는 곳이라 하여 월영봉이라 합니다.



■ 서래봉(西來峰, 624m)

내장산의 대표 봉우리로 논과 밭을 고르는 옛 농기구인 '써레'를 닮았다고 하여 '써래봉'이라 불리다가 '서래봉'으로 되었습니다.



■ 불출봉(佛出峰, 622m)

부처가 수행 중 쉬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정상에서의 조망이 장관이라고 하여 「불출운하」라고도 합니다.



■ 망해봉(望海峰, 679m)

내장산 안쪽으로 먹뱀이골이 잘 보이며 바깥쪽으로는 용산저수지와 호남평야는 물론, 맑은날이면 정상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 연지봉(蓮地峰, 670m)

불출봉에서 서남쪽으로 솟아오른 봉우리로서 이곳에서 발원하는 원적계곡물이 서래봉을 지나 내장호를 이루며 동진강 줄기의 근원이 됩니다.



■ 까치봉(717m)

내장산 중심부에 2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암산을 연결하는 주봉이기도 하고 봉우리의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합니다.



■ 신선봉(神仙峰, 763m)

내장산의 최고봉으로 내장 9봉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선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합니다.



■ 연자봉(燕子峰, 675m)

이 곳에 제비 명당이 있다하여 연자봉이라고 하고 산봉우리가 붓끝과 같다 하여 일명 '문필봉'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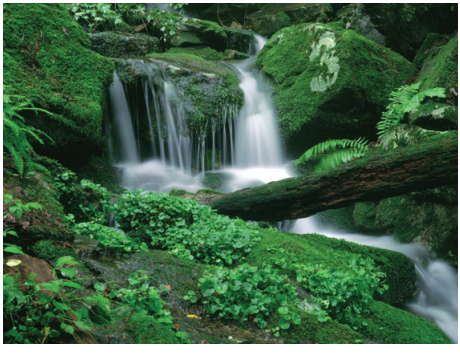


■ 장군봉(將軍峰, 696m)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승병대장 희묵대사가 활약했다고 전해지는 험준한 봉우리입니다.

내장산의 계곡

■ 금선계곡



신선봉과 까치봉에서 발원하여 내장사의 왼편으로 흐르는 연장 2.2km의 계곡으로 뛰어난 비단으로 수를 놓은 듯 해서 '금선계곡'이라 불리 웁니다.

■ 원적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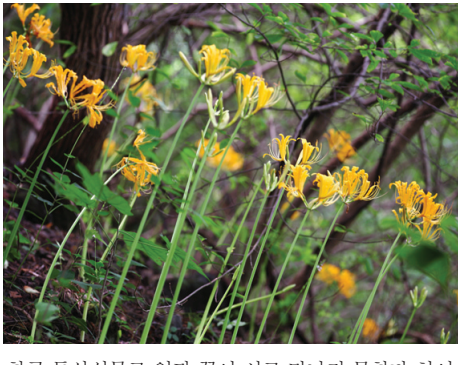


연지봉에서 발원하여 내장사의 오른편으로 흐르는 연장 3.2km의 계곡으로 일명 먹뱀이골로 불리웁니다.

내장산의 깃대종

깃대종은 특정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 진노랑상사화(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한국 특산식물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을 지녔습니다.
잎은 2월말~5월까지 보이고 꽃대는 7월말~8월초에 올라오며 꽃은 진한 노란색입니다.

■ 비단벌레(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몸길이 25~40mm로 화려한 광택이 있고 머리의 중앙은 오목하며, 겹눈은 암갈색입니다.
성충은 7월~9월에 볼 수 있으며 애벌레는 썩은 팽나무나 느티나무 속에서 생활합니다.

내장산의 문화유적



■ 내장사(內藏寺, 영은사지) – 지방기념물 제 63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 영은조사가 현재의 부도전 일대에 50여동의 대가람을 세우고 영은사라 칭하였습니다.



■ 조선동종 – 지방유형문화재 제 49호
조선영조 44년(1768년)에 제작된 높이 80cm,종신의 높이 60cm, 구경 50cm의 소형 범종



■ 벽련암(壁蓮菴, 내장사지) – 지방기념물 제 73호
서래봉중턱 330m고지에 위치하며, 백제 의자왕 20년 환해선사가 창건



■ 원적암(圓寂菴)
불출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려선종 3년 적암대사가 창건하였다하는데 연혁이 분명치 않습니다.



■ 용굴암지(龍窟菴地), 조선왕조실록이안사적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경기전의 태조영정을 이안시켜 370여일 동안 보전한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내장산 자연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 첫번째

■ 원적골자연관찰로



원적골 자연관찰로

원적골의 동·식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장산의 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

○ 구간 : 탐방안내소 → 내장사 → 원적계곡 → 비자나무 군락지 → 사랑의 다리 → 탐방안내소
○ 거리 : 3.6km ○ 소요시간 : 1시간 20분

■ 코스 스토리텔링

깊은 산속, 나무들 사이로 손을 내밀면 따스한 봄 햇살이 굼실거립니다.
신록으로 우거진 숲 풀들 사이로 맑은 계곡과 손대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고, 천년 고찰의 역사를 간직한 원적암은 작지만 소박한 멋을 담아냅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뒤엉켜 억겁의 세월을 버텨온 길게 널어진 너덜겅 돌길 위를 '딸각...딸각...' 산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다보면 청명한 하늘아래, 고즈넉한 벽련암과 단풍의 오색빛깔로 옷을 갈아입은 위풍당당 서래봉 풍경이 발길을 사로잡고, 벽련암 돌담길 위로 소복이 쌓인 백설 위 선연한 풍경소리가 눈 구슬 바람에 휘날립니다.

내장산 자연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 두번째

■ 자연사랑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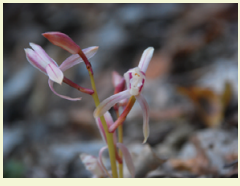
■ 코스 스토리텔링

흙길의 자연을 벗 삼아 걷는 길목에 드리워진 유록색 향연의 진풍경은 장막을 드리워 놓은 듯한 쾌청한 내장천계곡과 어우러져 청량감을 더합니다.
산내음에 취해 자연속에 새겨진 시를 읽으며 싱그러운 숲길을 걷다보면 어느덧, 다람쥐가 길동무가 되고, 새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연두색, 녹색, 노란색, 붉은색... 계절별 자랑하듯 다양한 색을 내는 단풍나무잎과 하늘풍경은 우화정 호수의 반영에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 놓고, 우리네는 속세의 소란한 마음을 108그루 단풍나무 아래 내려놓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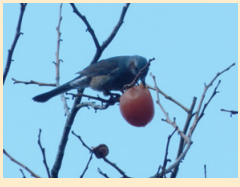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식물들

봄 13p ~ 61p
여름 62p ~ 94p
가을 95p ~ 98p



두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동물들

포유류 100p ~ 106p
조류 107p ~ 123p
양서 파충류 124p ~ 133p
곤충 134p ~ 161p



세 번째 이야기 – 내장산에서 만나는 버섯

버섯 163p ~ 183p





첫 번째 이야기

내장산에서 만나는 식물들



봄 여름 가을

내장산의 봄

붉은색

족도리풀	노루귀
현호색	자주괴불주머니
제비꽃	큰구슬붕이
내장금창초	벌깨덩굴
광대나물	얼레지
각시붓꽃	약난초
백양더부살이	참꽃마리
닥나무	으름덩굴
복분자딸기	박태기나무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갯버들

노란색

복수초	애기똥풀
산괴불주머니	애기괭이눈
뱀딸기	양지꽃
괭이밥	붉은대극
중의무릇	윤판나물
금난초	매미꽃
노랑붓꽃	까치박달
졸참나무	겨우살이
생강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상산	산수유나무
개나리	병꽃나무
굴피나무	

흰색

나도물통이	개별꽃
개구리발톱	만주바람꽃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백작약	큰괭이밥
산자고	돌단풍
국수나무	찔레꽃
산벚나무	아까시나무
고추나무	박쥐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곰의말채	때죽나무
쥐똥나무	덜꿩나무
매실나무	

녹색

석창포	천남성
둥글레	삿갓나물
보춘화	
비자나무	삼나무
화살나무	참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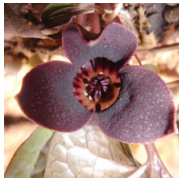


돌단풍

족도리풀(*Asarum sieboldii Miq*)

• *개화시기 : 4~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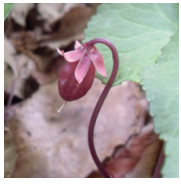
꽃

꽃은 자줏빛으로 끝이 3 갈래 갈라지고 항아리 모양을 하며 잎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을 보고 쌓여 있는 낙엽을 들어내면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잎

잎은 폭이 5~10㎝이고 줄기 끝에서 2장이 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잔털이 많으며 줄기는 자줏빛을 띱니다.



열매

족도리풀의 열매는 8~9 월 경에 두툼하고 둥글게 달리며 색은 자주색을 띱니다.

stoRy 족도리풀의 전설

경기도 포천 지방에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하여 꽃 아가씨라 불렸습니다. 꽃 아가씨는 산나물을 캐고 꽃나무를 심으며 생활했는데, 궁녀로 뽑혀가 시집도 못가고 궁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머나먼 중국 땅으로 팔려가 들판에 굴러다니는 풀과 같은 인생을 겪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도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녀가 죽은 뒤 그 집 뒷마당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풀의 꽃은 마치 처녀가 시집갈 때 쓰는 족도리 같은 모양이었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족도리풀은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에 많이 자생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족도리풀의 꽃을 관찰하려면 자세를 많이 낮춰야만 예쁜 자주색의 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노루귀(*Hepatica asiat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노루의 귀를 닮은 노루귀

노루귀는 잎이 깔때기 모양으로 말려서 나온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하여 노루귀라는 정겨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소식을 알리는 듯 눈을 헤치고 나와 작은 꽃을 내민다 하여 파설초(破雪草), 설할초(雪割草)라고도 합니다.
노루귀의 꽃 색깔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흰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색이 표현되지만 자연 상태의 노루귀 꽃은 연분홍색, 진분홍색, 남색을 띠기도 하며 줄무늬가 있는 꽃잎, 꽃잎의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 등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루귀는 자연사랑길,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분홍색과 흰색으로 어우러진 노루귀는 정말 예쁘답니다. 하지만 만지진 마세요!
꽃잎이 약해 만지면 쉽게 꽃이 부서져 버린답니다.

꽃

4 월에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 꽃이 피는데 잎보다 먼저 긴 꽃대 위에 1개씩 붙습니다.
꽃잎은 없고, 꽃잎 모양의 꽃받침이 6 ~ 8 개 있습니다.



잎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3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잎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뭉뚝하며 뒷면에 솜털이 많이 납니다.



열매

열매는 수과로서 털이 나며, 6월에 총포에 싸여 익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호색(*Corydalis remota*)

• *개화시기 : 4~5 월*





꽃

꽃은 연한 홍자색이며 길이는 약 2.5㎝ 정도 되고 5~10 개가 원줄기 끝에 뭉쳐서 달립니다. 화관은 길이 2.5cm 정도이고 뒤쪽은 꿀주머니로 되며 앞쪽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잎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1~2 회 3 개씩 갈라집니다. 갈래 조각은 도란형이고 윗부분이 깊게 또는 결각상으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은 분백색입니다.



열매

열매는 6~7 월경에 길이가 2㎝, 폭이 0.3㎝ 정도로 달리고 종자는 광택이 나고 흑색이다.

stoRy 종달새를 닮아 하늘을 날고픈 현호색

내장산에 봄이 오면 수많은 종달새들이 목청 높여 자태를 뽐내며 지저귑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 손위에 올려놓아도 날아갈 줄 모르고 그저 스스로의 아름다운 자태에 도취해 한껏 뽐내기만 하는, 아름다운 새를 꼭 닮은 야생화 현호색!
그 옛날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양귀비라고 부르기까지 했었답니다.
현호색은 산 끝자락, 야트막한 골짜기양옆, 얕은 계곡 바위틈새, 마치 새들이 먹이를 조는 듯 와락 모여 있습니다.
청자빛 인가하면, 자주색빛이 돌고, 연붉은색인가 하면, 연보라빛 색도 있으며 비취색도 볼 수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현호색은 내장산에서 매우 흔한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모든 탐방로에서 다양한 색의 현호색을 관찰할 수 있어요!
모두 현호색이긴 하지만 잎의 모양이 모두 달라 잎의 모양도 함께 관찰한다면 더욱 재미있답니다.

자주괴불주머니 *(Corydalis incis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주머니를 닮은 자주괴불주머니

이 꽃의 이름은 자주괴불주머니예요.
이름이 특이하죠?
괴물주머니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은 아니고, 한복을 장식하는 노리개의 순우리말이 괴불주머니인데 그것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괴불이란 오래된 연(蓮)뿌리에 서식하는 열매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를 의미하고 있어, 옛날 사람들은 오색의 비단 헝겊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아 만든 노리개인 괴불주머니를 주머니 끈 끝에 차고 다녔어요!
그 주머니와 닮은 형태로 자주색 꽃을 피운다하여 자주괴불주머니라고 이름 붙여졌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주괴불주머니는 매우 흔합니다.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주괴불주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현호색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꽃의 모양과 잎의 모양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꽃

꽃은 4~5 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총상으로 달리며 밑에 꼴주머니가 있고 한쪽은 입술 모양으로 퍼집니다. 수술은 6 개가 3 개씩 2 개로 갈라집니다.



잎

나온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작은 잎이 3 장씩 2 번 나오며 작은 잎은 3 장씩 나온 잎과 비슷합니다.



열매

열매는 삭과로서 6 월에 익는데, 편평한 긴 타원형이며 검은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비꽃(*Viola mandshur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 봄에 피는 꽃

혹시 제비꽃을 못 본 친구가 있나요?
제비꽃은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제비꽃은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 봄에 핀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제비꽃은 갈고리처럼 생긴 꿀샘이 아주 깊어요! 그 꿀샘을 서로 어긋나게 걸어 잡아당기면 약한 꽃이 먼저 떨어지는데, 이 놀이를 꽃 씨름이라고 합니다.



꽃	자주색 꽃이 옆을 향해 핀다.
잎	세모진 달걀형
열매	열매는 익으면 3 쪽으로 갈라진다.
특징	제비가 올 때쯤 피어서 제비꽃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제비꽃은 내장산 어느 탐방로에서든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관찰로를 거닐며 고개만 돌려도 제비꽃은 우리를 반겨줄거예요 ^^

내장금창초(*Ajuga decumbens var. rosa*)

• *개화시기 : 4~6 월*

story 내장산에서 처음 발견 된 내장금창초

내장금란초라고도 불리며 꽃은 분홍색입니다. 일반 금창초는 보라색을 띄지만 내장금창초는 분홍색을 띄고 있으니 구별할 수 있겠죠?? 내장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내장금창초라고 불리며 남부지방 산과 들에 자생한답니다. 윗부분의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 또는 달걀모양이에요 ^^



꽃	잎겨드랑이에 여러 개의 분홍색 꽃이 난다.
잎	줄기와 잎에는 많은 털이 있다.
열매	8~10 월경에 달리고 그물 모양의 무늬
특징	잎, 줄기, 꽃, 뿌리 전체가 약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금창초는 자주색의 금창초와 함께 삼청공원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꽃이 바닥에 가까워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밟을지도 몰라요~!
꽃을 관찰하기 위해선 몸을 많이 낮춰야 한답니다.

큰구슬붕이(*Gentiana zollingeri*)

• *개화시기 : 5~6 월*



story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꽃, 큰구슬붕이

구슬붕이의 이름의 유래는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작은 구슬들을 함박 담고 있는 봉의 모양을 하고 있어 유래가 됐다는 설과, 봄에 꽃이 피면 앙증맞은 꽃들이 바닥에 보석 구슬처럼 깔려 있어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1940년대에 정리된 내용들이라 그 이전의 유래는 확인할 길을 없어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구슬붕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의 땅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빛 고운 야생화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구슬붕이는 금선계곡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은 편에 속해서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니 눈을 크게 뜨고 큰구슬붕이를 찾아보세요^^

꽃	꽃은 자주색으로 핀다.
잎	잎은 가장자리가 두껍다.
열매	8~9월에 열린다.
특징	구슬붕이와 비슷하다.

벌깨덩굴(*Meehania urticifoli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여름 모양식 메기입을 빼닮은 벌깨덩굴

벌깨덩굴은 높고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깊고 청아한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다가서면 물에서 살아가는 메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생화 흔적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을 시간, 큰 꽃송이로 녹색의 풀 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피어나 우리들 시선을 사로잡는 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벌깨덩굴은 높고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깊고 청아한 숲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다가서면 물에서 살아가는 메기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생화 흔적들이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을 시간, 큰 꽃송이로 녹색의 풀 속에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피어나 우리들 시선을 사로잡는 답니다.

꽃	꽃은 보라색, 꽃은 큰 입술모양
잎	잎은 신장형, 약간 세모진다.
열매	7~8월경에 계란 모양
특징	어린잎은 식용

광대나물(*Lamium amplexicaul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춤을 추는 광대, 광대나물

광대나물은 기다란 통부리 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릿광대가 털옷에 털모자까지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그럼 광대나물은 왜 광대나물일까요? 광대나물은 꽃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광대 같다 해서 광대나물이에요~
또 꽃을 받치고 있는 이파리가 광대 옷의 목둘레 장식을 닮았다 해서 광대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꽃	꽃은 분홍색, 기다란 원통형
잎	잎은 마주난다.
열매	7~8 월경 달걀모양
특징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광대나물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분홍색의 꽃이 입술모양으로 피어 매우 예쁘답니다. 간혹 흰색의 광대나물도 있으니 흰색의 광대나물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거에요^^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개미와 얼레지의 관계

얼레지는 꽃이 진 뒤에 씨가 맺히는데, 특이하게도 얼레지 씨에서는 개미 유충과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개미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듯이 열심히 얼레지 씨를 땅속 개미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얼레지 씨는 발아하기 쉬운 땅속 깊숙이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레지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빽빽이 자라는 것은 이처럼 개미의 이동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꽃	홍자색 꽃이 밑을 보고 핀다.
잎	잎 표면에 자주색 얼룩무늬
열매	타원형의 열매는 3 줄로 골이 팬다.
특징	6 장의 꽃잎 밑 부분에 W 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에서 얼레지를 관찰하려면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가야해요!
계곡 근처에서 피는 얼레지는 어두울 때에는 꽃을 피우지 않고 밝을 때에 꽃이 활짝 핀답니다.
우리가 내장산에서 얼레지를 관찰하긴 어렵답니다.

약난초(*Cremastra appendiculata*)

• *개화시기 : 5~6 월*



꽃

자갈색 꽃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밑을 향해 피고 꽃줄기에는 잎집 같은 입이 달린다.



잎

긴 타원형 잎은 겨울이 지나면 마르는데, 끝이 뾰족하고 밑 부분이 좁아져서 입자루와 연결된다.



열매

열매는 삭과이고 길이 2~25.cm 의 긴 타원 모양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약난초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홍갈색으로 여러 개가 모여 피어 있어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탐방로 근처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 어렵고 특히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이므로 조심해야 해요 ^^

stoRy 바람의 속살을 닮은 난초

바람의 속살을 닮은 난초라는 표현을 누가 처음으로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약난초에요. 아마 한방에서 약용으로 널리 사용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깊은 숲 속 어딘가에서 제법 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희귀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 *개화시기 : 5~6월*

stoRy 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백양더부살이

백양더부살이는 세계적으로 희귀종이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이에요!
백양사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쑥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 쑥의 양분을 빼앗아 먹고 사는 기생식물이어서 백양더부살이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푸른 잎이 전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완전한 기생식물이에요~



꽃	보라색 바탕에 흰줄무늬
잎	길쭉한 삼각형의 모양
열매	6월경 갈색으로 달림
특징	쑥에 기생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양더부살이는 내장산국립공원의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멸종위기종인 백양더부살이는 눈으로만 관찰해야 한답니다.

참꽃마리 *(Trigonotis nakaii)*

• *개화시기 : 4~6월*

stoRy 연한 하늘색 꽃이 아름다운 참꽃마리

'꽃'은 풀꽃 아닌 다른 어떤 말에 쓰여도 예쁘죠? 꽃동산, 꽃미남 등 붙이기만 하면 예쁜 느낌이 살아나요~
'꽃마리'는 꽃이름도 무척 예뻐요~ '꽃마리'는 꽃이 피기 전에 꽃줄기가 달팽이 모양으로 도르르 말리는 것을 보고 지은 이름입니다. '참꽃마리'는 꽃마리처럼 말려 있지는 않은데, 연하늘색 꽃이 이름처럼 예쁘답니다.



꽃	연보라색 또는 연분홍색
잎	달걀형의 뿌리잎
열매	분과로 9월에 익음
특징	우리나라 특산종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마리와 비슷하지만 꽃마리보단 꽃의 크기가 훨씬 크답니다.

닥나무(*Lamium amplexicaule*)

• *개화시기 : 4 월*



story 한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닥나무

한국 사람은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을 알고, 이집트 사람은 파피루스(papyrus)가 종이의 어원(語源)임을 알며, 중국 사람은 종이를 발명한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해요~

'닥나무'하면 우선 종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전주지역은 닥나무로 만든 한지와 닥나무 주산지로 유명하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닥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암꽃과 수꽃의 모양이 달라서 마치 둘 다 꽃이 아닌 것 같답니다.

6 월에 열리는 열매는 마치 산딸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꽃	암수한그루, 꽃이삭은 둥그스름
잎	어긋나고 달걀형
열매	둥근 열매는 주홍색으로 익는다.
특징	질긴 나무껍질은 한지의 재료

으름덩굴(*Akebia guin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얼음과일이라 불리는 으름덩굴

소시지 모양의 열매인 으름은 가을에 익으면 배가 갈라지면서 속에 있는 열매살이 드러나는데 열매살의 모양은 껍질을 벗긴 바나나 모양과 비슷하고 맛도 비슷해요~

하얀 열매살을 입에 넣으면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으름덩굴의 열매를 '얼음과일'이라고 하던 것이 변해서 '으름이 되었다는 글이 있는데 재미있는 풀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으름덩굴은 삼청공원과 입암지킴터~장성새재 구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으름덩굴은 꽃도 예쁘지만 열매가 더 유명하죠^^

하지만 열매가 맛있다고 따면 안돼요!

꽃	암꽃이 수꽃보다 더 크다.
잎	작은잎은 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소시지 모양의 열매
특징	열매는 흰색 속살을 먹는다.

복분자딸기 (*Ruvus coreanu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복분자를 먹으면 요강이 뒤집어진다?
옛날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게 되어 배가 고파 우연히 덜 익은 산딸기를 먹게 되었어요. 시지만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줄기가 너무 힘이 세어 오줌항아리가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다'는 뜻의 '복(覆)'과 '항아리'인 '분(盆)'을 합해 '복분자(覆盆子)'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해요~



꽃 가지 끝에 산방꽃차례로 모여핀다.
잎 어긋나고 잎자루에 가시가 있다.
열매 딸기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복분자딸기는 서래탐방지원센터 근처와 삼청공원의 계곡 부근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특히 열매가 몸에 좋다고 따서 먹으면 안돼요^^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寧邊 (영변)의 藥山(약산) 진달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꽃 꽃은 깔때기 모양
잎 잎 앞면은 비늘조각이 약간 있다.
열매 열매는 원통 모양
특징 꽃을 따 먹을 수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진달래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진달래와 철쭉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진달래와 철쭉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답니다.^^

박태기나무(*Ccrcis chinensis*)

• *개화시기 : 4 월*



stoRy 밥티기를 닮은 박태기나무 꽃

밥알 모양과 비슷한 꽃이 피기 때문에 박태기라 하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밥티나무라고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 하여 구슬꽃나무라 하고 그리스말로는 Cercis, 즉 칼처럼 생긴 꼬투리가 달린다 해서 칼집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한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이 나무에 목매어 죽은 나무라고 하여 유다 나무라고도 한답니다.

박태기나무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이며 추위에도 잘 견디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고 박토에서도 잘 자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태기나무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원래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자생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홍자색으로 핀 꽃은 자연사랑길을 한껏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주고 있답니다.

꽃

잎보다 먼저 피는데 나비 모양의 홍자색 꽃이 7~30 개씩 한군데 모여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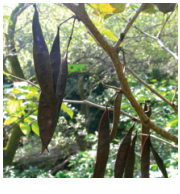
잎

잎은 어긋나고 심장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앞면은 광택이 있고 뒷면 잎맥 기부에 털이 있다.



열매

6 월에 열리는 기다란 꼬투리 열매 속에 들어 있는 씨는 편평한 타원형이다.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 *개화시기 : 5~6 월*





꽃

수꽃은 8~10 개의 수술이 있고 암꽃은 약간 둥근 씨방에 2 개의 암술대가 있으며 씨방 밑에 퇴화된 수술이 있다.



잎

가지 끝에 촘촘히 어긋나는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뒷면은 회백색이며 털이 없다.



열매

긴 타원형의 핵과열매는 검은 자주색으로 익으며, 겉에 흰 가루가 있고 속에 타원형 씨가 1 개씩 들어 있다.

stoRy 내장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굴거리나무는 상록식물입니다.
굴거리나무는 원래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내장산이 굴거리나무가 서식할 수 있는 내륙북방한계선입니다.
그래서 내장산에 있는 굴거리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 91 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린 가지는 붉은색을 띄고, 자라면서 초록빛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약재로 쓰이는 만병초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천연기념물 91 호인 굴거리나무군락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약 10,000 여그루의 굴거리나무가 자생하는 군락지는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나고 굴거리나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풍나무(*Acer palmatum*)

• *개화시기 : 5월*



story 가을 단풍의 대명사, 단풍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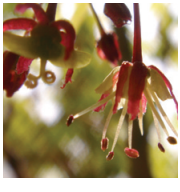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물든 단풍 구경을 떠나는데 가장 흔히 만나는 나무가 손바닥 모양의 잎을 가진 단풍나무에요.
단풍잎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초록색 엽록소를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빨간 색 색소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붉은 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단풍나무 종류에는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신나무, 복자기, 고로쇠 등 여러 종류가 있지요.
제각 다른 꽃 모양과 잎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단풍드는 색도 다르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위의 단풍나무들과 함께 아기단풍, 내장단풍 등 총 11종의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는 단풍나무에요~ 어느 탐방로에서든 단풍나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당단풍, 고로쇠나무, 신나무, 복자기나무 등도 관찰할 수 있어요^^

꽃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는 털이 없고 아래로 처지면 10~20개의 자잘한 꽃이 모여 핀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 각 5개이고 수술은 8개이며,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진다.



잎

잎은 마주나고 잎몸은 가장자리가 5~7개로 갈라진다. 갈래조각은 서로 겹쳐지지 않고 끝이 길게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다.



열매

긴 타원형의 날개를 가진 열매는 2개가 마주 붙는데 두 날개는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갯버들(*Salix gracilistyla*)

• *개화시기 : 4 월*

stoRy 버들강아지 눈 떴다!!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갯버들을 흔히 '버들개지', '버들강아지' 라고 불러요~ 강가나 개울가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니 '갯버들' 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버들강아지'는..? 아마도 보송보송한 털로 봄기운을 간지럼 태우는 그 모습이 털복숭이 강아지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을거에요^^



꽃	암수딴그루,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잎	어긋나고 거꾸로 된 피침형~넓은 피침형
열매	긴 원통형
특징	개울가에서 자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갯버들은 자연사랑길의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 핀 갯버들의 꽃은 마치 솜털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매우 예쁘답니다.
기다란 꽃 이삭을 흔히 '버들강아지'라고 불러요~

각시붓꽃(*Iris rossii*)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새색시를 닮은 각시붓꽃

각시붓꽃은 꽃봉오리가 먹물 머금은 붓 모양을 닮았고, 이름은 새색시처럼 어여쁘고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각시붓꽃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핍니다. 잎 사이에서 자란 손가락 하나 정도의 짧은 꽃대에 보랏빛 꽃이 핍니다.
붓꽃의 꽃봉오리를 떠올리며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며 옛 선비의 향취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꽃	1개의 자주색 꽃이 위로 핀다.
잎	2~3개가 2줄로 어긋나게 겹쳐 난다.
열매	6 월에 열리며 둥근 열매
특징	외화피에 황백색의 그물 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각시붓꽃은 내장산의 탐방로에서는 쉽게 관찰하기 어려워요~
각시붓꽃은 산기슭 숲 가장자리의 반그늘에 서식하기 때문에 숲 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답니다.

복수초(*Adonis amurensis*)

• *개화시기 : 2~5 월*



story 봄의 전령사, 복수초

복수초(福壽草) 란 한자 그대로 복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꽃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랍니다.
눈꽃에서 피어나나 연꽃 같다하여 '설련화' 눈과 어름 사이에서 피어난다하여 '눈색이꽃' 또는 '얼음새꽃' 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황금색이나 부를 상징하고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워내니 강인함이 더해져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복수초는 이른 봄에 내장산의 최고봉인 신선봉을 등산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노란 복수초가 군락을 이루며 얼음을 뚫고 나온 모습을 관찰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산을 올라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꽃잎은 20~30 개, 수술이 많다.
잎	밑 부분의 잎은 막질, 줄기를 둘러싼다.
열매	꽃턱에 둥글게 모여 달린다.
특징	한낮에만 꽃잎이 벌어진다.

애기똥풀(*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 *개화시기 : 5~8 월*



story 엄마의 사랑과 정성, 애기똥풀

애기똥풀은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꽃말인 야생화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에 얽힌 전설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눈에 이물질이 많아 눈을 뜨지 못한 채 태어난 아기제비가 있었는데, 이때 어미 제비가 애기똥풀의 줄기를 입으로 꺾어 거기서 나오는 유액으로 어린 아기 제비의 눈을 씻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제비를 뜻하는 Chelidon 에서 학명 첼리도니움(Chelidonium) 이 유래되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애기똥풀은 내장산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애기똥풀의 줄기를 자르면 아기 똥과 같은 노란색 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식물 채취가 금지된 국립공원에서는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꽃	노란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잎	뿌리잎은 1~2 개로 잎자루가 있다.
열매	기다란 열매가 여물면 검은씨가 나온다.
특징	줄기나 잎을 자르면 노란색즙이 나온다.

산괴불주머니(*Corydalis speciosa*)

• *개화시기 : 4~6월*

story 보물주머니, 산괴주머니!!

산괴불주머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산괴불주머니라는 이름은 씨가 들어 있는 부분이 오색 비단 헝겊을 이용해 수를 놓아 만든 노리개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산괴불주머니는 풀 전체나 뿌리를 진통, 타박상 등에 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상용보다는 약재로 인정받는 꽃이랍니다.



꽃	황색의 많은 작은 꽃이 핀다.
잎	잎의 마지막 갈래쪽은 줄꼴의 버들잎 모양
열매	염주 모양과 비슷
특징	유독성 식물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및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의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현호색과 비슷하지만 산괴불주머니는 현호색보다 작은 꽃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애기괭이눈(*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 *개화시기 : 4~5월*

story 괭이눈을 닮은 꽃!!

괭이는 옛 사람들이 고양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괭이눈 꽃이 필 때 노란 가루가 뒤덮여 있는 작은 꽃송이와 안쪽에 있는 작은 수술의 모양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고양이의 눈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고양이가 햇살 좋은 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꽃	연노란색 꽃이 줄기 끝에 핀다.
잎	작은 잎몸은 둥근모양, 심장모양
열매	삭과이고 2개로 갈라지며 노란색
특징	산지의 습한 바위틈에서 자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애기괭이눈은 금선계곡과 원적계곡의 바위틈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애기괭이눈을 관찰하기 위해선 계곡을 건너야 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해요!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뱀이 먹는 딸기라고요?

뱀딸기는 먹어도 되는 딸기일까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뱀딸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좋을 건 없겠죠?
뱀딸기는 가게에서 파는 딸기에 견주면 맛이 하나도 없는 편이에요. 초여름에 나오는 산딸기에 견주어도 맛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왜 이 딸기를 뱀딸기라고 했을까요?
그건 뱀이 다니는 풀 숲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딸기는 4 월부터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빨갛게 익은 열매를 보면 마치 먹고 싶은 욕구도 생긴 답니다. 하지만 먹으면 탈나요~^^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자루 끝에 1개의 노란색 꽃이 핀다. 꽃잎은 5장으로 끝이 약간 팬 거꾸로 된 세모꼴이다.



잎

잎은 3출엽이며, 작은 잎은 달걀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뒷면에는 긴 털이 나 있다.



열매

딸기 모양의 둥근 열매는 지름이 1cm 정도이고 붉게 익으면 아이들이 따 먹는데, 딸기보다는 맛이 없고 먹으면 배앓이를 한다.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 *개화시기 : 4~6월*

story 양지꽃과 뱀딸기

- 잎가장자리의 톱니 끄트머리가 양지꽃은 뾰족, 뱀딸기는 뭉툭
- 양지꽃은 무더기로 피는데 뱀딸기는 줄기 하나에 꽃 하나씩
- 꽃잎과 꽃받침의 크기 비율을 보자면 양지꽃에 비하여 뱀딸기는 꽃을 감싸 안을 듯이 크다.
- 꽃잎의 끝부분에서 살짝 들어간 곳을 보면 양지꽃에 비하여 뱀딸기의 곡선이 더 부드럽다.
- 꽃망울 부분을 보면 뱀딸기의 꽃망울이 훨씬 크고 장차 뱀딸기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꽃 줄기 끝에서 가지마다 핀다.

잎 뿌리잎은 여러 개 나와서 사방으로 퍼진다.

열매 여원열매(수과)

특징 뱀딸기와 꽃이 비슷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양지꽃은 뱀딸기와 꽃이 비슷합니다.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지꽃과 뱀딸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쉽게 양지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괭이밥(*Oxalis corniculata*)

• *개화시기 : 5~9월*

story 고양이 밥, 괭이밥

이 풀을 왜 괭이밥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말이에요~ 동물은 다치거나 아프면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 치료 능력이 있는데, 고양이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플 때 괭이밥을 뜯어 먹고 몸이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풀을 괭이밥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괭이밥에는 잎이 붉은 '붉은괭이밥' 과 자줏빛 꽃이 피는 '자주괭이밥'도 있어요~



꽃 노란색 꽃이 봄~가을까지 핀다.

잎 작은 잎은 거꿀 심장 모양

열매 6각이 진 기둥 모양

특징 잎은 밤이면 오므려 서로 붙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괭이밥은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앙증맞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흐린 날과 맑은 날의 괭이밥을 관찰해 비교해 보세요^^

붉은대극(*Euphorbia ebracteol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어릴 때의 색은 붉은색!

붉은대극의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흰 유액이 독성이 강해 목구멍을 몹시 자극한다고 하여 대극(大戟)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대극의 잎이 버드나무의 잎처럼 생기고, 잎을 자르면 옻나무처럼 흰 즙액이 나온다고 하여 '버들옻'이라고도 합니다. 새싹이 날 때 붉은빛을 띤다하여 '붉은대극'이라고 붙여졌지만, 암꽃과 수꽃이 소포엽이 없다해 '민대극'이라고도 불립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붉은대극은 자연사랑길 중간 부근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탐방로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원적골자연관찰로보다 자연사랑길에 있는 붉은대극의 개화가 빨라요^^

꽃	술잔모양의 꽃싸개잎 안에 핀다.
잎	줄기와 잎이 어릴 때는 홍자색
열매	열매가 위에서 아래로 벌어지는 형태
특징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

중의무릇(*Gagea lute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스님이 사는 산속에 피는 꽃

중의무릇의 학명은 Gagea lutea 의 'lutea'는 황색이라고 합니다. 노란 꽃을 가진 식물이라는 뜻이지요~

무릇은 '물기가 많은 곳이나 가장자리에 피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중의무릇의 잎은 무릇의 잎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더욱이 스님들이 사는 산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요~ 결국 중의무릇은 산 속에서 사는 무릇과 비슷한 식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중의무릇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모여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두운 날씨나 흐린 날에는 꽃이 활짝 피지 않아요! 맑은날과 화창한 날에만 중의무릇은 활짝 꽃을 피운답니다.

꽃	꽃잎과 수술은 6 개씩이다.
잎	잎은 칼 모양이다.
열매	둥근 열매는 3 개의 능선이 있다.
특징	어린잎과 당 속의 비늘줄기는 약

윤판나물(*Disporum sessil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윤판나물에서 겸손을 배운다!*

옛날 윤씨 성을 가진 판서댁의 중정 숲속에서 피어난 모습을 윤판서가 보고 나물같이 피어난 야생화가 겸손의 미덕을 갖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 항상 공직자로 백성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일에 정성스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략)
임금은 그 꽃이 무척 궁금하여 윤판서 집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화려한 꽃송이를 피우고 있었지만, 겸손한 자태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윤판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꽃	길쭉한 꽃이 밑을 향해 핀다.
잎	잎자루가 없고 끝이 뾰족하다.
열매	둥근 열매는 가을에 검게 익는다.
특징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윤판나물은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밑을 향해 피어 있는 모습이 다른 꽃들과는 다르지만 윤판나물을 만나면 꽃 안을 관찰해보세요^^

금난초(*Cephalanthera falcata*)

• *개화시기 : 3~5 월*

stoRy *빛내림에 꽃잎을 연 황금색 귀부인*

금난초는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나며 빛이 강한 날 황금색으로 반개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반개한 모습이 도도하기 짝이 없어요~ 아름다운 자태와 더불어 은은한 향도 일품입니다. 금난초는 5 월에 피는데, 이때엔 많은 송화가루가 날려요~
금난초가 자라는 곳이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이다 보니, 금난초가 피었을 때 넓은 잎 식물들은 송화가루가 하얗게 앉아 있는 모습이 된답니다.



꽃	7~12 개의 황색 꽃이 핀다.
잎	줄기에 6~8 개가 어긋난다.
열매	갈색이며 긴 타원형
특징	다른 꽃들처럼 활짝 개화하지 않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금난초는 내장산의 깊은 산 속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금난초를 관찰하긴 어렵답니다.
아쉽지만 사진으로 금난초의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매미꽃(*Hylomecon hylomeconoides*)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매미가 울지 않아도 매미꽃은 핀다

매미가 울 무렵이면 꽃을 피운다 하여 매미꽃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매미꽃은 한국 특산식물로 환경부와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한 법정보호식물이에요~

예쁜 꽃은 향기가 없다고 했던가~ 매미꽃은 양귀비과 식물입니다.

양귀비과 식물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아주 화려한 색상과 자태를 자랑하지만 향기는 거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매미꽃은 내장산의 탐방로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가 아니에요~

숲 속 깊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 특산식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꽃	뿌리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핀다.
잎	작은 잎은 타원형
열매	둥근 모양이며 갈색이다.
특징	한국 특산식물이다.

노랑붓꽃(*Iris korean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베토벤이 좋아하던 꽃, 노랑붓꽃

노랑붓꽃은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좋아하던 꽃 중의 하나로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는 꽃 창포를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랑붓꽃은 노랑무늬붓꽃과 다르고, 붓꽃은 프랑스의 국화라고 하는데, 붓꽃에 관한 전설들은 이탈리아에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붓꽃은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 월이 되면 자연사랑길의 특별보호구 내에 노란색으로 예쁜 꽃이 피어 있는 노랑붓꽃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보호구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꽃	줄기 끝에 황색 꽃이 2 개 핀다.
잎	칼꼴의 줄모양, 끝이 뾰족하다.
열매	삭과로 둥근 모양
특징	전라도에 분포(부안, 정읍, 장성)

까치박달(*Carpinus cord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까치가 좋아하는 나무?

단군신화를 보면 환웅이(神檀樹 박달나무) 즉, 신목 아래로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렸다 합니다. 그는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神檀樹 아래에 내려와 神市 라고 일컬었다 해요~ 이때 신시가 개설된 곳의 나무가 박달나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도끼 부러지는 자작나무'라는 뜻으로 '오노오레감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가 단단하여 홍두깨 방망이, 다듬이 받침, 도장용 재료 등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꽃 암수한그루로 꽃은 잎과 함께 핀다.
잎 어긋나고 달걀형, 끝이 길게 뾰족
열매 기다란 원통형
특징 암꽃이삭은 수꽃이삭보다 작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까치박달은 내장산의 어느 탐방로에서든 관찰할 수 있어요~
키가 큰 나무이지만 암꽃과 수꽃이 5cm 정도로 길게 밑을 향하고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졸참나무(*Quercus serrat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잎이 작아 졸병을 뜻하는 졸참나무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도토리로 먹을거리를 만들어 겨울 양식으로 삼았어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 도토리를 줍고 나무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도토리를 주워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도토리를 꺼내 작은 도토리와 비교해 보았어요~ 크니깐 왕이라고 하고, 작으니깐 졸 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졸참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꽃 암수한그루로 잎과 함께 핀다.
잎 거꾸로 된 달걀 모양
열매 도토리 열매는 긴 타원형
특징 나무의 생장이 빠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졸참나무는 다른 종류의 참나무들과 함께 흔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도토리는 작은 편에 속하고 길쭉합니다. 숲에서 도토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가져가면 안돼요~
숲 속 동물들의 중요한 먹이거든요^^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

• *개화시기 : 3~4 월*



story 겨울에는 새들에게 최고!

겨우살이는 보통 오동나무, 팽나무, 밤나무 가지에 기생하는데,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남의 나무에 세 들어 사는 만큼 번식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겨우살이의 열매는 까치, 비둘기와 여러 산새들이 좋아하여 즐겨 찾는데, 새들이 열매를 먹더라도 종자와 과육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과육에 둘러싸인 종자는 마른 나뭇가지에 들러붙고 이 상태에서 겨울을 나면 싹이 트고 기생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생하는 나무들의 높은 가지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겨우살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와 전망대 구간에서 많은 수의 겨우살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나무류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주변에 많은 산새들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꽃

잎 사이에 연노란색의 작은 꽃이 피는데 꽃자루가 없다.
총포는 술잔 모양이고 꽃잎은 없으며 꽃덮이는 종 모양으로 끝이 4 개로 갈라진다.



잎

잎은 가지 끝마다 2장씩 마주나고 피침형~타원형이며 밑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잎자루가 없으며 짙은 녹색이고 두꺼운 가죽질이다.



열매

둥글고 겨울에 연노란색으로 익는데 끝에 꽃덮이조각과 암술머리가 남아 있다.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는 것은 '붉은겨우살이'라고 한다.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 *개화시기 : 3~5 월*

stoRy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개나리보다 일찍 깨어나 봄을 알려주는 나무가 있어요! 이름하여 생강나무라고 해요~ 생강이 달리는 나무가 아니라 꽃이나 잎과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생강처럼 톡 쏘는 향이 아니라 아주 산뜻하고 좋은 향기가 납니다.



꽃	꽃이 우산처럼 둥글게 모여 핀다.
잎	봄에 돋는 어린잎은 솜털로 덮여 있다.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생강나무는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만날 수 있어요!
3 월이 되면 노란색의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
생강나무 근처를 지날 때면 왠지 생강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 느껴보세요.

산수유(*Cornus officinalis*)

• *개화시기 : 3~4 월*

stoRy *노란 꽃으로 봄을 알리는 산수유*

이른 봄에 산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가 생강나무라면 마을에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무가 산수유에요. 산수유는 봄이 오면 나무 가득 노란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이 되면 붉은 색으로 익어요.
옛날에는 산수유 몇 그루만 있으면 수확한 열매를 판 돈으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가 있어서 '대학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꽃	노란색 꽃이 둥글게 모여 핀다.
잎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달걀형
열매	긴 타원형 핵과 열매
특징	열매는 중요한 한약재로 쓰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수유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을 피운 산수유는 봄을 알리고 있고, 가을에 익은 빨간색의 열매는 매우 탐스럽습니다.
산수유의 수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상산(*Orixa japon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이 진한 나무, 상산

상산은 향이 진하여 향기를 맡으면 '아하! 상산이다!'라고 알 정도로 향기가 진합니다.
상산을 나무 그늘 같은 곳에 심으면 파리와 같은 해충을 쫓아낼 수 있다하고, 잎과 줄기를 삶아서 그 물로 가축을 닦아주면 각종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삶은 물로 재래식 화장실에 부어 넣으면 벌레를 죽일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예부터 화장실 주변에 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상산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상산 근처에서는 상산의 특유의 향이 납니다.
특히 잎을 만진 후 손을 코에 대면 그 냄새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상산을 찾아 무슨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꽃	암수딴그루, 자잘한 황록색 꽃
잎	어긋나고 타원형~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4 개로 갈라진 삭과 열매
특징	잎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

까마귀밥여름나무(*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까마귀밥여름나무의 정체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까마귀밥여름나무일까? 큼직하고 검은 느낌이 나지만 막상 이 나무를 보고 나면, 특히 봄에 작고 귀여운 꽃들과 가을에 겨우내 달려 있는 동그란 빨간 열매를 보고 있으면, 까마귀보다는 작은 종달새가 더 먼저 떠올리는 나무입니다.
일설에는 영리한 까마귀가 영양가 많은 이 나무의 가치를 잘 알고 찾아와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까마귀밥여름나무는 자연사랑길,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마치 별을 닮은 모습이어서 매우 예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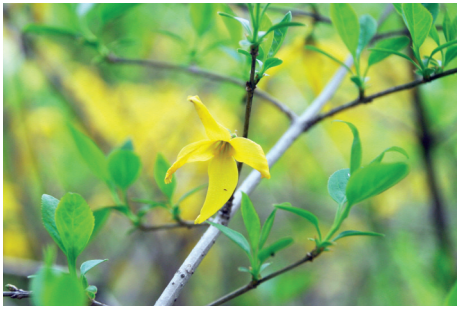
꽃	암수딴그루로 노란색 꽃이 핀다.
잎	윗부분이 3~5갈래로 갈라진다.
열매	둥근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꽃잎이 뒤로 젖혀진다.

개나리(*Forsythia koreana*)

• *개화시기 : 4 월*

story 잎 가득 머금고 피어나는 개나리

봄은 뭐니 뭐니해도 노란색의 계절이에요. 노란색 하면 개나리고요! 개나리는 나리꽃과 비슷하지만 나리는 아니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일 거라고 해요. 개나리는 길게 늘어지는 가지에 네 장의 꽃잎으로 된 노란 꽃이 봄빛 가득 머금고 피어나요~ 그러면 어디선가 병아리 떼가 나타나 봄나들이 가자고 할 것만 같아요!^^



꽃	노란색 꽃이 1~3 개씩 달린다.
잎	잎 양면에 털이 없고 앞면에 광택
열매	달걀형 열매는 끝이 뾰족하다.
특징	휘묻이, 꺾꽂이로 번식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나리는 자연사랑길과 단풍터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이 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병처럼 생긴 꽃이 색깔이 변하는 나무

병꽃나무는 꽃 모양도 특이하지만 꽃의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녹색이 도는 노란색의 꽃이 피었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에 황록색과 붉은색의 꽃이 함께 달려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지요.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꽃의 빛깔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해요!



꽃	깔때기 모양의 꽃
잎	마주나고 거꾸로 된 달걀형
열매	작고 길쭉한 열매는 2 개로 갈라진다.
특징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병꽃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연사랑길은 신선재와 근접해 있어 관찰하기 어렵지만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는 초입에 병꽃나무가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염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굴피나무

굴피나무는 쓰임새가 다양한 나무입니다.
나무껍질은 머리 염색에 사용하고, 목재는 성냥개비의 재료가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굴피나무 목재로 임금님의 관을 제작한 기록도 있습니다.
굴피나무의 열매는 황갈색 염료의 재료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흑갈색 염료의 재료로 쓰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굴피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키가 큰 나무여서 수꽃과 암꽃을 관찰하긴 힘들지만 9월에 익은 솔방울 모양의 열매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수꽃과 암꽃이 가지 끝에 선다.
잎	어긋나고 깃꼴겹잎이다.
열매	솔방울을 닮은 타원형 열매
특징	산기슭이나 바닷가에 흔히 자생

나도물통이(*Nanocnide japonic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신비한 폭죽 터뜨리기

나도물통이는 꽃이 매우 작아 우리들의 시선을 잡지 못해요~
하지만 나도물통이는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술이 바깥쪽으로 용수철처럼 튕기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점이에요!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물통이는 움켜진 주먹처럼 꽃망울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듯 터지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꽃 긴 꽃대 끝에 수꽃이 핀다.

잎 넓은 달걀형, 잎 끝은 둔하다.

열매 타원형의 열매는 꽃잎에 싸인다.

특징 수술은 바깥쪽으로 퉁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나도물통이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꽃이 작기 때문에 꽃인지 그냥 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가까이 봐야 한답니다.

개별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땅에서 피어난 별!

별꽃, 참 예쁘죠? 이름만 들어도 별처럼 생겼을 것 같다고요?
맞아요~ 별꽃은 꽃이 별모양을 닮아서 별꽃이에요!
별꽃은 들에 나가면 쉽게 눈에 띄지만,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직 별꽃을 못 본 친구가 있다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눈여겨보지 않아서 못 본 걸 거예요.



꽃 1개의 꽃이 위를 향해 핀다.

잎 끝이 뾰족한 타원형 잎

열매 달걀형의 열매

특징 4 장의 잎이 십자 모양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별꽃은 매우 흔한 야생화에요~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특히 원적골자연관찰로에는 개별꽃뿐만 아니라 쇠별꽃 등 다양한 별꽃들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개구리발톱(*Semiaquilegia adoxoides*)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개구리 발가락을 닮은 꽃

식물이름도 동물이나 그 모습을 보고 짓는 일이 많습니다. 개구리발톱도 이름에서 보 듯 씨방이 개구리발톱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개구리에게는 발톱이 없어요!
개구리 발 등 사이에 발톱 같은 것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뼈로 봅니다.
예전에 개구리발톱의 이름을 지을 때 개구리에게 보였던 뼈가 발톱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개구리발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구리발톱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흰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꽃의 안을 관찰하긴 어렵지만 왜 개구리발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생각하며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꽃

줄기 끝,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1개 또는 몇 개의 꽃줄기 끝에 흰색, 연한 분홍색 꽃이 1개씩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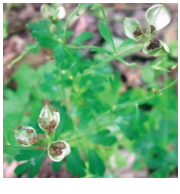
잎

잎은 뿌리 잎과 비슷하지만 작다.
줄기 잎은 뿌리 잎과 비슷하지만 작다.



열매

꼬투리열매는 3개가 별 모양으로 달린다.
열매가 개구리가 발가락을 편 모양이라 이름 지어졌다.



만주바람꽃(*Isopyrum mandshuricum*)

• *개화시기 : 4~5 월*

story 만주지역에서 자란 만주바람꽃

만주바람꽃은 만주지역에서 자라 만주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추운 곳에만 사는 북방계 식물인데도 내장산에서 살고 있답니다. 바람꽃 중에서도 크기가 작고 너무 가련해서 만져 보기조차 매우 어려운 꽃입니다.



꽃	누른빛이 도는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잎	뿌리잎은 둥그스름한 오각형
열매	열매는 둥글고 털이 있다.
특징	만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만주바람꽃은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숲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또한 내장산국립공원 특정식물이기에 우리가 보호해야할 식물이기도 합니다.

변산바람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개화시기 : 3 월*

story 변산에서 처음 발견된 변산바람꽃

바람꽃은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는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종류가 약 20 여 가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른 봄에 피는 바람꽃의 종류는 개화 순서에 따라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 나도바람꽃 등으로 나열 할 수 있어요.
변산바람꽃은 바람꽃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야말로 봄기운의 끼새만 있으면 꽃을 피운다고 할 수 있어요.



꽃	포 가운데에서 나온 꽃자루 끝에 핀다.
잎	둥그스름한 오각형
열매	열매는 대과, 종자는 둥글고 갈색
특징	우리나라 특산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변산바람꽃은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탐방로 옆으로 개화하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꽃이 예쁘다고 꺾어 가면 안되요! 변산바람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랍니다.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 *개화시기 : 3~4 월*



stoRy 새롭게 봄을 시작하는 봄의 선물

너도바람꽃은 '새롭게 시작되는 봄의 선물'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너도바람꽃의 학명 중에 Eranthis 라는 라틴어는 봄꽃이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야생화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에게 먹이 감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지혜가 담겨있어요!
너도바람꽃은 꽃대를 아낌없이 한 개만 올리고 하나의 예쁜 눈꽃송이를 펼쳐 보여주는 야생화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너도바람꽃은 숲 속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탐방로 근처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산답니다.
너도바람꽃은 사진으로 관찰해야 해요 ^^

꽃

꽃은 자줏빛으로 끝이 3갈래 갈라지고 항아리 모양을 하며 잎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을 보고 쌓여 있는 낙엽을 들어내면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잎

잎은 폭이 5~10㎝이고 줄기 끝에서 2장이 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잔털이 많으며 줄기는 자줏빛을 띱니다.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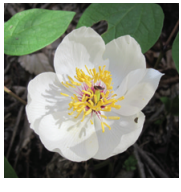
관찰해열매는 골돌과로 6월에 성숙하며 2~3개로 반달 모양이다.
종자는 갈색이고 둥글며 밋밋한 편이다.



백작약(*Paeonia japonica*)

• *개화시기 : 5~6 월*





꽃

5~7장의 흰색의 꽃송이가 약간 끝을 오므려 마치 작은 항아리를 만들 듯 붙어 있고 그 속에는 노란 수술이 아름답게 안겨 있습니다.



잎

잎은 길이 5~12㎝, 폭 3~7㎝로 앞면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흰빛이 돌며 3~4 개가 어긋나게 달리고 긴 타원형입니다.



열매

꽃이 모두 지고 나면 열매만이 남아 있는데 예뻤던 꽃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열매의 모습은 볼품없습니다.

stoRy 깊은 숲 속에서 만나는 꽃, 백작약

꽃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선 꽃이라는 것이 인공으로는 도저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고 싶어도 쉽사리 보기 어려워지면 더욱 간절함이 쌓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백작약도 그런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늦은 봄 깊고 깊은 숲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백작약!
인적이 거의 없는 깊은 산골짜기, 길이라도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득 조우하는 백작약!
많은 풀들이 모여 사는 숲에서 고만고만한 키에 쑥 하니 꽃대를 올려 탐스럽게 핀 백작약의 모습을 볼 때 적어도 그 순간에 느끼는 감동만큼은 그 어떤 식물의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작약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내장산국립공원의 특정식물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관찰해야 한답니다.^^

큰괭이밥(*Oxalis obtriangulata*)

• *개화시기 : 4~5 월*



story 괭이밥 중 제일 큰, 큰괭이밥

큰괭이밥은 비늘로 싸인 뿌리줄기로 번식하며, 잎은 뿌리에서 나와요~ 잎자루 끝에서 셋으로 나뉘는 3출엽의 잎은 하트 모양이거나 삼각형 모양인데, 꽃이 진 후에도 잎이 계속 크게 자라 초록색 나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토끼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크고 잎 가장자리가 밋밋한 것이 달라요~
큰괭이밥은 생으로 먹을 수도 잇고 봉선화로 손톱을 물들일 때 백반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잎을 찧어 옴이나 독충에 쏘였을 때 바르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괭이밥에 솔잎과 대추를 넣어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괭이밥은 금선계곡에서 만날 수 있어요!
탐방로 옆으로 흰 색의 꽃을 피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꽃

꽃줄기 끝에 흰색 꽃 한 송이가 옆을 향해 피며 해가 지면 꽃잎이 오므라든다.
꽃 밑에 포가 있으며, 5 갈래로 갈라지는 꽃받침에는 털이 있다.



잎

뿌리 잎은 3출엽으로 잎자루가 길다.
작은 잎은 거구로 된 삼각형 모양이다.



열매

달걀형의 열매는 길이가 2cm이며 7~8 월에 익는다.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 *개화시기 : 5~6 월*

story 단풍처럼 곱고, 나리처럼 예쁜 꽃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바위틈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돌단풍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봄이면 잎이 붙어 있진 않은 꽃대에서 작고 하얀 꽃들을 무리 지어 피우고, 가을엔 붉게 물든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단풍잎과 비슷해서 '돌단풍', 꽃이 나리꽃처럼 예뻐서 '돌나리' 지만 단풍이나 나리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꽃	고깔 모양의 꽃송이
잎	손바닥 모양의 잎
열매	달걀모양의 열매
특징	잎의 모양이 단풍잎과 비슷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돌단풍은 금선계곡과 입암지킴터~장성새재 구간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계곡 근처나 바위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관찰하기 좋은 장소에서 서식하진 않아요!

산자고(*Tulipa edulis*)

• *개화시기 : 4 월*

story 산속의 자애로운 시어머니

산자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창을 치료해 준 '산에 자라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며느리는 늘 피해자의 입장을 묘사해서 식물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산자고는 이름의 유래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크나 큰 사랑을 듬뿍 받아도 손색이 없는 식물입니다.



꽃	흰 꽃이 1 개씩 위를 향한다.
잎	2 개의 뿌리 잎은 선형
열매	세모진 둥근 열매
특징	꽃잎 바깥쪽에는 자주색 줄무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자고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산자고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숲의 지혜, 국수나무

국수나무는 줄기를 잘라, 나무속을 밀어 보면 국수가락처럼 하얗게 나온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 국수나무는 속이 텅 빈 하얀 국수발 속을 가진 덕분에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숲 속에서 키 큰 나무와 높이 경쟁하기 보다는 해가 잘 드는 곳으로 유연한 가지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혹시나 가지가 땅에 닿으면 뿌리를 내리며 적응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국수나무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아 가까이 다가가야 그 모양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탐방로 옆에 있으니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꽃	누른빛이 도는 흰색 꽃
잎	어긋나고 세모진 넓은 달걀형
열매	둥근 열매는 겉에 털이 있다.
특징	가지를 자르면 흰 국수가락처럼 나온다.

찔레꽃(*Rosa multiflora*)

• *개화시기 : 5 월*



stoRy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다.

찔레는 줄기에 가시가 많아서 잘 찌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목장에 둘러치는 철선이 바로 소나 양이 찔레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찔레가 덤불을 이룬 숲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지만 작은 새들한테는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열매까지 달린 찔레덤불에서는 많은 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찔레꽃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향기가 매우 좋은 나무여서 가까이 가면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시가 많고 주위에 벌도 많답니다.

꽃	흰색, 연한 홍색 꽃이 피며 향이 좋다.
잎	어긋나고 깃골겹잎
열매	콩알만한 열매로 붉은색
특징	줄기에 가시가 많다.

산벗나무(*Prunus sargentii*)

• *개화시기 : 4~5 월*

stoRy 산에 사는 벚나무, 산벚나무

산벚나무는 산에 사는 벚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벚나무 중에는 첫째, 전국적으로 흩어져 자라는 꽃과 잎이 함께 피는 벚나무를 비롯하여 둘째, 지리산 등에서 자라는 것으로 꽃이 가장 일찍 피는 올벚나무, 셋째 한라산 등에 자라며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한국의 대표적인 벚나무인 왕벚나무, 넷째 울릉도에 자라며 꽃빛깔이 유난히 연 흰색의 '섬벚나무' 등이 있어요!



꽃 연한 홍색~흰색 꽃이 핀다.

잎 긴 달걀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열매 둥근 열매는 검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씨방이 없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벚나무는 봄에 내장산의 어느 장소에서든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내장산에 오는 도로 가에 있는 산벚나무와 서래봉의 산벚나무는 경관을 감상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아까시나무

5월의 밤공기를 향긋하게 만드는 친구가 아까시나무에요~ 깊어가는 밤, 어디선가 불어오는 꿀 향기에 취하죠!

아까시나무는 헐벗은 우리의 산을 푸르게 만들었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으며, 우리에게 꿀과 풋거름과 땔감과 가축의 먹이까지 주는 친구예요~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친구죠!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불러요^^



꽃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잎 어긋나고 깃꼴겹잎

열매 기다란 꼬투리 열매

특징 향기가 매우 강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아까시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나무"라 부르는 나무가 바로 아까시나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향이 좋으니 관찰하면서 꽃의 향기도 같이 맡아 보세요!

고추나무(*Staphylea bumald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고추는 안 열려요~

꽃에서 혹시 고추 냄새가 날거라고 생각하면 틀리답니다.
놀랍게도 아주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산에서 꽃을 구경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고추나무의 꽃이 내려다보고 있곤 해요~
대개의 나무가 그러는 것처럼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고추나무는 잎이나 가지에서도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추나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고추나무의 잎은 고춧잎을 닮아 고추나무라는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고추나무의 꽃을 관찰해 보세요~ 마치 별과 닮은 모습이에요!

꽃	가지 끝에 자잘한 꽃이 핀다.
잎	마주나고 3출엽이다.
열매	부풀은 반원형 열매
특징	잎은 고춧잎을 닮았다.

박쥐나무(*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박쥐를 닮은 나무, 박쥐나무

누구라도 박쥐나무의 잎만 보면 박쥐를 닮았다고 생각을 할 거에요~ 박쥐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에요! 크게 자라면 3m 남짓 자란다고 하는데 줄기가 여러 개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 크게 자라지 않는답니다. 박쥐나무가 자라는 곳을 보면 햇빛이 잘 드는 양지 곧 보다는 키가 큰 다른 나무의 그늘 아래서 햇볕을 받으며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쥐나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특이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박쥐나무의 꽃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꽃	꽃잎이 용수철처럼 뒤로 말린다.
잎	어긋나고 잎몸은 얕게 갈라진다.
열매	둥근 달걀형
특징	잎이 박쥐의 날개를 닮았다.

산딸나무(Cornus kousa)

• 개화시기 : 5~6월

story 딸기 모양의 열매를 여는 산딸나무

산 속의 커다란 나무에 딸기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걸 본 적 있나요? 이름하여 산딸나무라고 해요! 산에 살면서 딸기 모양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기다란 꽃대 위에 달리는 산딸나무의 꽃은 네 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꽃잎이 아니라 '총포조각'이라고 해요!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넉 장의 식탁보'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꽃 가지 끝에 꽃이 핀다.

잎 마주나며 달걀형~타원형이다.

열매 딸기 모양의 열매

특징 흰색 총포조각이 꽃잎처럼 보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딸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꽃잎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꽃은 총포조각 안에 있는 녹색의 둥근 모양이 꽃이랍니다.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 개화시기 : 5월

story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 층층나무

층층나무는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 중 하나 임이 밝혀지면서 매우 유명세를 톡톡히 치룬 나무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지를 층층이 넓게 펴서 그늘을 지우므로 낮은 키의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해서 미움을 사기도 하는 나무랍니다.



꽃 납작한 모양이고 자잘한 꽃이 핀다.

잎 어긋나며 넓은 달걀형~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꽃이 나무에 층을 이루며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층층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자연사랑길 계곡 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층을 이루며 꽃이 필까요?

곰의말채(*Cornus macrophylla*)

• *개화시기 : 6~7월*



story 말의 채찍으로 쓰인 나무

곰의말채는 말채나무와 같이 어린 가지를 이용하여 말의 채찍으로 쓰여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말채나무와의 구별은 잎의 측맥으로 구별합니다.
하얀꽃을 피우는 곰의말채는 수형도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가지 사이로 다이아몬드형의 황백색의 화관을 하고 자잘하게 피어 있는 곰의말채는 한자로는 "양자목"이라고 하여 혈을 안정시키고, 타박상과 뼈가 부러지는 곳에 한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곰의말채는 층층나무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관찰하기 쉬운 곳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이 만나는 다리 옆에 곰의말채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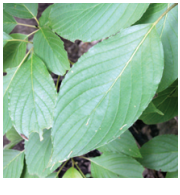
꽃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모여 핀다.
꽃대는 길이 3~4cm, 꽃잎은 넓은 피침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



잎

마주나며 타원형~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길게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잎 뒷면은 흰빛이 돌며 털이 많다.



열매

열매는 둥글고 푸른빛이 도는 검은 색으로 익는다.



때죽나무(*Styrax japo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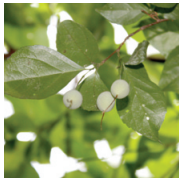
• *개화시기 : 5~6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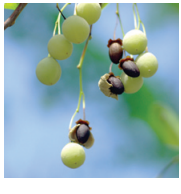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꽃차례에 종 모양의 흰색 꽃이 2~6 개씩 매달린다.



잎

어긋나며 달걀형~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치아 모양의 톱니가 약간 있거나 없다.



열매

타원형 열매는 연녹색을 띠며 익으면 겁질이 불규칙하게 갈라진다.

stoRy 때를 빼주는, 때 많은 나무

때죽나무는 옛날에 열매를 짓찧어 푼 물에 빨래를 해서 기름때를 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라고 해요!
나무껍질이 검은빛이어서 '때가 많은 껍질의 나무'라는 뜻으로 때죽나무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5 월이 되면 종 모양의 흰 꽃이 아래를 보고 일제히 피어나요!
한두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무척이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요~
꽃에서는 금방이라도 마취될 것만 같은 향기가 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때죽나무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주렁주렁 꽃이 매달려 있는 모습도 꽃이 계곡에 장관을 이룬답니다.

덜꿩나무(*Viburnum erosum*)

• *개화시기 : 5 월*



story 들꿩이 좋아하는 나무

달력으로는 아직 봄이지만 체감으로 여름이 느껴지는 이때 산 속에서 시원하게 피어나는 하얀 꽃들이 있는데 바로 덜꿩나무에요.
왜 덜꿩나무가 되었을까? 이 나무처럼 가깝게 있는 나무이면서도 목재로 사용할 만큼 굵게 자라지도 않고 특별한 쓰임새로 보편화 되지도 않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하듯이 뭐 특별히 이 나무에 대한 기록이나 이야기가 없어 알 수 는 없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꿩나무에서 덜꿩나무로 변한 것이 아닐까?"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산에서 살고 있는 들꿩들이 잘 먹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덜꿩나무는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덜꿩나무는 산가막살나무와 매우 비슷해서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덜꿩나무를 찾아 산가막살나무와 비교해 보세요!

꽃

짧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피는데 꽃받침에 별 모양의 털이 있다.



잎

마주나고 달걀형~거꾸로 된 달걀형이며 가장 자리에 뾰족한 치아 모양의 톱니가 있다.
별 모양의 털이 앞면에는 드문드문 있고 뒷면에는 촘촘히 난다.
턱잎이 있다.



열매

열매는 달걀형의 원형, 붉은색으로 익으며 종자는 양쪽에 홈이 있고 9 월 중순~10 월 초에 성숙한다.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이름 좀 바꿔주면 안될까요?

쥐똥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쥐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제가 쥐똥나무라면 이 이름에 대해 무척 억울해할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쥐의 똥이냐고요~ 차라리 북한에서처럼 '검정알나무'라고 하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밭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심는 나무라고 하여 '자나무'라고도 했답니다. 셋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정알나무가 제일 좋겠어요!



꽃 가지 끝의 흰색 꽃이 핀다.

잎 마주나고 긴 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타원형 열매

특징 열매의 모양이 쥐똥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쥐똥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하얀 꽃이 자잘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예쁩니다. 특히 열매를 관찰해보세요~

정말 쥐똥을 닮았을까요?

매실나무(*Cornus controversa*)

• *개화시기 : 2~4 월*

stoRy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꽃을 말할 때는 '매화나무', 열매를 말할 때는 '매실나무'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매'라는 말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알리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아기를 가진 여자는 속이 곧잘 느글느글해서 신맛이 나는 과일을 찾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매실이랍니다.

그러니 매실을 찾게 되면 임신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에요^^



꽃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달걀형~넓은 달걀형

열매 둥근열매는 황색으로 익는다.

특징 매실나무는 중국의 나라꽃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매실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 원적골자연관찰로 초입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매실나무의 꽃이 너무 예뻐서 다른 지방에서는 축제도 한답니다. 하지만 내장산의 매실나무도 그에 못지않게 예쁘답니다.

석창포(*Acorus gramineus*)

• *개화시기 : 5~7 월*



story 든 나무와 풀의 덕성을 갖춘 식물

석창포는 모든 나무와 풀의 덕성을 고루 갖춘 식물이라 하여 문방오우로 대접하여 선비의 서가에 높이 올려 동거동락 하였던 식물이에요~ 시대가 변하여 화려한 외국 꽃에만 관심이 쏠려 우리선비들이 즐겼던 석창포의 멋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석창포는 생명력이 강하고 향기가 좋으며 그늘에서 자라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탁월한 식물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석창포는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석창포를 만나면 꽃인지 풀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지만 석창포라는 것을 알고 관찰한다면 매우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꽃	연 노란색 꽃이 빽빽이 핀다.
잎	선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열매	녹색의 원형
특징	내장산국립공원 특산식물

천남성(*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장희빈의 사약이 된 천남성

천남성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은 '첫~남성'이라고 듣고서는 묘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범상치 않아요~ 성질이 극양에 가까워 하늘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남쪽 별에 빗대어 이름을 정했다는 설이 있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풀이에요!
수정조차도 많은 죽음의 제물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잔혹한 천남성은 숙종이 장희빈에게 준 사약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천남성은 깊은 산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내장산에는 천남성과 큰천남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꽃	줄기 끝에 꽃이 핀다.
잎	긴 잎자루에 작은 잎이 붙는다.
열매	옥수수 이삭 모양
특징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삿갓나물(*Paris verticillata*)

• *개화시기 : 5~6 월*



stoRy 항암작용에 뛰어난 삿갓나물

삿갓나물은 항암작용에 좋은 식물이에요~ 중국에서는 뇌종양, 비인암, 식도암, 피부 지방종양 등에 삿갓나물을 주재로 한 약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삿갓나물 속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갖가지 암과 병원균 및 각종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해요!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의 식물로서 관찰해 주세요^^

꽃	꽃자루 끝에 노란색 꽃
잎	타원형 잎
열매	흑자색의 둥근 열매
특징	독성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삿갓나물은 금선계곡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원적골자연관찰로는 계곡을 건너야 관찰할 수 있지만 금선계곡은 탐방로 옆에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둥글레(*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저 깔끔한 풀이름이 뭘까?

둥글레는 희면서 연둣빛이 살짝 도는 종 모양 꽃이 피어요!
약간 흰 줄기에 한 면으로 쏠리듯 붙은 잎은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요~
"저렇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풀이름은 뭘까?" 하지만 이름을 알고 보면 잎이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붙어서 둥글레라고 지어졌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꽃	백록색 꽃이 1~2 개씩 핀다.
잎	어긋나는 긴 타원형
열매	콩알만한 둥근 열매
특징	어린잎과 뿌리줄기는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둥글레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녹색을 띠고 있어서 쉽게 꽃인지 열매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둥글레의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보춘화(*Cymbidium goeringii*)

• *개화시기 : 3~4 월*

story 춘란이라는 이름의 보춘화

이름에서부터 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로부터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봄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난초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춘화는 적당한 향기가 있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꽃을 피우는 강인함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춘화의 꽃말을 '소박한 마음'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꽃	연한 황록색 꽃
잎	뿌리에서 모여 나는 선형 잎
열매	열매는 곧게 선다.
특징	춘란이라고 부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보춘화는 흔히 춘란이라고 부르는데 난초과 중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소나무 군락지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내장산의 정규 탐방로에서는 관찰하기 힘듭니다.

화살나무(*Euonymus alatus*)

• *개화시기 : 5 월*



story 나 크지? 힘 쎄지?

화살나무는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나뭇가지 옆으로 딱딱하고 얇은 껍질이 붙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마치 화살에 붙은 날개처럼 말이죠!
나무가 자기 몸을 지키려고 곁가지를 잔뜩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화살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회잎나무와 거의 비슷한데 가지에 있는 날개가 없는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어요~
화살나무를 관찰하며 회잎나무 또한 관찰해 보세요~

꽃	황록색 꽃이 2~3 개 핀다.
잎	마주나며 타원형
열매	타원형 열매,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가지에 2~4 줄의 날개가 있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 *개화시기 : 4 월*



꽃



암수딴그루로 연노란색 수꽃은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암꽃은 어린 가지 밑 부분에 달린다.

잎



선형 잎은 깃털처럼 가지에 2줄로 마주나고 가죽질이며 단단하고 끝이 날카롭다. 잎의 주맥은 뒷면에서만 도드라진다.

열매



열매는 대가 없고 거굴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육질의 종의로 싸여 있는 핵과이다.

stoRy 쓰임새가 좋았던 비자나무

비자나무의 열매 속의 씨를 비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 이용했어요~
또 씨로 짠 기름은 먹기도 하고 머릿기름이나 등잔불 기름으로도 쓰였답니다.
비자나무 목재는 결이 곱고 가공이 쉬워 가구를 만들거나 조각을 하는 데 이용되는 귀한 목재였어요!
비자나무 가지를 꺾으면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잎이 달린 가지를 잘라 태워 그 연기로 모기를 쫓기도 하였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비자나무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군락지로 관찰할 수 있어요!
약 3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비자나무는 그동안의 세월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답니다.
비자나무 군락지에서 삼림욕체험을 해보세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 *개화시기 : 3~4 월*



story 피톤치드 이야기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란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내뿜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에요~
산 속에 들어가면 숲의 향기가 감돌아 상쾌한 숲 내음을 맡을 수가 있는데 이 향기의 성분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숲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도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피톤치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일반나무에 비해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발산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삼나무는 편백나무와 함께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 곳에서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삼림욕 체험하기 아주 좋답니다.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꽃	타원형의 수꽃은 연노란색
잎	차츰 가늘어져 끝이 날카롭다.
열매	둥근 솔방울 열매
특징	짧은 비늘 모양의 잎

참회나무(*Euonymus oxyphyllu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참회나무의 결실

참회나무의 꽃은 가슴 깊이 곱게 가두어 두었던 그리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터트리는 아픔을 두 번이나 겪는 꽃입니다.
5월 숲 속 초록 그늘에서 연록색 꽃봉오리를 터트리며 연록색 꽃 잎 5장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하게 탄생합니다.
참회나무의 꽃은 그렇게 다소곳이 쑥스럽게 피어난 나무 꽃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회나무는 전망대로 오르는 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크기가 작아 지나칠지도 모르니 주의를 집중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꽃	꽃잎은 5장이다.
잎	마주나고 달걀형이다.
열매	둥근 열매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열매가 갈라지면 씨가 드러난다.

내장산의 여름

붉은색

고마리	가시여뀌
노루오줌	자주꿩의다리
큰도둑놈의갈고리	물봉선
이질풀	익모초
꽃며느리밥풀	엉겅퀴
영아자	뻐꾹나리
닭의장풀	하늘말나리
일월비비추	무릇
참나리	박주가리
백양꽃	자귀나무
산수국	작살나무
배롱나무	칡
멍석딸기	

노란색

눈괴불주머니	뱀무
짚신나물	원추리
노랑어리연꽃	진노랑상사화
꾸지뽕나무	산초나무
붉나무	까마귀베개
개오동	

흰색

흰진범	큰까치수영
파리풀	멸가치
천마	등골나물
백운란	대흥란
사위질빵	나도밤나무
장구밥나무	계요등

녹색

개모시풀	거북꼬리
댕댕이덩굴	담쟁이덩굴
사람주나무	조릿대



갈퀴나물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 개화시기 : 8~10 월



story 고마리꽃의 유래

이름부터 좀 신기하지만 생긴 모습 역시 다른 꽃과는 완연히 다르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생긴 꽃이에요!
고마리 꽃이 서식하는 곳이 물가나 늪지 혹은 하수도 부근 같은 곳에서 서식하다보니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오염되고 썩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 시켜주는 역학을 한다고 생각하여 고마우이, 혹은 고맙다 라고 하다가 고마리가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마리는 계곡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붉은색의 꽃과 흰색이 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꽃	붉은꽃과 흰꽃이 모여 핀다.
잎	잎자루가 있으나 윗부분은 없다.
열매	세모진 달걀모양
특징	계곡과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가시여뀌 (Persicaria dissitiflora)

• 개화시기 : 8~9 월



story 가시모양을 가진 가시여뀌

여뀌도 가문이 꽤나 복잡해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만 해요 가시여뀌, 이삭여뀌, 흰꽃여뀌, 개여뀌 등이에요!
그 중 가시여뀌는 좀 특이한 모습이에요! 온 몸이 털복숭이이거든요~ 가시여뀌의 꽃말은 '학업의 마침' 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나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가시여뀌는 삼청공원과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 보면 마치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만지면 아플 것 같지만 사실 가시가 아닌 털이랍니다.
만져도 아프지 않으니 관찰하며 촉감도 느껴보세요.

꽃	연한 홍색 꽃
잎	피침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열매	세모지며 흰색이다.
특징	줄기에 털이 빽빽이 있다.

노루오줌(*Astibe chinensis var. davidii*)

• *개화시기 : 3~4 월*



stoRy 노루의 오줌냄새가 나는 풀

노루오줌은...
노루가 물을 마시러 옹달샘에 왔다가 오줌을 자주 싸고 가서 뿌리에서 노루오줌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한여름에 숲속 그늘진 곳에서 고운 분홍빛의 꽃 이삭을 곧추 세우고 벌과 나비를 유혹한답니다.
여름에 숲에서 피는 꽃들은 짙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하얀 색으로 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노루오줌은 분홍빛으로 자잘한 꽃들이 뭉쳐서 피어나 색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꽃	홍자색이 많은 꽃이 핀다.
잎	달걀꼴의 긴 타원모양
열매	삭과로 열린다.
특징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루오줌은 삼청공원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루오줌이 많은 개체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꿩의다리(*Thalictrum uchiyamai*)

• *개화시기 : 6~7 월*

stoRy 고고한 자주꿩의다리

자주꿩의다리의 다른 이름은 "자주가락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주꿩의다리의 꽃말은 "순간의 행복", "지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생육환경은 물기가 많은 돌 틈이나 반그늘인 곳의 유기질 함량이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꽃	흰빛이 도는 자주색 꽃
잎	심장꼴의 달걀모양
열매	반거꿀달걀모양
특징	우리나라 특산종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주꿩의다리는 자연사랑길과 금선계곡,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우리들이 보호해야할 식물 중 하나입니다.

큰도둑놈의갈고리(*Desmodium oldhami*)

• *개화시기 : 8~9 월*



story 이름이 왜 도둑놈의갈고리일까?

이름이 왜 '도둑놈의갈고리' 일까?
이름도 참 희안하지요?
꽃이 진 후에 선그라스 닮은 씨방이 생겼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그 끝을 보면 살짝 휘어진 갈고리가 생겨서 지나가는 누군가의 옷깃을 끌어당긴답니다.
굳이 설명을 하려면 후손을 멀리 보내 퍼뜨리려고 하는 식물의 본능입니다.
도둑처럼 몰래 자신의 씨앗을 다른 생명체에 붙이는 특성을 보고 이름을 도둑놈의갈고리라고 지었나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도둑놈의갈고리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열매에 털이 있어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는 특징이 있어요~ 길을 걸으며 여러분의 옷에 큰도둑놈의갈고리를 옷에 붙여보세요~

꽃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줄기에 송이꽃차례를 이루고 연한 홍색 꽃이 모여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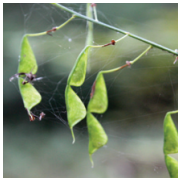
잎

어긋나게 붙으며 잎자루가 길고 홀수 1회 깃모양겹잎으로 작은 잎은 5~7 개이며 달걀모양, 긴 타원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열매

열매는 꼬투리열매이고 2 개의 마디가 밑으로 처지고, 갈고리 모양의 털이 퍼져나며, 마디 조각은 반달형이다.



이질풀(*Geranium thunbergii*)

• *개화시기 : 8~9월*

stoRy *쥐의 앞발을 닮은 이질풀*

이질풀은 쥐손이풀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그 이름이 재미 있어요~ 그 잎의 모양이 쥐의 앞발을 닮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크기야 쥐의 앞발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지만 그 모양은 아닌게 아니라 닮아 있어요~



꽃	연한 홍색, 홍자색으로 핀다.
잎	마주 붙고 손바닥 모양
열매	삭과로 5개로 갈라진다.
특징	밝을 때 꽃을 활짝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이질풀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분홍색과 흰색의 꽃을 피우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어두울 때는 꽃봉오리를 열지 않고 밝을 때 꽃봉오리를 활짝 피는 특성이 있어요!

물봉선(*Impatiens textori*)

• *개화시기 : 8~9월*

stoRy *물봉선도 꽃물이 들까?*

물봉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물을 아주 좋아해요~ 주로 산골짜기나 산자락 물이 흐르는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데, '야봉선' 혹은 '물봉숭아'라 하기도 해요!
물봉선 꽃말도 봉숭아처럼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예요! 만지면 톡 터져 버리는 열매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참! 물봉선은 꽃물이 들지 않아요^^



꽃	송이모양의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피침모양
열매	삭과로 피침영
특징	물가에 피는 봉선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물봉선은 계곡 근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선화가 물을 좋아하면 물봉선이에요!
물에 사는 봉선화~ 궁금하지 않나요??

꽃며느리밥풀(*Melampyrum roseum*)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스피톤치드 이야기

아들을 장가보낸 홀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식을 빼앗긴 마음이 분해 아들을 멀리 일 보내 놓고 며느리에게는 종일 일만 시키고 구박하는데다가 밥까지 굶겼다고 합니다. 참고 참으며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하루는 저녁밥을 짓다가 뜸이 잘 들었나하여 솥뚜껑을 열고 몇 알 떠서 맛을 보는데 그만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어른이 맛보기 전에 먼저 밥을 퍼 먹는다고 부지깽이로 때려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죽은 며느리가 묻힌 무덤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꽃며느리밥풀'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꽃며느리밥풀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로 옆으로 홍색의 꽃을 피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꽃	홍색의 꽃을 피운다.
잎	마주 달리고 좁은 달걀모양
열매	달걀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다.
특징	가장자리에 가시모양이 있다.

익모초(*Leonurus sibiricu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산모에게 유익한 풀

익모초는 '이로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라는 꽃말을 가진 야생화입니다. 익모초는 꽃보다는 약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여자들에게 특히 좋다고 해요 ~
시골에선 흔하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약초랍니다.
하지만 야생화로서 분홍빛 꽃이 아주 예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익모초는 매우 흔한 야생화입니다.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돌림꽃으로 피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꽃	홍자색, 입술모양의 꽃
잎	달걀꼴의 둥근 모양
열매	넓은 달걀모양
특징	산모에게 특효약이라는 뜻을 가진다.

영아자(*Phyteuma japonicum*)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우리 곁의 야생화, 영아자!
안녕~ 나는 영아자라고 해!
나는 산골짜기 낮은 지대에서 자란단다. 나는 자주색 꽃을 피우고 꽃잎은 깊게 5 개로 갈라져서 나지~ 수술은 5 개이고, 수술대에도 털이 있으며 암술은 1 개가 있단다~



꽃	자주색 꽃이 송이모양이다.
잎	어긋나고 긴 달걀모양
열매	납작한 공 모양
특징	어린 잎은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영아자는 자연사랑길,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가끔 자주색 꽃이 아닌 흰색의 영아자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엉겅퀴(*Cirsium japonicum*)

• *개화시기 : 6~8 월*

stoRy 엉겅퀴에 얽힌 전설
젖소를 길러 우유를 짜서 장터에 팔러 다니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장터로 가는 소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소녀의 머리속은 우유를 팔아서 무엇을 살까? 하는 즐거운 생각뿐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오솔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바람을 탄 엉겅퀴가시가 소녀의 종아리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는 넘어져 길가에 있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어요. 소녀는 죽어서 자기가 기르던 젖소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른 길가의 엉겅퀴를 자기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고 모두 뜯어 먹으면서 돌아다녔대요.



꽃	자주색 꽃이 머리 모양이다.
잎	좁은 타원형 모양
열매	수과로 길이가 3.5~4cm 정도
특징	꽃은 전부 관상화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엉겅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의 모양이 독특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가시 같이 생긴 것이 모두 꽃이에요~

백양꽃(*Lycoris sanguinea var. koreana*)

• *개화시기 : 8~9 월*





stoRy 우리나라의 토종 상사화, 백양꽃

백양꽃은 수선화과의 우리나라 토종 상사화에요~
우리나라의 백양사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식물학계에 보고되었기에 이름을 백양꽃이라고 지었답니다.
상사화속의 꽃은 우리나라에 8종이 있는데 백양꽃, 꽃무릇, 진노랑상사화, 상사화, 위도상사화, 제주상사화, 흰상사화, 붉노랑상사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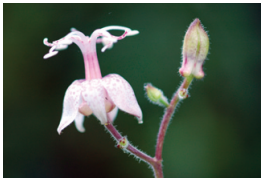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양꽃은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백양꽃은 다른 상사화들과 함께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백양꽃을 관찰하며 다른 상사화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꽃	줄기 끝에 붉은 벽돌색 꽃
잎	엄지잎줄은 흰빛이 돈다.
열매	삭과로 둥근 열매
특징	맨처음 백양산에서 발견되었다.

뻐꾹나리(*Tricyrtis dilatata*)

• *개화시기 : 7~9월*



꽃

7월에 줄기 끝과 가지 끝에 연자주색꽃이 위를 향해 핍니다.
6개의 꽃잎은 뒤로 젖혀지며 겉에 자주색 반점이 있어요.



잎

잎은 어긋나고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의 타원형입니다.
잎 아래부분은 원줄기를 감싸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털이 있어요.



열매

열매는 삭과로 바소꼴이고 길이는 약 2cm 정도이며 종자는 편평한 타원형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연자봉과 신선봉 사이의 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산행으로 인해 몸이 힘들지만 뻐꾹나리를 발견한다면 이내 모든 피로가 풀릴거에요 ^^
뻐국나리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특정식물이랍니다.

stoRy 자주색 보석이 알알이 아주 특별한 꽃 '뻐꾹나리'

뻐꾹나리.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모습이 더욱 신기하답니다. 어떤 이는 꼴뚜기 모양이라 하고 어떤 이는 뻐꾸기시계처럼 튀어나오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꽃은 자주색 반점들이 가득히 귀엽고도 개성있게 박혀 있어요. 그 사이에 다시 여섯 개의 수술과 가운데에 불쑥 올라와 갈라진 암술의 모양이 꽃의 핵심이 된답니다.

닭의장풀(*Commelina communi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독 아래로 숨은 꽃잎을 가진 닭의장풀

닭의장풀은 '달개비' 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길가나 빈 터 그리고 산자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풀은 닭장 주변에서도 잘 자라고, 꽃 모양이 닭의 볏을 닮았다고 닭의장풀이라고 해요~ 닭 볏을 닮았다는 꽃잎은 마치 파란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꽃잎으로 비단 염색을 했다고 하니, 그 비단이 얼마나 고왔을지 짐작이 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닭의장풀은 모든 탐방로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너무 흔해서 발에 밟힐 정도랍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닭의 장풀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하늘색 꽃이 심장모양이다.
잎	어긋나고 달걀꼴의 피침 모양
열매	타원형 모양
특징	닭장 밑에 자란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꽃이라 부를까? 새라 부를까?

줄기에 묶여 달려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있으니 바로 비비추입니다. 새의 창공을 날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꽃의 화려함에서 측은이 느껴져요~ 긴 혀를 있는 대로 벌려 지저귀며 금방이라도 하늘로 박차고 나갈 그 기세가 처음 보는 이도 그리 느껴지지요~ 비비추의 생생한 생동감의 아름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듭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비비추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자주색 꽃이 푸르르 식물들 사이로 매우 아름다워요~
꽃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	연한 자주색 꽃이 핀다.
잎	달걀꼴의 심장모양
열매	긴 타원형 모양
특징	꽃은 한 쪽으로 치우쳐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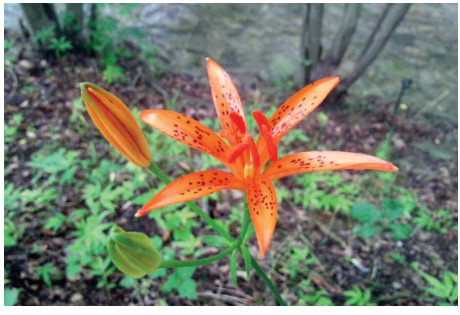
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 *개화시기 : 7~8 월*

story 하늘을 향하는 꽃, 하늘말나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인 하늘말나리입니다. 말나리처럼 잎이 돌려나면서 꽃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하늘말나리라고 부르며, 우산말나리라고도 부른답니다.

산기슭이나 낙엽수림 주변에서 살며 높이가 1m 쯤 자라구요. 잎은 줄기 가운데서는 5-10 개씩 돌려나며, 끝이 뾰족하고 긴 타원 모양이지요. 꽃은 누런 빛을 띤 붉은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약간 뒤로 젖혀진답니다.



꽃	등황색 꽃이 위를 향해 핀다.
잎	큰 잎은 피침모양
열매	도란상 원주형
특징	하늘을 향해 꽃을 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하늘말나리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해 피운 꽃이 마치 태양을 따라 가고 싶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꽃잎에는 검은 점들이 있는데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해 보세요!

참나리(*Lilium lancifolium*)

• *개화시기 : 7~8 월*

story 나으리 꽃, 나리꽃

우리 꽃 가운데 나리 종류를 소개 할께요!

참나리는 깨를 뿌려 놓은 듯 점이 있고, 땅나리는 꽃이 땅을 보고 피고, 하늘나리는 하늘을 보고 피죠!

또 이름에 '말나리' 가 붙는 나리 종류는 이파리가 우산살처럼 돌아 나고요~ 하늘말나리는 꽃이 하늘을 보고 피고, 중나리는 하늘도 땅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옆을 보고 피어요!

마지막 털중나리는 털이 유난히 많답니다.



꽃	가지끝과 원줄기 끝에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피침모양
열매	잎겨드랑이에 살눈이 달린다.
특징	나리꽃 중 가장 쓸모가 많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나리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며 피어 있는 꽃은 키가 1m 이상이나 된답니다.

꽃이 커서 관찰하기 정말 좋아요^^

무릇(*Scilla scilloide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무릇 사람은....

무릇을 왜 무릇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릇 잎은 두 장이나 여러 장이 모여서 올라와요~
털이 하나도 없어 윤기가 반지르르 나는 잎은 두껍고 끝이 뾰족해요!
무릇 잎만 보고 난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만큼 무릇 잎이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귀해 보인다는 말이겠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무릇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에요~ 꽃의 모양이 길쭉하니 여러 개가 모여 핍니다.
무릇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선 무릎을 꿇어주면 됩니다.^^

꽃	연한 홍자색이 모여 핀다.
잎	끝은 뾰족하고 털은 없다.
열매	도란상 구영이다.
특징	잎은 봄, 가을 2차례 걸쳐 나온다.

층층이꽃(*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 *개화시기 : 7~8 월*



story 층층 올라가며 꽃이 피는 층층이꽃

층층이꽃은 요즘 꽃층층이라고도 불리는 야생화에요~
7~8 월에 꽃을 피우는데 층층 올라가며 꽃이 피어 이런 이름이 붙었겠지요?
층층이꽃은 '제비둥지'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층층이꽃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마디마다 층층으로 피어서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층층마다 꽃의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직접 관찰해 보세요~

꽃	입술모양꽃이 층층으로 핀다.
잎	마주 붙고 달걀모양
열매	둥글고 약간 편평하다.
특징	꽃이 마디마다 층층으로 핀다.

박주가리(*Metaplexis japonic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박 바가지 닮았어요~

박주가리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벌어져 씨가 날아가는데, 하얀 갓털이 마치 백로의 깃털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워요~

가금 다 날아가지 않은 박주가리 씨를 불어 날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박주가리는 씨를 날려 보낸 열매 껍질이 물 뜨는 박 바가지를 닮았다고 박주가리라 해요~



꽃	자주색이고 송이모양이다.
잎	마주 붙고 달걀꼴, 심장모양
열매	짐승 뿔모양이다.
특징	유독성 식물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박주가리는 삼청공원과 내장호자연학습시설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별모양을 닮았고, 꽃잎에는 자잘한 털이 있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산에서 자라는 수국, 산수국

7월이 되면 산수국 가지 끝에는 커다란 접시 모양의 꽃송이가 하늘을 보고 피는데 가장자리에만 꽃잎을 가진 꽃이 빙 둘러 있어요~ 이 꽃은 암술과 수술은 없고 꽃받침조각으로만 이루어진 꽃으로 곤충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서 장식꽃 또는 중성화라고 해요! 가운데에 있는 자잘한 꽃들은 꽃잎은 없지만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성화입니다.



꽃	연한 남색 꽃이 둥글게 모여 핀다.
잎	마주나고 타원형~달걀형
열매	달걀형~타원형이다.
특징	장식꽃을 가지고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수국은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땅의 산성도에 따라 꽃의 색이 산성토양은 푸른색, 알칼리성은 붉은색으로 나뉘어 진답니다.

자귀나무(*Albizia julibrissin*)

• *개화시기 : 4 월*



stoRy 잎을 포개고 잠을 자는 나무

자귀나무는 여름에 피는 꽃의 모양이 독특하다. 가지 끝의 커다란 꽃송이에 모여 달리는 꽃은 꽃잎이 없이 수많은 수술로만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꼬투리열매는 겨울까지 매달려 있는데 겨울바람에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가 여자들의 수다처럼 들렸던지 '여설목' 이라고도 했어요~
자귀나무의 깃꼴겹잎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마주보는 잎이 2장씩 포개지는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잎은 소가 무척 좋아하는 먹이라서 남부 지방에서는 '소쌀나무' 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귀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붉은색의 자귀나무의 꽃은 마치 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꽃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가지 끝에 많은 꽃송이가 모여 달리고 꽃은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피어 올라간다.
작은 대롱 모양의 꽃받침 속에 20~25 개의 수술과 1 개의 암술이 있다.



잎

가지에 서로 어긋나는 잎은 여러 개의 깃꼴겹잎이 다시 깃꼴 형태로 붙는 2 회깃꼴겹잎이다.
1 장의 잎에 작은잎이 많게는 360 장까지 달리기도 한다.



열매

꽃이 지면 연녹색 꼬투리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 갈색으로 익으며 겨울까지 매달려 있다.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 *개화시기 : 7~9 월*

stoRy *100 일 동안 꽃이 피는 나무 백일홍*

화초 중에 꽃이 100 일 동안지지 않는다는 백일홍이 있는데, 배롱나무도 꽃이 100 일 동안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하며 화초인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나무 백일홍'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간지럼나무' 라고도 하는데 열룩무늬가 있는 매끄러운 줄기를 긁으면 마치 간지럼을 타듯 나무 전체가 움직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	가지 끝에 붉은색 꽃이 핀다.
잎	둥근 타원형, 잎은 두껍다.
열매	둥근 녹색의 열매
특징	간지럼나무라는 별명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배롱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꽃이 피고 나무껍질이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만져보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배롱나무를 관찰하며 나무껍질도 만져보세요~

작살나무(*Callicarpa japonic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겨울눈이 작살처럼 생긴 작살나무*

작살나무는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막대기 끝에 삼지창 모양의 쇠를 박아 만든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데 쓰는 작살을 닮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작살나무의 가지에 달린 겨울눈의 모양이 작살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겨울눈의 모양이 가지 모양보다 작살과 더욱 비슷해요!!



꽃	자주색 꽃이 피는데 작다.
잎	마주나고 긴 타원형
열매	둥근 열매, 보라색으로 익는다.
특징	겨울눈이 작살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작살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이 매우 작아 자세히 관찰을 해야 해요~ 특히 겨울에는 겨울눈을 관찰해 보세요! 겨울눈이 작살을 닮았어요~

멍석딸기 (*Rubus parvifolius*)

• *개화시기 : 6월*



story 사귀 뒤에 숨어 있는 달콤한 열매

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산딸기 종류는 산딸기를 비롯해 분홍색 꽃이 피는 멍석딸기와 줄딸기가 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산딸기 종류가 많아지며 남부 지방에서는 위 종류 외에도 복분자딸기나 수리딸기를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여러 종류의 야생 딸기는 빨갛게 또는 까맣게 익는데 종류마다 제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 만나는 종류마다 맛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멍석딸기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산딸기라고 부르는 나무가 바로 멍석딸기에요~

빨간 열매를 보면 군침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눈으로만 관찰해 주세요^^

꽃	분홍색 꽃이 모여 핀다.
잎	세겹잎, 잎자루에 가시가 있다.
열매	둥근열매는 7~8월에 익는다.
특징	어린 가지에 가시와 털이 있다.

칡 (*Pueraria thunbergiana*)

• *개화시기 : 7~8월*



story 다른 나무를 친친 감고 오르는 칡

칡은 다른 나무를 친친 감고 올라가 못살게 굴기 때문에 숲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칡뿌리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구황 식품이었습니다.

칡뿌리를 갈아서 만든 갈분으로 갈분국수나 갈분다식 또는 갈분 엿을 만들어 먹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칡은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칡뿌리의 주인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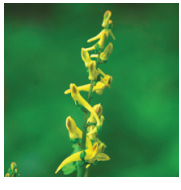
칡의 꽃을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꽃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	커다란 꽃송이가 달린다.
잎	세겹잎은 가지에 서로 어긋난다.
열매	꼬투리열매는 갈색으로 익는다.
특징	가을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눈괴불주머니(*Corydalis ochot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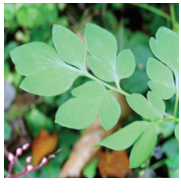
• *개화시기 : 7~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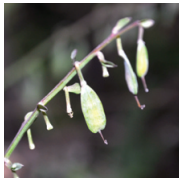
꽃

황색 꽃의 송이모양꽃차례는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
포는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잎은 어긋나게 붙고 잎자루가 길며 세모지고 2~3회 3출엽이다. 갈래 조각은 거꿀달걀모양으로 잎자루에 날개가 있다.



열매

삭과는 긴 거꿀달걀모양이고 7월부터 성숙한다. 종자는 흑색으로 2줄로 배열되고 광택이 나며 밋밋하다.

story 예쁘게피는 괴불주머니

눈괴불주머니는 현호색과의 속하고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에요~
눈괴불주머니는 누워서 자라기 때문에 '누운괴불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눈괴불주머니를 접한다면 많이 누운 모습은 아니랍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사용하는 야생화이긴 하지만 유독성실물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눈괴불주머니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꽃이 계곡 주변으로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누워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뱀무(*Geum japonicum*)

• *개화시기 : 6~8 월*



stoRy 무잎을 닮은 꽃, 뱀무

뱀무는 줄기가 길게 뻗었어도 그 굵기가 실팍하고 꽃잎이 튼튼하며 꽃받침에 잘 밀착되어 다른 꽃잎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금단추 같은 큼직한 꽃송이가 컴컴한 숲 속을 환하게 합니다. 여름 숲 속 길 가에 주로 피는 뱀무는 그 잎이 마치 무잎과 같다하여 뱀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꽃이 귀에 들어가면 귀가 먼다는 속설이 있어 '귀머거리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뱀무를 모르는 사람은 애기똥풀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꽃이에요!
뱀무와 애기똥풀을 함께 관찰해보며 비교해 보세요!

꽃	줄기 끝에 황색 꽃이 핀다.
잎	넓은 달걀 모양
열매	두상과로 다소 구형
특징	잎에는 치아모양의 톱니

짚신나물(*Agrimonia pilosa*)

• *개화시기 : 6~8 월*



stoRy 신을 닮은 꽃, 짚신나물

짚신나물은 여름에 산과 들에서 기다란 고개를 내밀고 피어나는 야생화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갈고리 같은 털을 숭숭 달아 짚신나물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붙잡고 긴 여행을 한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그 어딘가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긴 잠을 자다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짚신나물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길쭉 길쭉하니 노란색의 꽃이 예쁘답니다.
풀잎이 짚신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관찰해 보세요~

꽃	가지 끝에 황색 꽃이 핀다.
잎	일그러진 달걀모양
열매	도원추형으로 술잔모양
특징	풀잎의 주름이 짚신 모양

원추리(*Hemerocallis fulva*)

• *개화시기 : 6월*

stoRy 근심을 잊게 하는 꽃, 원추리

옛글에 아녀자들이 원추리를 내당 뜨락에 심어 놓고 원추리의 향기를 맡으며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을 잊게 하는데 원추리 만 한 것이 없지 싶어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남모르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숲으로 나가 원추리를 만나보세요!



꽃	황색, 6~8개의 꽃이 뭉쳐 핀다.
잎	잎은 칼처럼 생겼다.
열매	넓은 타원형 모양
특징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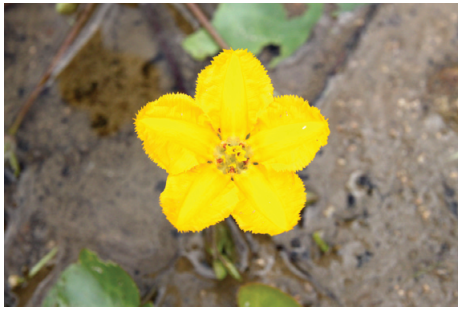
원추리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칼처럼 생긴 잎만 발견해도 원추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노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

• *개화시기 : 6~8월*

stoRy 연못에 피는 대표적인 수생식물

노랑어리연꽃은 어리연꽃과 비슷하지만 잎도, 꽃도 훨씬 작은 좀어리연꽃과 더 크고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 중 어리연꽃과 노랑어리연꽃은 서로 사촌지간이지만 꽃의 모양도 삶의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노랑어리연꽃은 꽃잎도 노란색이고 잎은 물 위까지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꽃	꽃줄기에서 황색 꽃이 핀다.
잎	둥글며 밑은 심장모양
열매	납작한 타원형 모양
특징	잎모양이 연잎을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어리연꽃은 내장호자연학습시설의 인공 습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름에 수련과 함께 노랑어리연꽃은 습지에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꼭 관찰해 보세요!

진노랑상사화(*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 *개화시기 : 4 월*



story 사무친 그리움에 아픔마저 더하고

진노랑상사화는 물기가 많고 자갈이 많은 수풀 속에 서식해요.
상사화라는 이름은 이른 봄에 잎이 나왔다가 시든 뒤 여름에야 꽃대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병이 걸렸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분포지가 좁은 희귀식물로서 환경부에서 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하였고, 한국 고유종으로 전라남도 백암산과 전라북도 내장산에 분포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진노랑상사화는 한국 고유종이에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진노랑상사화를 만날 수 있고 군락지는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꽃

진한 노란색으로 4~7송이가 피며 6장의 화피조각이 있다. 이 화피조각은 뒤쪽으로 반 정도로 젖혀지고 화피 가장자리는 깊은 파도처럼 구불거린다.



잎

잎은 녹색으로 털이 없으며 길이 30~40cm이고 2월 말부터 5월까지 4~8장이 나온다.



열매

열매는 둥근 모양이고 씨앗은 검은색이다.



꾸지뽕나무(*Rubus parvifolius*)

• *개화시기 : 5~6 월*

stoRy *굳이 뽕나무라고 우겨서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닌 것이 굳이 뽕나무가 되겠다고 우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잎을 뽕나무 잎처럼 누에의 먹이로 쓴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에요~

단단한 꾸지뽕나무의 잎을 먹인 누에고치는 뽕나무 잎을 먹인 누에고치보다 단단하고 여기에서 뽑은 실은 매우 질겨서 거문고와 같은 악기 줄로 썼다고 합니다.



꽃 수나무에 둥근 수꽃송이가 달린다.

잎 어긋나며 달걀형~타원형

열매 둥근 열매, 가을에 익는다.

특징 열매는 말랑말랑하며 단맛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꾸지뽕나무는 자연사랑길에서 만날 수 있어요~

뽕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있긴 하지만 뽕나무는 아니랍니다.

뽕나무와 무엇이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 *개화시기 : 7~9 월*

stoRy *씨를 향신료로 이용하는 산초나무*

산초나무 씨로 짠 기름은 오래 전부터 향신료로 이용하였으며, 익지 않은 파란 열매의 가루는 민물고기 요리의 비린내를 없애 주고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해요!

또 산초나무 열매껍질은 마취 작용이 있어 치통이 심할 때 열매껍질을 씹으면 부분적으로 마취가 되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전에는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였답니다.



꽃 가지 끝에 커다란 꽃송이

잎 어긋나는 잎은 깃꼴겹잎

열매 씨는 동그랗고 갈라진 열매

특징 씨앗은 향신료로 이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초나무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초피나무와 매우 비슷해서 간혹 헷갈린답니다.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차이를 찾아서 관찰해 보세요!

붉나무(*Rhus chinensis*)

• *개화시기 : 8~9 월*



stoRy 불타는 붉은 단풍을 가진 붉나무

붉나무는 가을 단풍이 불타는 듯 강렬한 붉은색이라서 이름이 붉나무에요~

붉나무는 쓰임에 따라 불렸는데, '염부목'이라 해서 열매의 표면의 흰 가루가 소금처럼 짜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오배자나무' 인데, 붉나무 잎에 벌레가 기생하면서 만든 벌레집인 오배자를 귀한 한약재로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붉나무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단풍이 드는 나무는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감나무, 붉나무 등도 있는데 단풍나무 못지않게 매우 예쁘답니다.

- **꽃** 암수딴그루, 자잘한 황백색 꽃
- **잎** 어긋나는 잎은 깃꽃겹잎이다.
- **열매** 자라면서 겉이 흰 가루로 덮힌다.
- **특징** 잎은 가을에 붉은색으로 단풍든다.

까마귀베개(*Rhamnella frangulioides*)

• *개화시기 : 6 월*



stoRy 까마귀베개를 아시나요?

까마귀배게.. 참 특이한 이름이지요~

씨앗의 모양이 길고 가운데가 잘록한 배게 모양으로 열매가 다 익으면 까마귀처럼 까맣게 됩니다.

녹색-노랑-주황색-빨강-흑청-검정, 무지개 색처럼 변하는 열매의 앙증맞은 모습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등 남부지방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자생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까마귀베개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꽃보단 열매가 재미있는데 열매는 가을에 노란색으로 되었다가 붉게 변한 후 검은색으로 익는답니다.

- **꽃** 자잘한 연노란색 꽃이 핀다.
- **잎** 어긋나고 긴 타원형
- **열매** 원통형 열매
- **특징** 전라남 · 북도에서 자생한다.

광대싸리(*Securinega suffruticosa*)

• *개화시기 : 6~7월*

stoRy 광대처럼 흉내를 내는 나무

광대란 연극, 판소리, 곡예 등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말해요~ 광대싸리는 언뜻 보아 나무의 모양새가 싸리나무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로 광대처럼 싸리나무 흉내를 잘도 내었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꽃	암수딴그루, 노란색 꽃이 핀다.
잎	어긋나고 가죽질, 타원형이다.
열매	둥그스름한 열매, 3줄의 홈
특징	한국이 원산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광대싸리는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광대싸리의 꽃은 잎겨드랑이에 모여 피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광대싸리의 근처에 가면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광대싸리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상산에서 나는 향기랍니다.

개오동(*Catalpa ovata*)

• *개화시기 : 6~7월*

stoRy 빼빼로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

개오동은 커다란 잎이 달린 나무 모양이 오동나무와 비슷하지만 쓸모가 오동만은 못해서 개오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꽃이 진 뒤에 열리는 열매는 길이가 20~40cm로 빼빼로처럼 가늘고 깁니다. 기다란 열매는 한방에서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로 쓰였어요~



꽃	가지 끝에 황백색 꽃이 핀다.
잎	마주나고 넓은 달걀형 잎
열매	여러 개가 모여 달린다.
특징	꿀이 많이 들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오동은 탐방안내소 앞 다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나무의 크기가 다리의 높이 맞게 자라서 꽃이나 열매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요!
꿀이 많아 벌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흰진범(*Aconitum longecassidatum*)

• *개화시기 : 8월*



story 남녀가 부둥켜안고 사랑하는 모습

흰진범은 돌쩌귀라고 불리는 투구꽃이랑 같은 시기에 피는 우리 산야의 토종꽃이에요.
진범이란 이름은 잎사귀의 모습이 마치 호랑이귀와 닮았다해서 지어졌답니다.
원래의 진범은 자주색의 꽃을 피우지만 흰색의 꽃을 피운 진범을 흰진범이라고 불러요.
흰진범을 멀리서 바라 볼 때면 하얀 꽃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조심스레 다가가면 남녀가 부둥켜안고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에요.
진범은 꽃이 오리를 닮아 '오리꽃'으로 애칭되기도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흰진범은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흰색의 꽃이 투구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멀리서 바라보면 흰색의 꽃송이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꽃

연한 황백색이며 원줄기 끝과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총상꽃차례가 나오고 꽃차례와 꽃자루에 털이 있다.



잎

근생엽과 줄기잎은 엽병이 길지만 위로 갈수록 짧아진다.
밑부분의 잎은 3~7개로 갈라지며 윗부분의 잎은 3~5개로 갈라진다.



열매

종자는 삼각형으로 날개가 있으며 겉에 주름이 진다.
열매는 골돌과이다.



큰까치수염(*Lysimachia clethroides*)

• *개화시기 : 6~8월*

stoRy 잘 여문 벼나 수수의 이삭을 닮은 풀

까치수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설날의 전날을 까치설날이라고 하듯이 까치가 '가짜' 라는 뜻이 있고 수영은 '잘 여문 이삭'을 뜻하는 한자어에요~ 그래서 잘 여문 벼나 수수의 이삭을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작은 꽃들이 풍성하게 모여 피는 까치수영의 꽃은 벼나 수수의 이삭을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꽃 한쪽으로 굽은 모양으로 핀다.

잎 어긋나기, 타원상 피침형

열매 둥글고 숙존한 꽃받침으로 싸여 있다.

특징 큰까치수영이라고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까치수염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저지대보단 중지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굽은 모양의 꽃이 특이하니 꼭 관찰해 보세요^^

파리풀(*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 *개화시기 : 7~9월*

stoRy 파리를 잡는 파리풀

파리풀은 독성이 있어서 뿌리의 즙을 밥에 뿌리거나 종이에 발라 놓으면 파리가 먹고 죽는다고 파리풀이라고 불러요~
승독초라고도 부르는데, 이 역시 풀어보면 파리 승(蠅), 독 독(毒), 풀 초(草)입니다.
파리에게 독이 되는 풀이에요!
파리풀의 전초를 찧어 옴이나 벌레 물린데 붙이면 해독작용이 있다고 해요!



꽃 아삭꽃차례로 위를 향해 핀다.

잎 마주나기, 달걀모양

열매 건질이고 숙존악 속에 있다.

특징 뿌리는 승독초라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파리풀은 어느 탐방로에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파리풀의 꽃은 작아서 가까이 다가가 관찰해야 해요!
특히 열매는 옷에 잘 붙는 특징이 있으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멸가치 *(Adenocaulon himalaicum)*

• *개화시기 : 8~9 월*



stoRy 동물의 털에 잘 붙어요!

멸가치의 꽃은 숲을 거닐며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씨앗은 별을 닮은 모습인데, 8개의 씨앗이 꽃처럼 차례대로 자리잡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씨앗 하나에는 가시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이에요!
가시가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엔가 안착하기에 좋다는 점입니다.
씨앗에는 샘털이 있어서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어서 어디든지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멸가치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멸가치의 열매가 동물의 털에 붙어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는 멸가치가 있어요!

꽃

흰색에서 연한 붉은색으로 꽃이 피고 긴 꽃대가 있으며 화경에 융털과 샘털이 있다.
양성꽃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암꽃만이 열매를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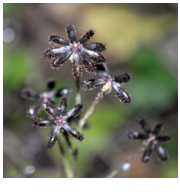
잎

근생엽은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줄기잎은 어긋나기하고 콩팥모양, 심장상 또는 삼각상 심장형이다.



열매

방사상으로 배열되며 거꿀달걀 모양이고 흑자색의 샘털이 있고 관모는 없다.



천마(*Gastrodia elata*)

• *개화시기 : 6~7월*

stoRy 하늘에서 내려준 마!

천마는 '하늘에서 내려준 마' 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천마는 봄에 싹이 돋는데, 갓 돋은 것은 함박꽃 싹과 같고 줄기는 한 대로 곧추 올라가 2~3자나 자랍니다.
마치 화살대와 비슷하며 속은 텅 비어 있고 붉은 빛이 나는데, 그 때문에 적전이라고도 불러요~



꽃 항아리 모양의 꽃이 핀다.
잎 어긋나는 아주 작은 세모꼴
열매 거꿀달걀모양
특징 내장산국립공원 특산식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천마는 원적골자연관찰로와 임압지킴터~장성새재 구간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흔히 꽃보단 뿌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숲 속 깊은 곳에 있어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답니다.

등골나물(*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 *개화시기 : 7~10월*

stoRy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 봄에 피는 꽃

등골나물은 잎의 한가운데 잎맥이 등골처럼 고랑이 있다고 해서 등골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풀을 잘라서 반쯤 말리면 등꽃과 비슷한 향기가 난다고 해서 등골나물이아고 부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등골나물의 꽃은 줄기 끝에 많은 꽃이 술 모양으로 뭉쳐서 피는데, 꽃잎은 없고 대롱 모양의 꽃이 몇 개 함께 모여 있답니다.



꽃 황백색 또는 연한 자주색 꽃
잎 달걀꼴의 긴 타원 모양
열매 원통형, 선과 털이 있다.
특징 관화식물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등골나물은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실이 엉겨있는 듯 한 모습이지만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그렇지 않답니다.

백운란(*Vexillabium yakushimensis*)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 *개화시기 : 7월*



story 숲속에서 작은 깃발을 날리는 백운란

어떤 사람들은 백운란이 꼭 꽃을 심을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삽 같다고 해요! 백운란은 습기가 많은 산지의 낙엽수림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이에요 ~

고 박만규님이 전남의 백운산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에까와에 의해 1935년에 Vexillabium Nakaianum F. Meaka라는 신종으로 등재되었답니다.

꽃	7월에 흰색으로 핀다.
잎	난상 원형, 짙은 녹색
열매	알려져 있지 않다.
특징	백운산, 내장산에 분포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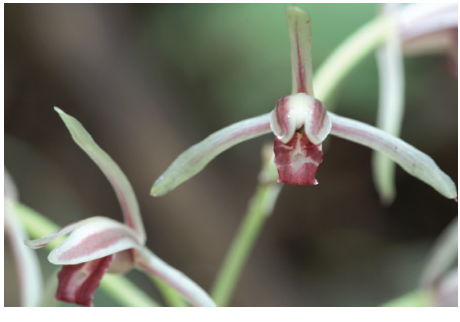
백운란은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이기에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야생화입니다.

그늘진 바위 면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더욱 찾기 어려워요 ^^

대흥란(*Cymbidium nipponicum*)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 *개화시기 : 7~8월*



story 해남 대흥사의 지명에서 유래된 난초

해남 대흥사의 지명에서 유래된 대흥란...

전남 해남 두륜산 대흥사 사찰 주변 산지에서 처음 발견함에 대흥란이라 이름을 부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남 해남의 남부지방 산지에서도 가끔 군락지가 발견 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 지방에서도 500개의 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도 자란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대흥란은 원적골자연관찰로의 특별보호구에서 보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흥란의 모습을 관찰하기란 어렵답니다.

대신 내장산에서 열심히 보호 중인 식물이에요 ^^

꽃	백색으로 홍자색을 띤다.
잎	잎은 없다.
열매	알려져 있지 않다.
특징	부생식물이다.

사위질빵(*Clematis apiifolia*)

• *개화시기 : 4 월*



꽃



액생하는 짧은 취산꽃차례 또는 원뿔모양꽃차례에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4 개로서 피침상 거꿀달걀형이며, 표면에 잔털이 있다.

잎



마주나기하고 3출복엽 간혹 2회 3출한다. 소엽은 달걀형 또는 난상 피침형이다.
포면에는 처음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열매



수과는 5~10 개씩 모여 달리고 좁은 달걀모양이며, 담갈색털이 있는 암술대가 달려 있다.

stoRy 장모의 사위사랑

사위질빵은 장모의 사위사랑이 숨어 있는 식물이에요.
사위질빵 덩굴줄기는 질기지 않아요.
줄기가 약해서 칡이나 댕댕이덩굴처럼 쓰이지 못하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재미있는 이름을 얻었어요.
사위가 매년 가을 추수철이면 처갓집에 가서 바쁜 일손을 도와주곤 했는데 사위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게 보기 안쓰러워하던 장모가 사위의 '질빵(지게 끈)'을 잘 끊어지는 사위질빵 줄기를 써서 짐을 적게 짊어지게 했다는 옛이야기에서 유래되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사위질빵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흰색의 꽃이 모여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열매는 마치 솜털처럼 생겼는데 열매를 관찰해 보면서 촉감도 느껴보세요!

장구밥나무(*Grewia biloba var.parviflora*)

• *개화시기 : 6~8 월*



story 열매가 장구통을 닮은 장구밥나무

장구밥나무는 계곡과 산지 등에 걸쳐 햇빛이 다소 강하게 내려쬐는 반양지에 서식하지만, 해변에서는 바람이 강하고 일광이 많은 절벽, 사구와 암반이 만들어 낸 퇴적지, 민물이 흘러내리는 물길 주변 및 섬 중턱 등지에 잘 서식합니다.
열매는 맛이 좋아 동물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고 열매가 마치 장구처럼 생겨 '장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장구밥나무는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흰색의 꽃도 예쁘지만 열매는 정말 장구통을 닮았답니다.
7월에는 흰색의 꽃을 10월에는 장구통 모양의 열매를 관찰해 보세요!

꽃	암수한꽃이다.
잎	어긋나기, 달걀형
열매	장구통모양이며 노란색
특징	주로 서해안에서 자생

계요등(*Paederia scandens*)

• *개화시기 : 7~9 월*



story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 계요등

산기슭 양지바른 곳이나 바닷가 풀밭에서 볼 수 있는 계요등이예요. 꽃은 7~9월에 흰색 바탕에 자줏빛 점이 있는데 꽃 안쪽 역시 자줏빛이지요. 닭의 오줌 냄새인지 분비물 냄새인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계요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굴식물의 한 종류이지요. 한방에서는 약제로도 쓰이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계요등은 자연사랑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닭의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진짜 닭의 오줌 냄새가 나는지 향기를 맡아보세요!

꽃	흰색으로 피고 자주색 반점
잎	마주나기, 달걀모양
열매	구형이고 황갈색으로 익는다.
특징	줄기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

개모시풀(*Boehmeria platanifolia*)

• *개화시기 : 7~8 월*

stoRy 들에서 자라는 모시풀, 개모시풀

개모시풀은 개모시, 팔각마, 방마, 야저마, 좀모시풀, 왜모시라고도 합니다.
산기슭과 숲 가장자리에서 자랍니다.
왕모시풀에 비해 잎이 얇고 톱니가 크며, 앞쪽이 3갈래로 갈라지고 꽃이삭은 가늘며 깁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으며, 섬유식물이지만 섬유가 약하여 잘 쓰지 않는다 해요!



꽃	이삭모양의 연한 녹색 꽃이 핀다.
잎	마주 붙고 끝이 날카롭교 뾰족
열매	거꿀달걀모양
특징	들에서 자라서 개모시풀이라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모시풀은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어요!
거북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의 모양이 달라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개모시풀과 거북꼬리를 함께 관찰하며 비교해 보세요^^

거북꼬리(*Boehmeria tricuspis*)

• *개화시기 : 7~8 월*

stoRy 거북이 꼬리를 닮은 식물

왜 거북꼬리일까? 궁금하죠?
거북꼬리는 잎의 모양이 사각형이면서 끝이 뾰족하여 거북이의 꼬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붙인 이름이래요~
거북꼬리의 잎은 달걀모양으로 마주나고 끝이 3개로 갈라지고, 가운데의 갈라진 조각이 거북이 꼬리처럼 된답니다.



꽃	이삭꽃차례를 이루고 녹색 꽃
잎	마주 붙고 잎몸은 넓은 달걀모양
열매	수과로 거꿀달걀모양
특징	쪽잎이 거북이의 꼬리 모양과 닮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거북꼬리는 자연사랑길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어요!
개모시풀과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개모시풀과 거북꼬리를 비교하며 관찰해 보세요!

댕댕이덩굴(*Cocculus trilobus*)

• *개화시기 : 6~7월*



stoRy 포도 같은 열매가 달리는 댕댕이덩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덩굴 친구는 댕댕이덩굴을 들 수 있어요! '방기', '대강덩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방기라는 이름의 친구는 사실 따로 있어요!
댕댕이덩굴의 꽃은 너무 작아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열매는 10월에 짙은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익는데, 모양이 꼭 포도송이처럼 생겨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독을 가진 친구라 함부로 먹으면 안되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댕댕이덩굴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삼청공원에는 많은 덩굴성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야 한답니다.
각 각의 덩굴식물들을 관찰해 보면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비교해 보세요.

꽃	암수딴그루, 연노란색 꽃
잎	어긋나고 넓은 달걀형
열매	푸른색의 둥근 열매
특징	예전에 줄기로 바구니를 엮었다.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 *개화시기 : 6~7월*



stoRy 벽에 그림을 그리듯 자라는 식물

담쟁이덩굴은 담을 잘 타고 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친구에요~ '오 헨리'라는 작가의 소설 '마지막 잎새'에 담쟁이덩굴이 나와요~
담쟁이덩굴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자신도 죽을 거라고 믿는 환자를 위해 늙은 화가는 밤새 비바람 속에서 담쟁이덩굴의 그림을 벽에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병에 걸려 죽어요!
아름다운 희생이 곧 예술로 높이 끌어 올려진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담쟁이덩굴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탐방안내소 외벽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탐방안내소 벽을 뒤덮은 담쟁이덩굴은 매우 신비로워 보인답니다.

꽃	자잘한 황록색 꽃
잎	어긋나고 넓은 달걀형
열매	둥근 장과 열매
특징	시멘트 담장을 가리는 용도

사람주나무(*Sapium japonicum*)

• *개화시기 : 6월*

story 스스로 씨를 퍼뜨리는 사람주나무

사람주나무는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비옥하고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
나무껍질은 회갈색이나 회백색을 띠고 매끈하여 세로로 짙은 색 무늬가 있는데, 고급스런 느낌을 주어서 눈에 잘 띕니다.
사람주나무의 씨로 기름을 짜는데 예전에는 이 기름을 식용으로 쓰거나 등불을 켰으며 부인들의 머릿기름으로 사용했어요~



꽃 기다란 총상꽃차례에 수꽃이 달린다.

잎 어긋나고 타원형

열매 둥근 열매

특징 어린가지에서 흰 즙이 나온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사람주나무는 금선계곡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사람주나무의 수피를 만져보면 사람의 피부처럼 매끈하다고 해요~
사람주나무를 관찰하며 수피도 만져 보세요~

조릿대(*Sasa borealis*)

• *개화시기 : 7월*

story 조리를 만드는 재료인 조릿대!!

조릿대는 황해도 이남의 숲 속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대나무의 일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나무의 줄기를 가지고 쌀에서 돌을 골라내는 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조리를 만드는 대나무라는 뜻의 조릿대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꽃 작은꽃이삭은 2~5개의 꽃

잎 피침형 잎은 끝이 길다.

열매 밀알 같고 껍질이 두껍다.

특징 줄기는 조리를 만드는 재료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조릿대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길을 걷다 대나무같은 식물들이 보여 마치 대나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 조릿대는 벼과의 식물이랍니다.
조릿대는 약 5년에 한 번 꽃을 피운데요~ 여러분의 운이 얼마나 좋은지 조릿대를 관찰해 보세요!

내장산의 가을


단풍터널

붉은색	쑥부쟁이 꽃무릇
노란색	송악
흰색	참취 구절초

쑥부쟁이(*Aster yomena*)

• *개화시기 : 7~10 월*

stoRy 쑥을 뜯는 불쟁이네 딸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나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자식이 열한 명이나 되었는데 쑥부쟁이가 맏딸이었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 늘 가난해서, 맏딸은 들이나 산에 나가 열심히 쑥을 뜯었어요~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맏딸을 보고 '쑥을 뜯으러 다니는 불쟁이(대장장이)네 딸' 이라고 '쑥부쟁이' 라 불렀답니다.



꽃	두상화가 하늘을 보고 핀다.
잎	어긋나는 피침형 잎
열매	수과는 길이 2.5cm 정도 이다.
특징	들국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쑥부쟁이는 여름이 끝날 때 즈음 자연사랑길과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들국화라고 부를 만큼 탐방로 옆으로 꽃이 피어 있어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꽃무릇(*Lycoris radiata*)

• *개화시기 : 9~10 월*

stoRy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꽃

꽃무릇을 보고 상사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사화하고는 다른 식물이니까요!
꽃 색깔도 다르지만 상사화는 잎이 먼저 나고, 꽃무릇은 꽃이 시든 뒤에 잎이 나죠!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상사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꽃	진홍색 꽃이 달린다.
잎	길이 30~50cm 로 끝이 뭉툭하다.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특징	절 근처에서 많이 자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꽃무릇은 탐방안내소 앞과 내장호자연학습시설 근처에 위치해 있는 조각공원에서 불타는 듯한 모습의 꽃무릇을 관찰할 수 있어요!
꽃무릇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어 추억을 남겨 보세요^^

송악(*Hedera rhombea*)

• *개화시기 : 10~11 월*





stoRy 벽을 타야만 살아가는 나무

송악은 눈보라치는 매서운 추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늘 푸른 덩굴나무에요~ 송악은 땅위를 이리저리 기어 다니거나 다른 물체에 빌붙어야 하는 슬픈 운명을 타고 났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전세를 들지만 주인에게 가능한 폐를 덜 끼치는 배려도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나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송악은 담쟁이덩굴과 함께 내장산 탐방안내소 건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어 살아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송악과 담쟁이덩굴을 함께 관찰해 보세요~

꽃	연노란색 꽃이 둥글게 핀다.
잎	어긋나며 둥근 세모꽃
열매	둥근열매는 검은색으로 익는다.
특징	소가 잘 먹어서 소밥이라고도 한다.

참취(*Aster scaber*)

• *개화시기 : 8~10 월*

stoRy 산나물의 왕, 참취

참취 꽃은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하얀 혀꽃부리가 성긴 듯 피어 어설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장 참취다워, 어쩌다 꽃잎이 너무 가지런한 참취를 보면 혹시 다른 꽃인가 싶어 어리둥절 하다니까요~

참취 꽃이 보고 싶으면 굳이 산에 가지 않아도 돼요~ 텃밭에서도 참취를 많이 가꾸거든요~



꽃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잎	어긋나고 뿌리잎과 비슷
열매	수과로 길이는 3~3.5cm 정도
특징	취나물이라고 하며 나물로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취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나물 중 하나이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참취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할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취하시면 안돼요~

꼭 눈으로만 관찰하세요!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 *개화시기 : 9~10 월*

stoRy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되는 꽃

구절초는 5월 단오에 줄기가 5마디가 되고,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다 하여 구절초라 불려요~

한방에서 구절초는 부인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선모초로도 불립니다. 또한 구절초 꽃으로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특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 꽃말은 '고상함' 도는 '밝음'입니다.



꽃	꽃이 한송이씩 하늘을 향해 핀다.
잎	달걀형으로 심장저
열매	수과로 긴 타원형
특징	9.9에 채취한 것이 약효가 좋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구절초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쌀쌀한 날씨 속에서 낙엽이 저가는 가을의 구절초 모습은 유난히 더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장산에서 만나는 동물들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내장산의 포유류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한국수달연구센터 사진 제공

청설모 / 다람쥐 / 족제비 / 수달 / 오소리 / 너구리
고라니 / 두더지 / 멧돼지 / 멧토끼 / 삵 / 집박쥐

청설모(*Sciurus vulgaris coreae*)



stoRy 나는 나무타기 선수!!

청설모는 오래 전부터 우리 땅에서 살아온 흔한 짐승이에요. 잣나무나 소나무가 우거진 산에서 많이 살고 있답니다. 발톱이 길고 안으로 굽어서 나무를 아주 잘타요~ 땅에는 잘 안 내려오는데 어쩌다 땅에 내려오면 네 발을 모아 폴짝폴짝 뛰어 다녀요!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람쥐와 달리 땅보다 나무 위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청설모는 다람쥐와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청설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숲 속의 나무를 잘 관찰해 보세요!^^

특징

나무타기 선수
온몸이 잿빛, 배쪽은 흰색
귀가 크고 둥글다.
둥지는 까치 둥지와 비슷



청설모 발자국 →

다람쥐(*Tamias sibiricus*)

stoRy 도토리와 다람쥐~!!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단연 '도토리'에요~
다람쥐는 뺨에 먹이주머니가 있어서 가을이면 두 뺨이 볼록해지도록 먹이를 잔뜩 집어넣고 나른답니다.
그리곤 바위나 나무 그루터기처럼 안전한 곳에 가서 먹지요! 가을이면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 차곡차곡 쌓아 놓는데 다음해 봄이 되면 모아둔 도토리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땅 속에 모아진 도토리는 싹을 틔워 나무로 자란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면 다람쥐는 본능적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멀리서 관찰해야 한답니다.

특징

온몸이 밝은 밤색이다.
등에 검은 줄이 다섯 개!
뺨에 먹이주머니가 있다.
꼬리는 길고 납작하다.



등에 다섯 개의 줄무늬 →

족제비(*Mustela sibirica*)



stoRy 나는야 날쌘 돌이!

족제비는 옛날에 마을에 내려와 허술한 닭장에서 닭을 물어 가거나 물어 죽이는 일이 많았어요~ 족제비가 살면 둘레에 있는 쥐가 사라진다고 할 만큼 쥐를 잘 잡는답니다.
새나 개구리,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새알도 훔쳐 먹고 나무 열매나 죽은 짐승 고기를 먹기도 한대요!



← 족제비의 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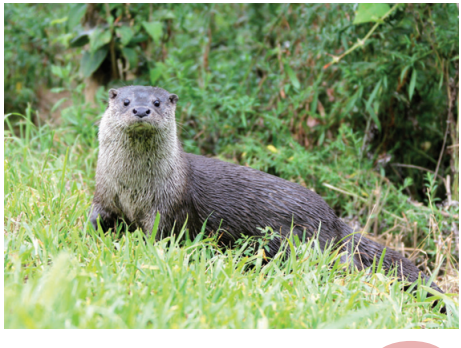
몸이 가늘고 길다.
다리는 짧고 꼬리는 길다.
털은 무척 매끄럽다.
주둥이 둘레는 하얗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족제비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터주대감입니다. 숲 속의 깊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두워지면 사냥을 해요~ 야행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족제비의 흔적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수달(*Lutra lutra*)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



stoRy 멸종위기에 처한 "수달"

수달의 털은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모피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밀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종이랍니다.
환경변화에 취약한 수달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먹이가 감소해서 그 수가 줄어들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어요! '사라져가는 수달'을 보호 해 주세요!



수달발자국



수달 배설물

특징

머리가 작고 몸이 길다.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물고기 사냥꾼이다.
눈에 띄는 바위에 배설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수달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우화정과 내장산자연학습시설에 위치한 습지에서 종종 흔적이 발견된답니다. 하지만 수달은 야행성이기에 그 모습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오소리 *(Meles meles)*



stoRy 오솔길은 오소리가 다니던 길?

오솔길은 사전에서 '산이나 숲 따위에 난 폭이 좁은 호젓한 길'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오솔길을 오소리가 다니던 길이라고 했을까요? 오소리는 항상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오소리가 다니던 길로 다니면서 그 길을 '오소리길' 이라고 불렀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소리길이 오솔길로 변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오소리는 깊은 산 속에 땅굴을 파고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소리를 관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죠! 혹시라도 탐방을 하다 오소리를 발견한다면 반갑다고 다가가면 안된답니다.
오소리는 매우 사나운 동물이거든요 ^^

특징

검은 얼굴, 눈과 귀가 작다.
성질이 아주 사납다.
굴을 파는 재주꾼
집굴과 똥굴이 따로 있다.



오소리 똥 →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stoRy 너구리 화장실의 모습

너구리 똥은 늘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똥을 한 자리에 누기 때문입니다.
너구리의 똥을 관찰해보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중 나무열매를 먹고 배설했다면 너구리의 화장실에서 싹을 틔우는 식물도 종종 관찰할 수 있어요!
식물의 열매는 너구리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너구리는 내장산국립공원 숲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행성이기에 낮에는 관찰하기 어렵지만 삼청공원에 너구리의 화장실이 있어서 너구리의 배설물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개과 동물중 유일하게 겨울잠을 자는 동물
눈언저리가 까맣다.
똥을 한 곳에 눈다.
잡식성 동물이다.



너구리 똥 →

고라니(*Hydropotes inermis*)



stoRy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고라니!

지구적인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크기는 작은 면적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의 포유류는 없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독 많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을 꼽으라면 바로 고라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동물 중 하나인 고라니가 가장 한국적인 토착동물인 것이에요~

고라니는 신의주~함흥을 경계로 그 이남에 서식하는 동물로 특히 남한에 많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 고라니 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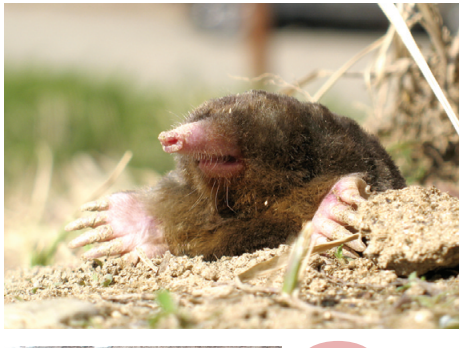
특징

노루보다 작다.
수컷은 송곳니가 있다.
철에 따라 이동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라니는 여름에는 계곡과 숲에서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이 적은 산기슭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기척을 느끼면 잽싸게 달아나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두더지(*Talpa mogera*)



stoRy 두더지가 땅 속에서 사는 이유

두더지는 땅 속을 파고 돌아다녀요~ 굴을 파기 좋게 몸이 원통형이고, 주둥이가 길고 뾰족하답니다.

두더지는 땅 속에서 몸놀림이 무척 빠릅니다

두더지는 깜깜한 굴에서 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대신 귀가 밝아서 굴속에 있으면서도 땅 위로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금방 알아냅니다.

땅 위로 나올 때도 있지만 올빼미한테 잡혀먹기도 해서 두더지에겐 땅 속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랍니다.



← 두더지 지난 자리

특징

주둥이가 길고 눈은 작다.
땅 속에서 굴을 파고 다닌다.
눈이 어둡다.
발톱이 크고 단단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두더지는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삼청공원의 잔디밭에서 두더지가 땅 속에서 지나다닌 흔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멧돼지 *(Sus scrofa)*

stoRy 멧돼지를 만나면 대처하는 방법

① 멧돼지를 만나면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② 등을 보이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③ 만약 흥분한 멧돼지를 만나면 주위의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으로 몸을 숨기세요.
④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뒤돌아 도망가지 말고 멧돼지 시선을 마주보면 뒷걸음질로 피하세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멧돼지는 참나무 숲이나 우거진 덤불숲에서 살아요~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로에서는 관찰하기 힘들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난 후 삼청공원에는 멧돼지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힘이 세고 이것저것 잘 먹는다.
수컷은 송곳니가 있다.
보통 걸어 다닌다.
주둥이가 길다.



멧돼지 발자국 →

멧토끼 *(Lepus coreanus)*

stoRy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산토끼는 정확히 얘기하면 멧토끼에요~ 멧토끼는 흔한 산짐승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랍니다. 귀가 유난히 큰데, 큰 귀를 이리저리 돌릴 수 있고 작은 소리도 잘 듣습니다. 멧토끼는 늘 다니던 길로만 조심스레 다니지 쉽사리 새로운 길을 찾지 않아요! 눈이 온 날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멧토끼는 흔한 산짐승이에요~
내장산국립공원의 숲속에 많이 서식하고 있지만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탐방로에서 멧토끼의 발자국을 관찰할 수 있어요~^^

특징

귀가 유난히 크다.
뒷발이 앞발보다 크고 길다.
털색은 잿빛이 많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멧토끼 발자국 →

삵(*Felis bengalensis*)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stoRy 마지막 야생의 맹수 '삵'

삵은 닭서리의 명수인데 큰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등은 누르스름하거나 검은 갈색이고, 배 쪽은 흰색이며, 몸과 고리에는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잘한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인적이 뜸한 곳에서는 낮에도 활동합니다.
삵은 개체수가 급속히 줄고 있어,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 삵 똥

특징

황갈색 바탕에 검은 점
이마에 흰 줄무늬 두개
고양이와 닮았다.
살쾡이라고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삵은 멸종위기종이고 야행성 동물이어서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동물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생활하며 주로 배설물을 통해 삵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집박쥐(*Order Chiroptera*)



stoRy 박쥐들의 초음파에 대한 비밀

박쥐는 밤에 나와서 날아다닙니다. 잘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듣고, 냄새도 잘 맡습니다. 초음파라는 특수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물체에 닿아 되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물체인지 알아낸답니다.
이 초음파 덕분에 깜깜한 밤에 날아다니면서도 아무 데도 안 부딪히고, 먹이도 잘 찾아요! 하지만 사람은 초음파를 들을 수 없어요~



← 나무에 매달린 집박쥐

특징

아주 작다.
몸 위쪽에는 털이 촘촘하다.
귀가 얇고, 귀 끝은 둥글다.
수명이 짧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집박쥐는 동굴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관찰이 어려워요~ 가끔 삼청공원의 숲 안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몸집이 작아 새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내장산의 조류


박새


어치


왜가리

올빼미 / 곤줄박이 / 박새 / 어치 / 멧비둘기
동고비 / 딱따구리 / 딱새 / 직박구리 / 굴뚝새
검은댕기해오라기 / 노랑턱멧새 / 노랑할미새 / 흰배지빠귀 / 팔색조
되새 / 원앙 / 호랑지빠귀 / 흰목물떼새 / 콩새
백할미새 / 청둥오리 / 왜가리 / 흰뺨검둥오리 / 쇠백로

올빼미 *(Strix aluco)*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2급,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는 산란기가 3~4월이며 주로 고목의 수공, 까마귀나 매가 사용했던 것을 둥지로 사용합니다. 산란수는 2~3개 정도 이고 알은 흰 색이에요.



포란은 암컷이 전담하며 기간은 약 30일 정도에요.
육추는 암수가 함께 하며 육추 기간은 32~37일이랍니다.



올빼미는 귀뿔이 없는 원형의 얼굴이고 몸통은 회갈색입니다. 부리는 녹황색이며 홍채는 흑갈색이고, 다리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stoRy stoRy 부엉이와 올빼미는 같을까요?

부엉이와 올빼미는 영어로 둘 다 Owl이라고 부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부엉이와 올빼미는 둘 다 올빼미과에 속하는 조류에요~
부엉이와 올빼미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위로 삐죽 올라와 있는 '귀깃'이랍니다.



수리부엉이



올빼미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단풍터널에서 2012년 3월에 처음 올빼미가 관찰되었어요.
올빼미는 내장산의 깊은 숲 속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답니다.

곤줄박이 (*Parus uarius*)

stoRy 귀여운 숲 속의 꼬마 친구~

'곤줄박이' 라는 이름에는 '고운 줄이 박혀있는 새'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곤줄박이의 머리에는 큼지막한 검정색과 흰색 줄이 박혀있고, 목에도 검정머플러를 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이름은 '곤줄매기' 인데, '고운줄(곤줄)을 매고 있는 새'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검정색, 회색, 붉은 갈색 등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곤줄박이는 내장산국립공원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곤줄박이 근처까지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서 만지거나 괴롭히면 안되겠죠?

특징

이마와 얼굴은 황백색
날개와 꼬리는 청회색
산란수는 5~6 개
호기심이 강한 새
개체수가 흔하다.



곤줄박이 알 →

박새 (*Parus major*)

stoRy 박새는 운명이 박해서 박새일까?

박새는 왜 박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운명이 박해서 일까요? 급한 성격이 있어서 가끔 참새그물에 걸려들긴 해도 운명이 그리 박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왜 박새일까요?
뺨이 하얗기 때문이라고 조류학자는 주장해요. 예로부터 얼굴이 하얗다고 해서 '백협조' 라 불렸고, 백협조가 빛죽새로, 다시 박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 모든 탐방로에서 박새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새 중 하나입니다.
숲 안을 거닐며 박새의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쯔삐, 쯔삐, 쯔삐' 하며 높은 소리를 낸답니다.
삼청공원에서 곤줄박이와 함께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징

이마, 머리상단, 뒷목은 검은색
등과 어깨는 회색을 띤 녹색
뺨은 순백색
산란수는 7~9 개
개체수가 흔하다.

동고비(*Sitta europaea*)



story 재건축가 동고비!

고목나무에 둥지를 짓고 사는 동고비는 딱따구리가 지어 놓은 둥지를 자기의 둥지인냥 보수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나무를 뚫을 수 있는 새는 딱따구리뿐이기 때문에 동고비는 손쉽게 자기가 직접 둥지를 만들기 않더라도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고비는 딱따구리의 집을 고쳐서 살아가는 재건축가의 고수인 셈이지요~ 나무에 파놓은 딱따구리의 집이 입구가 크기 때문에 흙으로 막아 자기 몸에 딱 맞게 만들어요~ 동고비는 숲 속의 솜씨 좋은 새들의 미장이랍니다.

특징

머리부터 위꼬리덮깃까지 청회색
고목의 수공, 딱따구리 구멍을 둥지로 이용한다.
산란수는 5~8개
나무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습성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동고비는 나무를 거꾸로 내려오고 오르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동고비를 발견한다면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딱새(*Phoenicurus auroreus*)



story 한국의 텃새, 딱새

딱새는 철저하게 자기영역 속에서 평생을 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에요~ 2~300m의 넓지 않은 영역에서 평생을 사는데 암수가 인근 지역을 경계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딱새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자기 영역을 보내다가 봄이 와서 짝짓기를 할 즈음에는 암수가 같이 만납니다.

특징

수컷 : 머리상단~뒷목은 회백색
암컷 : 온몸이 연한 갈색
수컷은 텃세권을 갖고 생활
지저귈 때는 꽁지를 위아래로 흔드는 버릇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딱새는 텃새로 내장산국립공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새입니다. 번식기에는 깊은 숲 속에 있어서 관찰하기 힘들지만 겨울에는 탐방안내소까지 날아와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지저귈 때 꼬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한지 관찰해 보세요^^

굴뚝새(*Troglodytes troglodytes*)



story 굴뚝새가 왕이 된 사연

옛날에 두루미와 굴뚝새가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내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내기에서 이기는 새가 새들의 왕이 되기로 했답니다. 두루미가 먼저 잔뜩 폼내면서 '이쪽이다' 하며 서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굴뚝새는 '어느 쪽이지?' 하면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렇게 잠깐 머뭇거리려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굴뚝새는 두루미에게 소리 쳤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나는 이미 너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겼다" 그래서 결국 굴뚝새가 새들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굴뚝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새들 중 가장 작은 새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찾기 힘들답니다.
삼청공원의 계곡과 자연사랑길의 내장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징

한반도의 조류 중 가장 작은 편
몸이 둥글고 꼬리가 짧다.
암,수 또는 단독생활
여름에는 산으로, 겨울에는
마을과 정원으로 내려와 생활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



story 노랑 스카프가 예쁜 노랑턱멧새!

마치 멋진 애인을 만나러 길을 나서며 한껏 치장을 한 듯 아름다운 색깔의 깃을 고루 갖춘 노랑턱멧새는 깃털도 예쁘지만 샛별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는 예쁜 눈을 가졌어요. 노랑턱멧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이기도 하지만 북쪽지방에서 많은 수가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내려오는 겨울철새이기도 하답니다. 숲속의 새소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새입니다.
삼청공원의 풀밭이나 계곡가에서 발견되어지고
'츄이~ 츄이~' 하면서 울어요!
몸의 색이 식물의 줄기와 비슷해서 식물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한답니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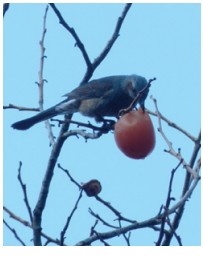
수컷 : 머리에 짧은 관모가 있다.
암컷 : 멱은 엷은 황색을 띤다.
농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다.
포란은 암수가 함께 한다.
북쪽의 무리는 가을에 일부 남하

직박구리(*Hypsipetes amaurotis*)



stoRy 숲 속의 수다쟁이, 직박구리!

주변을 살펴보면 유난히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이 꼭 한명씩은 있습니다. 숲에서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직박구리에요!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시끄러운 울음소리입니다. 나무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귀청이 떨어져라 "삐-익 삑삑삑" 하면서 크게 웁니다.
하지만 이런 직박구리 때문에 다른 맹금류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숲의 파수꾼입니다.



← 감을 좋아하는 직박구리

특징

머리, 뒷목은 마색이 도는 연한 회색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귄다.
곡선을 그리며 난다.
암수가 같아 생활(여름철)
무리 생활(이동할 때)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직박구리는 내장산국립공원에서 매우 흔한 새입니다.
삼청공원에 감나무가 많은데 가을, 겨울에는 직박구리가 감을 먹기위해 감나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 귀는 살짝 막아야 한답니다.^^

어치(*Garrulus glandarius*)



stoRy 성대모사의 달인, 어치!

어치는 다양한 몸 색깔만큼이나 많은 소리를 내는 재주꾼입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기본이고, 까치나 까마귀, 그 밖의 많은 새의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이만하면 성대모사의 달인, 아니 달조라고 불리워야 할 듯 하죠!!^^
어치는 숲속이 포도대장이에요~ 낯선 사람이 숲에 들어오면 '과악~ 과악~' 하며 온 숲에 낯선 사람의 출현을 알립니다.

특징

참나무 열매를 좋아한다.
먹이를 숨겨두는 습성이 있다.
파도모양으로 난다.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를 교묘하게 흉내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로에서 '갸아~ 갸아~ 갸아~' 또는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난다면 주변을 둘러 보세요!
아마 나무 위에서 어치가 열심히 울고 있을거에요~
어치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터주대감으로 곤줄박이, 박새와 함께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새랍니다.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stoRy 봄을 알리는 전령사, 멧비둘기

멧비둘기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에요. 입춘 우수를 지나서 해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지고 언 땅을 녹이기 시작하면 이내 들려오는 것이 멧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구그으~ 구우' 듣는 사람의 청감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들리는데, 봄의 전령인 이 소리에 농부들은 겨울 한철 노루잠에서 깨어나 또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멧비둘기는 산에 살고 있는 비둘기로 비둘기와 울음소리가 비슷해요.
나뭇가지와 색이 비슷해서 멧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으면 쉽게 찾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내장산국립공원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징

1회에 2개의 알을 낳는다.
몸은 잿빛이 도는 보라색
대표적인 사냥새
'꾸- 꾸- 꾸끄' 하고 운다.
수렵대상종이다.

오목눈이 (Aegithalos caudatus)



stoRy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익숙한 속담 중 하나이죠?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버거운 일을 억지로 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 남이 한다고 따라하다가는 도리어 큰 화를 당한다는 속담입니다.
이 '뱁새'는 원래 이름이 붉은머리오목눈이입니다. 몸집이 워낙 작아 눈에 띄는 새는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새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오목눈이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새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도 여기 저기 눈을 돌리면 보이는데,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에 쉽사리 찾기는 힘듭니다.
작고 귀여운 오목눈이!
우리 모두 숲으로 가서 찾아볼까요?

특징

온 몸이 가늘고 꼬리가 길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
날 때는 세차게 퍼덕이면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난다.
흔히 볼 수 있는 텃새

쇠딱따구리 (Picoides kizuki)



stoRy 숲속의 나무 의사,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고목이나 병든 나무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다보니 나무들에게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고마운 친구지요~
이렇게 딱따구리는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며 병든 나무를 치료해주는 고마운 숲속의 의사입니다.



← 딱따구리 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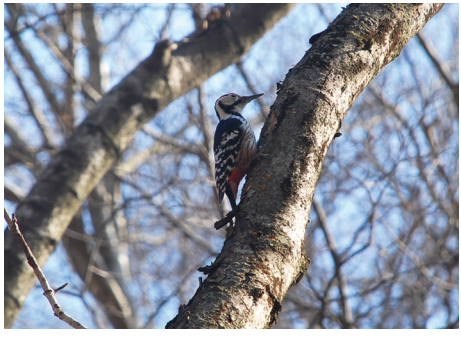
특징

수컷의 머리에는 붉은색이 깃털
딱따구리 중 가장 작은 종
나무줄기를 부리로 두들겨 소리를 낸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쇠딱따구리는 딱따구리 중 가장 작은 새입니다.
몸집이 작고 앙장 맞아서 정말 귀엽답니다.
흔하고 개체수도 많은 새이긴 하지만 쇠딱따구리는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난다면 귀를 귀울여보세요~

큰오색딱따구리 (Picoides leucotos)



stoRy 딱따구리가 왜 나무에 구멍을 낼까?

① 딱따구리끼리 서로 대화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② 둥지를 짓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냅니다.
③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속에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④ 구애의 행동이에요~ 수컷은 암컷에게 자신의 부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내기도 한답니다.

특징

오색딱따구리와 비슷하다.
'끼욧, 끼욧' 하며 운다.
수컷의 뒷머리는 붉은색
산란수는 3~5개, 알은 순백색
흔하지 않은 텃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흔히 보이는 딱따구리는 아닙니다.
가끔 '끼욧, 끼욧' 하며 큰소리로 울고, 나무 구멍을 내는 소리 또한 큽니다.
주변에 귀를 귀울여 보세요~ 큰오색딱따구리를 관찰할 수 있을 거에요^^

원앙(*Aix galericulata*)

천연기념물 제327호

stoRy 금실 좋은 부부,'원앙'

여러분들은 원앙에 대해 잘 아시나요?
우리는 옛날부터 흔히 금실 좋은 부부를 빗대어 원앙같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앙의 암컷과 수컷이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앙은 일부다처제랍니다.
한 마리의 수컷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함께 번식기를 보내며, 그 중 한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바로 떠나버린답니다.~ 즉, 원앙은 금실 좋은 새가 아니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에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약 20여마리의 원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내장저수지와 삼청공원에서 종종 관찰되어지는데 내장저수지는 특히 겨울철새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청공원은 가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징

수컷의 빛깔이 아름답다.
흔하지 않은 텃새
나무구멍을 둥지로 사용
도토리를 즐겨 먹는다.
동양화의 주된 소재로 사용



원앙 암컷 →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byncba*)

stoRy 백조새끼는 정말 오리새끼보다 미울까?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는 누구나 좋아했던 동화였을거에요! 동화를 읽다 보면 새끼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못생겼다고 구박받으며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백조새끼는 미울까요? 아니에요~ 새끼 백조는 보통 회색 털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하면서 흰색으로 털갈이를 한답니다.
결국 새기가 성장하면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하는 것이죠!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저수지에는 많은 종류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히 흰뺨검둥오리는 청둥오리 다음으로 많은 수를 관찰할 수 있어요~
봄과 여름에는 낮에 관찰하기 힘들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다른 겨울철새들과 함께 있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부리는 검고 끝부분은 황색
암컷과 수컷이 비슷하다.
꼬리는 짙은 갈색
우리나라의 흔한 텃새이고 겨울에는 무리를 형성한다.

팔색조(*Pitta nympha*)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4호



stoRy 팔색조의 여덟 가지 비밀

○비밀 하나, 5월 초승달이 뜨는 밤에만 날아든대요~
○비밀 둘, 바위는 최고의 명당
○비밀 셋, 머리는 보호색, 배는 경계색
○비밀 넷, 짐승똥으로 집안 단속
○비밀 다섯, 우기, 숲은 지렁이의 보고!
○비밀 여섯, 고슴도치 깃털의 화려한 변신!
○비밀 일곱, 팔색조 둥지는 고무줄 둥지
○비밀 여덟, 식사는 화장실 가는 순서대로!



특징

7가지 무지개색 깃털
주로 단독 생활
암컷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수컷은 경계만~
희귀한 여름철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2012년 내장산국립공원에 팔색조가 찾아왔었어요~
팔색조는 내장산국립공원에서 번식을 했던 것으로 관찰이 되어졌었고 번식이 끝난 후 떠났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팔색조를 관찰하지 못했어요.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



stoRy 지빠귀 종류 중 가장 흔한 흰배지빠귀

흰배지빠귀는 지빠귀 종류 중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새 중 하나랍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울창한 숲 속에서는 흰배지빠귀의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답게 들려요~
나무뿌리와 이끼류, 마른풀로 밥그릇형 둥지를 만들고, 4~5개 정도의 알을 낳는답니다.

특징

수컷의 머리와 멱은 회색, 등은 올리브갈색이며 배는 흰색,
암컷도 수컷과 비슷하지만 등은 연한 갈색!
알은 4~5개 낳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봄과 여름이 찾아오면 내장산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에서 바닥에서 총총 뛰어다니는 새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흰배지빠귀' 랍니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지만 눈으로만 관찰해야겠죠?^^

호랑지빠귀(*Zootbera dauma*)

stoRy 귀신새로 불리는 호랑지빠귀

호랑지빠귀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호랑지빠귀는 낮과 밤에 모두 활발히 활동한답니다.
'꽉 꽉'하고 낮은 소리로 울기도 하지만 주로 새벽녘과 늦은 밤에 '히이~, 피이~' 하고 가느다란 휘파람소리를 내며 울기 때문에 '간첩새, 귀신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처음 호랑지빠귀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녀석의 소리에 어쩌면 밤잠을 설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호랑지빠귀는 봄에 내장산에 찾아와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운 다음 여름까지 지내는 새입니다.
매우 흔한 새이기 때문에 종종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경계심이 강한 새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금방 도망가 버린답니다.

특징

호랑이를 떠올리게 하는 무늬
주로 새벽녘과 늦은 밤에 울음소리를 낸다.
이끼를 이용한 밥그릇형 둥지
여름철새

노랑할미새(*Motacilla cinerea*)

stoRy 방정맞은 새!! '노랑할미새'

노랑할미새는 할미새과에 속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에요~ 초여름 냇가를 끼고 있는 계곡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생활해요!
머리가 햐얗다고 태어나자마자 '할미' 소릴 듣는 이 녀석은 잠시도 쉬지 않고 긴 공지로 아래위로 흔들어 예로부터 방정맞은 새로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할미새는 3월이 되면 내장산국립공원의 계곡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란색을 띤 노랑할미새는 계곡에 있는 바위 위에서 꼬리깃을 열심히 흔들고 있고, 때로는 우리 머리 위로 암컷과 수컷이 함께 날고 있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한국에 4~10월에 찾아온다.
수컷의 턱밑은 검고 가슴과 배는 흰색이 도는 엷은 황색
꼬리는 할미새류 중 가장 길다.
홍채는 검고 다리는 가늘다.

왜가리(*Ardea cinerea*)



stoRy 백로와 왜가리의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무안 용월리의 마을 앞 저수지에 있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에는 약 500마리의 왜가리가 4그루의 팽나무에 둥지를 틀어 번식하고 있어요~ 또한 마을 앞 청룡산 번식지에는 약 600마리 정도의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 번식하고 있답니다.!

무안 용월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백로와 왜가리가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 제211호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 왜가리 발자국

특징

날 때에는 '꽈악' '와악' 운다.
등은 회색, 아랫면은 흰색이다.
침엽수, 활엽수림 집단 번식
이동할 때는 밤에도 난다.
여름철새이나 남부는 텃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에는 다양한 물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 왜가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내장저수지에서는 백로들과 함께 번식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간혹 우화정으로 날아와 먹이사냥을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답니다.

검은댕기해오라기(*Butorides striatus*)



stoRy 물고기 사냥의 대가! 검은댕기해오라기

물고기 사냥의 대가인 검은댕기해오라기를 소개합니다.

여름철새로 3~4월경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오는 검은댕기해오라기는 물살이 급한 물가에서 먹이사냥을 위해 꼼짝하지 않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가 방심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데 선수랍니다.^^

특징

이마에서 뒷머리까지 녹색 광택이 나는 검은색
부리는 검고 홍채는 황색
주로 물가를 찾아 생활
흔한 여름철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의 봄이 찾아오면 내장호에 검은색의 띤 새가 물고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바로 검은댕기해오라기인데 워낙 몸의 색이 검다 보니 바위와 헷갈릴 정도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죽여 자신의 몸을 가리고 조용히 한다면 검은댕기해오라기가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쇠백로(*Egretta garzetta*)

stoRy 아주 늘씬하고 아름다운 새!!

백로는 부리와 다리가 가늘고 길어 물 속에서 먹이를 잡아먹기에 알맞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 있을 때나 날 때에도 긴 목은 S자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백로는 먹이가 눈에 띄면 S자 모양의 긴 목을 용수철처럼 길게 늘여서 재빨리 먹이를 잡아먹어요!
백로는 4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철새이며 강가, 저수지, 얕은 바닷가에서 생활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쇠백로는 내장저수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주변의 논과 밭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백로들보단 작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발가락의 색과 머리의 장식깃을 보고도 쇠백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쇠백로의 모습을 관찰하러 내장저수지에 가볼까요?^^

특징

백로 중 가장 작은 종이다.
다리는 검고 발가락은 황색
온몸의 체모는 순백색
번식기에는 머리에 장식깃이 생김



되새(*Fringilla montifringilla*)



stoRy 5천리를 날아온 되새!!!

되새는 겨울에 만나는 친구에요! 몸집은 참새보다 조금 크고 깃털도 등쪽에서 얼핏 보면 참새와 비슷하답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보면 주둥이가 눙고 목덜미와 가슴이 밝은 황색이며, 배는 흰색에 가까운 깃털이 아름다운 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새인 되새는 우리가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곳인 머리 캄차카 북쪽 러시아 들판에서 무리지어 살다가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아온답니다.



← 무리지어 있다.

특징

수컷:겨울깃-머리는 흐린 검은 흑색
여름깃-머리에 청색이 도는 짙은 흑색
암컷:겨울깃-수컷과 흡사
여름깃-머리는 엷은 회갈색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겨울이 되면 내장산의 모든 탐방로의 가로수에는 되새가 집단으로 날아다니거나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마치 참새 같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되새가 무리를 지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콩새(*Coccotbraustes cocctbraustes*)



stoRy 콩을 잘 먹는 새,'콩새'

콩새는 콩을 잘 먹어 콩새란 이름이 붙은 새입니다.
콩새는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해 콩콩 뛰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답니다.
새들은 부리 모양을 보면 곡식을 먹는지 벌레를 먹는지 알 수 있어요~ 콩새는 그럼 어떤 먹이를 먹을까? 부리를 보니 콩새는 곡식을 먹는 새랍니다.

특징

몸통이 우람하고 머리가 크다.
눈앞과 멱은 검고 얼굴은 담황색
'찌 찌 찌 찌' 하며 소리낸다.
둥지는 높은 가지위에 짓는다.
작은 무리를 이루며 생활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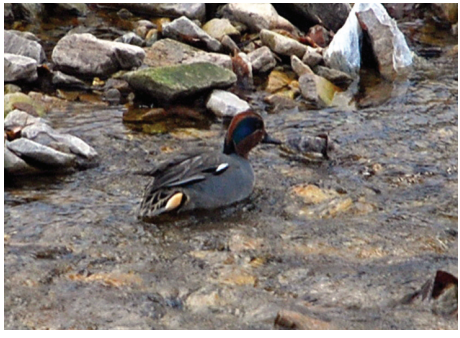
콩새는 겨울에 원적골자연관찰로를 걷나 종종 발견되는 새입니다.
몸의 색이 마치 낙엽과 비슷해서 콩새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콩새의 울음소리에 잘 귀귀울여보세요~
그러면 콩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에요^^

쇠오리(*Anas crecca*)

stoRy 오리는 왜 물에 젖지 않을까?

쇠오리 같은 오리들은 허리쪽에 있는 기름샘에서 부리에 기름을 묻혀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깃털에 꼼꼼히 발라주는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묻은 기름과 깃털의 특성 때문에 물속에서도 깃털이 젖지 않게 되는 것이요~

기름을 발라준 깃털 때문에 보온력 유지가 가능하여 40~41도 되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겨울이 되면 내장저수지에 많은 종류의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 쇠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따로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쇠오리는 다른 오리들 보단 크기가 매우 작아 쇠오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특징

오리류 중 가장 작다.
부리는 검고 홍채는 갈색
꼬리쪽 양면은 황색 깃털
꼬리깃 수는 16개
따로 무리를 이루며 생활



쇠오리 암컷 →

청둥오리(*Anas platyrbyncbos*)

stoRy 오리는 왜 뒤뚱거릴까?

오리는 다리가 짧고 몸의 뒤쪽에 붙어 있어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뒤뚱거리는 걸음이 특징입니다.

신체 특성상 뒷걸음질을 하지 못해 막다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에서 먹이를 구하는 습성 때문에 진화한 물갈퀴는 물 위에서의 이동이나 잠수를 쉽게 해주는 생존의 중요한 무기이기도 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겨울이 되면 내장저수지에 많은 종류의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데 청둥오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둥오리는 내장저수지에 찾아오는 겨울철새 중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머리와 목이 청록색의 수컷과 갈색의 암컷이 항상 같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수컷의 부리는 황록색, 끝은 검다.
암컷의 부리는 잿빛, 끝은 검다.
수컷:겨울깃-머리와 목이 청록색 광택
잡식성 조류이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겨울 철새

백할미새(*Motacilla lugens*)

story 겨울철새'백할미새'알고보니 텃새?

철새로 알려진 '백할미새'가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서식하는 텃새임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7월에 저동, 통구미,태하 지역에서 최서 4쌍의 백할미새가 번식하는 것이 관찰되어 울릉도에서 매년 규칙적으로 번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백할미새는 겨울철새로 전국에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연구로 인해 한국에는 텃새로 서식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백할미새는 겨울철새로서 강가나 호수가, 냇가 등에서 생활을 합니다.
내장저수지에서도 백할미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행인 점은 물가의 나무에 앉아 있어서 탐방로를 거닐다가도 백할미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겨울깃:이마는 흰색, 뒷머리는 수컷은 검은색, 암컷은 회색
검은색의 눈선이 특징
부리는 가늘고 길다.
'휘이, 쪼-휘이, 쪼-' 하고 운다.



흰목물떼새(*Charadrius placidus*)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2급

stoRy 물떼새떼의 기린아! 흰목물떼새

흰목물떼새는 우리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친구에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동물로 보호하고 있는 희귀한 새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나그네새라 우리나라에서는 잘 번식을 하지 않는답니다.
새들 중 특히 물떼새 종류는 알을 낳아 품으면서 적이 다가오면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다친 행동을 하며 알이 있는 곳을 적이 찾지 못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흰목물떼새는 나그네새로 봄과 가을철에 잠시 내장저수지에 머물다 가는 새입니다.
내장저수지에서 많이 관찰되어지고 특히 내장호자연학습시설에서 종종 발견이 된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흙색과 비슷해서 쉽게 관찰하긴 힘들어요^^

특징

이마는 흰색, 머리 부분은 검은색 가로띠
부리는 검고 아랫부리 기부는 황색
머리 상단과 뒷목은 회갈색
눈에는 흰색의 눈썹선, 눈앞에서 귀깃까지는 흑갈색

깝짝도요(*Actitis hypoleucos*)

stoRy 끊임없이 까닥까닥, 깝짝도요

깝짝도요란, 꼬리 부분을 까닥까닥 거리는 특이한 동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움직임은 거의 없답니다. 깝짝도요는 알을 낳은 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바로 천적이 나타나면 어미는 둥지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친 것처럼 행동하여 접근하는 천적을 새끼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는 모성애가 강한 새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깝짝도요는 2013년 1월에 관찰되었어요!
나그네새라 그런지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새랍니다.
내장저수지에서 관찰할 수 있고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새에요!
몸의 크기가 약 20cm 정도나 되지만 도요새들은 모습이 비슷해서 쉽게 구별하긴 어렵습니다.

특징

얼굴과 윗가슴은 흰색에 갈색의 세로무늬가 있다.
눈에는 흰색의 눈썹선이 있다.
가슴, 배, 옆구리, 아래꼬리덮깃은 흰색
'삐잇– 삐잇– 삐 삐 삐 쯔이– 쯔이–'하고 운다.
부리는 흑갈색, 다리는 황갈색

내장산의 양서 · 파충류



양서류

산개구리 / 참개구리 / 옴개구리 / 무당개구리 / 두꺼비
도롱뇽 /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

산개구리 / 참개구리 / 옴개구리 / 무당개구리 / 두꺼비
도롱뇽 / 꼬리치레도롱뇽

산개구리(*Rana dybowsk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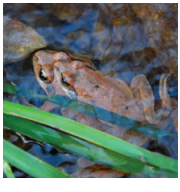
story 우리는 모두 산개구리야~!

우리나라에는 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가 있어요!
모두 산에 산다고 해서 산개구리입니다.
산개구리는 산골짜기에서 살아요~ 계곡물 속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가랑잎인지 산개구리인지 헷갈릴 정도랍니다.
몸은 밤색이고 눈 뒤에 검은 무늬가 있고 이른 봄에 '호로로롱, 호로로롱' 하고 시끄럽게 울어대요~
같은 산개구리인 계곡산개구리는 높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아무르산개구리는 산개구리보다 훨씬 작고 날씬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는 짝짓기 하고 있는 개구리와 알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짝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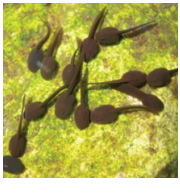
산개구리가 산골짜기 웅덩이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수컷이 암컷 등에 올라타서 가슴을 꽉 껴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몸집이 큽니다.

알



산개구리의 알은 막 낳았을 때는 조그만 덩어리인데, 물을 머금으면서 점점 커져, 알 덩어리가 축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올챙이



알에서 올챙이가 깨어나고 약 20일 지나면 뒷다리가 나와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앞다리도 나오지요~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짧아지며 개구리가 됩니다.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stoRy 꾸르륵 꾸르륵, 참개구리

참개구리는 너무 흔해요~ 논두렁을 걸어보세요~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드는 개구리는 거의 다 참개구리랍니다. 논에 많다고 해서 '논개구리' 라고도 해요!
주둥이에서 꽁무니까지 줄이 하나 쭉 나있다면 참개구랍니다.
개구리는 '개골개골' 운다고 하는데 참개구리는 '꾸르륵 꾸르륵' 하고 울어요~ 저녁때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왁자하게 울어대요. 양 볼에 있는 울음주머니가 불룩불룩 커졌다 쪼그라들었다 한답니다.

특징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
수컷과 암컷의 무늬가 다르다.
시끄러운 울음소리(꾸르륵 꾸르륵)
수컷에는 1쌍의 울음주머니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개구리는 흔해서 내장산국립공원의 계곡 근처와 주변의 논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매우 시끄러운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울음을 뚝 그쳐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한 마리가 울면 너도 나도 따라 울기 시작한답니다.

옴개구리(*Rana rugosa*)



stoRy 거무죽죽 우둘투둘!

옴개구리는 온 몸에 우둘투둘한 돌기가 나 있어요~ 몸은 짙은 밤색이나 잿빛이어서 언뜻 보면 두꺼비 새끼인 줄 안다니까요^^
폴짝폴짝 뛰뛰기도 잘하고 쭉쭉 긴 뒷다리를 뻗으면서 헤엄도 잘 쳐요~ 어지간해서는 물 밖으로도 잘 안 나온답니다.
옴개구리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조금씩 불룩거리면서 '촉 촉 촉' 하고 운답니다.

특징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없다.
피부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줄오염에 내성이 강하다.
두꺼비 종류와 같이 독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옴개구리는 차고 맑은 계곡에서도 살고 물속이 안 보이는 더러운 개골창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다른 개구리들과는 달리 어느 곳에서든 옴개구리를 만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옴개구리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지면 안되요!!!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stoRy 발긋발긋 알록달록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산골짜기에 많아요~
알록달록 화려해서 무당개구리라고 해요! 등은 풀색이고 우툴두툴하답니다.
배는 아주 빨갛고 검은 얼룩무늬가 있어요~ 건드리면 등에서 하얀 물이 나온답니다.
무당개구리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따갑고 아프니까 절대 만지면 안돼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봄이 되면 많은 종류의 개구리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무당개구리는 내장산의 원적계곡과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무당개구리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엽다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돼요!

특징

등은 짙은 풀색이고 검은 줄무늬
배는 붉고, 검은 무늬
등에는 오톨도톨한 작은 돌기
고막은 밖에서 안 보인다.

두꺼비 *(Bufo gargarizans)*

stoRy 꿈벅꿈벅 어슬렁 어슬렁

두꺼비는 덩치가 크고 온 몸이 우툴두툴해요~
다리는 굵고 짧답니다. 팔짝 팔짝 뛰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요! 누가 건드려도 꿈쩍도 안해요~
등에서 우윳빛 독이 흘러나와서 만질 때는 조심해야 한답니다. 밭에 사는 해충을 많이 잡아먹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잡지 않아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두꺼비는 비가 오고 난 후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걸음이 느려서 사람이 다가가도 쉽게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미쳐 땅을 보고 걷지 않으면 불쑥 두꺼비를 발견하여 놀라 자빠질 수 있어요^^

특징

몸빛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른데 잿빛 밤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온몸에는 자잘한 돌기가 나있다.
뒷발 물갈퀴는 짧다.

도롱뇽(*Hynobius leechii*)



story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도롱뇽은 낮에 돌이나 썩은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밤이 되면 나와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물에는 잘 안 들어가고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벌레나 거미를 잡아먹는답니다.
자기 입보다 큰 것은 못 잡아먹어요! 날이 추워지면 얼음장 밑에서 겨울잠을 자요!
도롱뇽을 이동할 때 몸을 이리저리 휘청대며 어기적 어기적 기어 다닌답니다.

특징

몸빛은 검은 밤색이거나 붉은 밤색
온몸에 검은 점이 자잘하다.
옆구리에 갈비뼈 줄이 13개
앞 발가락 네 개, 뒷 발가락 다섯 개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도롱뇽은 탐방안내소 앞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의 색이 밤색과 비슷하여 낙엽 사이나 흙 속으로 숨으면 쉽게 찾을 수 없답니다.
대신도롱뇽을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도롱뇽의 알은 쉽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heri*)



story 온몸이 알록달록한 꼬리치레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은 깊은 산 속 맑은 물에서 살아요~
낮에는 이끼 낀 돌 밑이나 눅눅한 가랑잎 밑에 숨어 있답니다.
밤이 되면 기어 나와 물속을 들락거리면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먹이를 보면 앞발로 잡고 입으로 덥석 물어요!
몸놀림이 느려서 여러 번 공격해야 먹이를 잡을 수 있답니다.
날이 추워지면 물가 돌 틈에 여러 마리가 모여 겨울잠을 자요!

특징

몸빛은 누런색, 노란 점이 꼬리 끝까지 여기저기 나 있다.
눈이 크고 툭 튀어나왔고 주둥이 끝은 둥글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꼬리치레도롱뇽은 맑은 물에서 살기 때문에 내장산의 금선계곡에 가야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낮에는 숨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

stoRy 무서운 독 이빨이 있는 살모사

살모사는 모두 독 이빨이 있어요! 먹이를 잡을 때 독 이빨로 재빨리 물어요~
먹잇감이 꼼짝 못하고 숨이 끊어지면 한 입에 삼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지만 잘못해서 건드리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물어요!
살모사에 물리면 얼른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살모사는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로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등산로에는 간혹 발견이 된답니다.
발견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살모사는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특징

머리는 세모꼴, 눈 뒤로 흰줄
혀는 검고 꼬리는 노랗다.
몸은 붉거나 검은 밤색
비늘에는 돌기가 나있다.

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stoRy 쌔~액 쌔~액 쇠살모사

쇠살모사는 산과 잇닿아 있는 밭이나 풀숲, 돌무더기에 살아요~ 들쥐나 개구리, 도마뱀을 잘 잡아먹습니다. 먹이를 잡을 때 독 이빨로 꽉 물어서 잡아요! 한 여름에 새끼를 예닐곱 마리 낳는데 갓 낳은 새끼는 작지만 어미와 똑같이 생겼어요.
새끼는 태어나면 어미 곁을 떠나 바로 흩어지는데 새끼도 독이 있으니까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쇠살모사는 가끔 원적골자연관찰로와 삼청공원에서 발견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보단 똬리를 트고 있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돌이나 바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쇠살모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된답니다.
독이 있어서 물리면 위험해요!

특징

살모사와 닮았지만 혀가 붉고 꼬리가 검다.
머리는 세모꼴, 몸빛은 붉은색
몸통 앞쪽에는 등근 무늬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가운데서 합쳐진다.

누룩뱀 (*Elaphe dione*)



stoRy 새알 도둑, 누룩뱀

누룩뱀은 몸 색깔이 술 담글 때 쓰는 누룩 빛깔이라고 누룩뱀이에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알을 잘 훔쳐 먹어요!
그래서 새알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하지만 독은 없어요!
구렁이가 살지 않는 제주도에서는 누룩뱀을 보고 구렁이라고 해요. 구렁이만큼 크거든요^^

특징

몸은 누르스름한 밤색
검은 밤색 줄무늬와 붉은 점무늬가 있다.
배는 누렇고 검은 점무늬가 있다.
사는 곳에 따라 크기와 무늬가 다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누룩뱀은 매우 흔한 뱀 중 하나에요~
가끔 탐방안내소 옆으로 자주 나타난답니다.
또는 삼청공원의 비자나무 근처에서 햇볕을 쬘 때도 있어요!
누룩뱀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누룩뱀은 독이 없고 매우 순한 뱀이랍니다.

대륙유혈목이 (*Amphiesma vibakari ruthveni*)



stoRy 몸에 기름을 바른 것 같은 대륙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는 몸에 다른 무늬가 없이 그냥 누런 흙빛이에요.
사는 곳에 따라 더 진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해요~
몸통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끈미끈해요~
유혈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유혈목이와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답니다.
우리나라 뱀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고, 독도 없고 성질도 순해서 위험하지 않아요^^

특징

다 자라면 크기가 50cm 정도이다.
몸은 온통 누런 흙빛이다.
혀는 검붉고 끝이 노랗다.
몸통은 아주 매끈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대륙유혈목이는 삼청공원에서 종종 출현해요. 깊은 산 속보단 풀밭을 좋아하는 뱀이에요~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잔디밭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근처에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만약 대륙유혈목이라면 우리를 보더라도 먼저 우리를 피할거에요^^

구렁이 (*Elaphe schrenckii*)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2급

story 돌담 위에 구무럭구무럭

구렁이는 뱀 가운데 가장 커요!
하지만 독은 없답니다. 곡식을 훔쳐 먹는 쥐를 많이 잡아먹어서 '복구렁이'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안 잡았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구렁이는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1급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뱀이 아니랍니다.
사찰근처나 돌담이 있는 곳에서 살긴 하겠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렁이는 평생가도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동물이에요!

특징

몸길이는 1m 정도, 큰 것은 2m
사는 곳에 따라 몸빛이 다르다.
보통 등 쪽은 누르스름한 밤색
꼬리 쪽으로 갈수록 무늬가 진하다.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s*)

story 뱀 잡아먹는 뱀

능구렁이는 논둑이나 밭둑에 쌓아 놓은 돌무더기에 많아요!
온몸이 붉고 매끈해요.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성질은 매우 사나운 뱀입니다. 뱀들이 잘 안 먹는 두꺼비도 먹고 심지어 다른 뱀까지도 잡아먹어요!
하지만 독은 없어요!
추위를 잘 타서 가장 먼저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능구렁이는 내장산의 계곡 가 근처에서 가끔 관찰이 되요!
붉은 빛을 띤 능구렁이는 마치 독이 있는 뱀처럼 보여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독이 없답니다.
하지만 매우 사나운 뱀이에요. 능구렁이를 만난다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먼 곳에서 관찰하세요!

특징

몸이 빨갛고 검은 띠무늬가 있다.
몸통 옆에는 가만 얼룩무늬가 있다.
몸통 비늘은 미끈하다.
머리 위에도 검은 점이 나 있다.

도마뱀 (*Leiolopisma laterale*)



stoRy 온몸이 반질반질한 도마뱀

도마뱀은 누런 밤색이에요~
온몸이 반질반질하다고 '미끈도마뱀' 이라고도 해요~
배를 땅에 대고 꿈틀꿈틀 기어 다녀요~
네 다리는 가늘고 보잘 것 없어요~
낮에는 썩은 나무 밑이나 돌무더기 속에 숨어 있어요!
밤이 되면 나와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특징

몸은 누런 밤색이고 미끈하다.
몸통 옆으로 검은 밤색 띠가 있다.
눈에 눈꺼풀이 있다.
입에는 자잘한 이빨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도마뱀은 크기가 매우 작아요!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보통 이끼 속이나 잔디밭 안에서 생활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장산국립공원에 도마뱀이 살고 있답니다.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stoRy 꼬리를 툭 끊고 도망가는 아무르장지뱀

아무르장지뱀은 뱀이나 새 같은 천적을 만나서 위험하다 싶으면 스스로 자기 꼬리를 끊어요! 끊긴 꼬리는 동그랗게 말리면서 한동안 꿈틀꿈틀 댑니다. 천적이 꿈틀대는 꼬리를 보고 어리둥절할 때를 틈타서 달아나요! 한 번 꼬리가 끊어지면 다시 나오지만 두 번째 끊어지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르장지뱀뿐만 아니라 도마뱀, 장지뱀 무리 모두 꼬리를 끊어요 ^^

특징

몸은 밤색인데 몸통 옆에 진한 밤색이나 검은 띠가 있다.
혀는 길고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넓적다리에 작은 혹이 세 쌍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아무르장지뱀은 흔해요~
삼청공원에서 도마뱀처럼 생긴 아무르장지뱀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가끔 탐방안내소 근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무척 빨라요!
가까이 가서 관찰하려고만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먼 곳에서 관찰해야 한답니다.

줄장지뱀(*Takydromus wolteri*)

stoRy 흰 줄이 길게 나 있는 줄장지뱀

줄장지뱀은 고리가 몸통보다 두 배 넘게 길어요~
아무르장지뱀과 닮았는데 옆구리에 하얗거나 누런 줄이 길게 나 있으면 줄장지뱀이랍니다.
줄장지뱀은 거미나 메뚜기, 귀뚜라미를 잘 잡아먹어요~
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해 자기 입보다 큰 것은 먹지 못해요!
먹이를 먹을 때에는 통째로 삼기지 않고 몇 번 씹어서 넘깁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줄장지뱀은 내장산에서 매우 흔한 장지뱀 중 하나에요!
삼청공원의 잔디밭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풀숲에 있으면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귀엽다고 만지거나 하면 안돼요! 꼬리를 끊고 도망가거든요^^

특징

꼬리 길이는 몸길이 2.5배
몸빛은 누런 밤색, 배 옆으로 누런 줄
넓적다리 안쪽에는 작은 혹 한 쌍
발가락은 길고 발톱이 있다.

자라(*Trionyx sinensis*)

stoRy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 자라

자라는 남생이와 달리 등딱지가 부드러운 살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목을 길게 뺄 수도 있고 등딱지 속으로 쏙 집어넣어서 숨길 수도 있어요~
움츠러든 자라를 잘못 건드리면 목을 눈 깜짝할 사이에 쭉 내뻗어 문답니다.
이는 없지만 턱 힘이 아주 세서 물리면 매우 위험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자라는 햇볕이 강한 날에 관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화정과 내장사의 연못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자라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귀여운 모습의 자라여서 만지고 싶겠지만 참으세요!
자라에게 물리면 병원에 가야할지 몰라요^^

특징

몸빛이 밤색이거나 풀색
등딱지는 부드러운 살가죽으로 덮여 있다.
주둥이는 뾰족, 끈에 긴 콧구멍
목은 길고, 등딱지 속에 넣을 수 있다.

내장산의 곤충


광대노린재 약충


고추좀잠자리


유지매미


비단벌레


장수풍뎅이


남색초원하늘소


큰줄흰나비

잠자리과	검은물잠자리 외 9종
노린재과	광대노린재 외 5종
매미과	유지매미 외 3종
나비목	암검은표범나비 외 15종
풍뎅이과	등얼룩풍뎅이 외 3종
기타	비단벌레 외 11종

검은물잠자리(*Calopteryx atrata*)



stoRy 나는 모양새가 다른 잠자리와 다른..

검은물잠자리는 나는 모양새가 보통 잠자리와는 다르고, 색깔 또한 제비나비처럼 푸른 검은빛, 초록 검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검은물잠자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검은빛에 날개를 접었다 올렸다 하는 모습에 푹 빠져 버리고 말죠!
특히 검은물잠자리는 전국에 걸쳐 수생물이 풍부한 주변의 하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검은물잠자리는 이름 그대로 계곡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멀리서 관찰해야 해요~
검고 긴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답니다.

특징

암수 모두 날개의 가두리 무늬
성충은 5~10월에 볼 수 있다.
짝짓기 후 암컷은 알을 혼자 낳는다.
남부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깃동잠자리(*Sympetrum infuscatum*)



stoRy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깃동잠자리

깃동잠자리는 앞 뒤 날개의 양 끝에 모두 4개의 짙은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미성숙일 때의 몸 색상은 등황색 바탕에 흑색 무늬가 선명하지만 성숙해 지면서 암수 모두 몸 전체가 적갈색으로 변하고 배마디의 얼룩무늬는 선명하지 않게 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깃동잠자리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여름과 가을에 많은 잠자리 중 어떻게 깃동잠자리를 구별할까요? 깃동잠자리는 날개의 양 끝에 모두 4개의 짙은 무늬가 있어요!
특징을 생각하며 깃동잠자리를 찾아보세요~

특징

몸빛이 밤색이거나 풀색
등딱지는 부드러운 살가죽으로 덮여 있다.
주둥이는 뾰족, 끈에 긴 콧구멍
목은 길고, 등딱지 속에 넣을 수 있다.

고추좀잠자리 (*Sympetrum depressiusculum*)



stoRy 수컷 꼬리만 빨간 '진짜 가을 전령사'

새빨갛게 익은 고추랑 똑같이 생긴 고추잠자리,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고추잠자리의 정확한 이름은 고추좀잠자리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한 풀 꺾이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늦은 가을까지 만날 수 있어요~

고추잠자리와 고추좀잠자리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고추잠자리는 온 몸이 빨간색이지만 고추좀잠자리는 꼬리만 빨간색이에요~!



← 고추좀잠자리 암컷

특징

6월부터 우화를 시작
잠자리 중 가장 많다.
대표적인 산지이동형 잠자리
학명 적용과 분류에 혼란이 있는 종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추좀잠자리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발견이 되요~

내장산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많은 수의 잠자리거든요!

탐방을 하며 발견하는 잠자리는 거의 고추좀잠자리랍니다.

담색물잠자리 (*Mnais pruinosa*)



stoRy 담색물잠자리의 진실

담색물잠자리는 1933년 일본학자 Dol가 제주도 채집 표본(김병하, 1982년 7월)으로 최초 기록한 종으로 그 이 후 관찰되지 않고 있는 종이래요~

날개에 연문이 없는 물잠자리과의 수컷과는 달리 이 담색물잠자리는 주황색의 연문이 있어요!

내장산에서 발견된 담색물잠자리도 사실 다른 종일지도 모르겠어요^^

특징

날개는 투명, 여러 가지 색이다.
가두리무늬는 암수 모두 홍색, 짧다.
산물잠자리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수생식물 조직 내 단독산란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담색물잠자리는 검은물잠자리와 마찬가지로 계곡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물잠자리의 특징인지는 모르지만 위험을 빨리 감지합니다.

멀리서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해 보세요~

된장잠자리(*Pantala flavescens*)



stoRy 바다를 건너도 둘 된장잠자리

들과 산은 물론 도심의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잠자리들이 바로 된장잠자리인데 주 서식지가 적도와 열대지방이며 태평양 등 해양을 건너 이동하는 잠자리로 유명해요~

체형에 비해서 뒷날개가 매우 크고 몸은 크기에 비해 매우 가볍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월 하순경부터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된장잠자리는 봄에서 여름까지 관찰할 수 있고 모든 탐방로에서 발견됩니다.

장시간 비행이 특징이라 나뭇가지나 꽃에 앉아 있는 모습보단 날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특징

가슴 속에 공기를 보관하는 기관이 넓다.
장시간 비행에 유리한 체형
추위에 매우 약하다.

두점박이좀잠자리(*Sympetrum eroticum*)



stoRy 내 얼굴 좀 봐봐

두점박이라고 하는 뜻은 얼굴에 점 2개가 박혀 있다는 뜻인데, 얼굴에 점이 있는 몇 몇 잠자리들 중 두점박이좀잠자리는 암수 모두 진한 점이 2개가 있어요~

6월이 되면 하천이나 연못, 저수지 등 다양한 곳에서 관찰이 되는데 환경선택의 폭이 넓은 종이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두점박이좀잠자리는 모든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얼굴의 이마 부분에 두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다른 잠자리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에요!

두점박이좀잠자리를 찾아서 정말로 얼굴에 두 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특징

얼굴의 이마 부위에 흑색 두점이 뚜렷
수컷의 혼인색 : 배가 빨갛다.
짝짓기가 끝나면 진흙, 모래에 산란
대부분 생태환경에 잘 적응한다.

등줄실잠자리(*Paracercion hieroglyphicum*)



stoRy 수생식물을 너무나 좋아하는 잠자리

등줄실잠자리는 연못과 저수지 및 수생식물이 풍부한 정수성 유역에서 관찰이 되고, 많은 개체가 관찰이 됩니다.
5월 중순부터 우화를 하며 9월경에 관찰되는 종은 크기가 확연히 작아 1년 2회(1년 2세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연못 주위의 풀숲에 모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수면 근처의 수생식물 주위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섭식활동을 합니다.

특징

수생식물이 풍부한 정수성 유역에서 관찰된다.
수생식물 주위에서 세력권을 형성, 섭식활동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등줄실잠자리는 수생식물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잠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사랑길 계곡 근처와 삼청공원 계곡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잠자리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야 해요!

쇠측범잠자리(*Davidius lunatus*)



stoRy 시냇가에 쇠측범잠자리

아니? 계곡에 얼음이 아직 남아 있는데 웬 잠자리야?"
쇠측범잠자리는 4월 하순에서 5월초에 걸쳐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에서 우화하고 6월이 되면 거의 산란을 마치고 7월경부터는 보이지 않게 되요!
이 알들은 곧 부화를 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종령 유충으로 성장하여 월동을 한 후 4월부터 우화를 한답니다.

특징

전국 하천 상류역에서 조기 출현 종
유충은 특히 1급수에서 서식
5~6월 초까지 짝짓기, 6월 중순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쇠측범잠자리는 매우 청정지역에서 살아가는 잠자리에요~
내장산에서는 금선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충은 1급수에서 서식하므로 수서생태계의 지표 곤충이기도 해요 ^^

아시아실잠자리 *(Ischnura asiatica)*



stoRy 암컷의 변신!!

아시아실잠자리의 암컷처럼 미성숙이었을 때 빨간색이었다가 성숙하면 전혀 다른 색인 녹색으로 변신을 하는 잠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후리가 흔히 보는 빨간색의 고추잠자리도 미성숙이었을 때는 연한 갈색이었다가 성숙하면 빨간색의 혼인색 으로 치장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실잠자리아목은 암컷이, 잠자리아목은 수컷들이 색 변이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아시아실잠자리는 계곡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실잠자리들 중 가장 작은 잠자리이므로 풀 속에 있으면 찾기 힘들어요!

아시아실잠자리를 관찰하고 싶다면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특징

봄에 일찍 우화하는 실잠자리
소형 실잠자리이다.
짝짓기 후 암컷은 단독 산란
1년에 2회 정도 발생한다.

여름좀잠자리 *(Sympetrum darwinianum)*



stoRy 여름에 보인다 해서 여름좀잠자리!

여름좀잠자리는 주로 여름에 관찰되어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화한 미성숙 개체는 고추좀잠자리처럼 주변의 산지로 이동하여 전생식기를 보냅니다. 이 후 가을이 되면 고추좀잠자리 무리들과 섞여 평지를 날아다니는데 어느 지역이나 관찰되지만 개체수는 적은 편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여름좀잠자리는 여름에 가장 많이 보이는 잠자리 중 하나에요! 언뜻 보면 고추좀잠자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옆가슴선을 보고 구별해야 한답니다.

고추잠자리처럼 몸 전체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며 관찰해 보세요.

특징

주로 여름에 관찰된다.
굵은 옆가슴선이 다리 쪽에서 날개방향 약 2/3 지점까지 나있다.
타공산란을 한다.

광대노린재(*Poecilocoris lewisi*)



stoRy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광대노린재

광대노린재는 화려한 색깔이 특징이에요~
몸의 등면은 아름다운 금속 광택이 나는 황록색 바탕에 주황색 줄무늬가 있어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광대노린재는 몸 안에 강한 신맛이 나는 유독물질을 저장해요~ 그래서 죽을 때도 냄새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몸 안에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을 잡아먹은 새 등의 포식자는 이 신맛에 크게 놀라 다음부터는 이들을 피한다고 해요!



← 광대노린재 유충

특징

등면은 금속 광택이 난다.
초식성 곤충
낙엽 밑에서 유충으로 월동
유독물질을 저장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광대노린재는 유충인채로 월동을 하는데 탐방로를 걷다 월동하기 전의 유충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유충은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흰 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성충은 5~7월에 내장산국립공원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답니다.

에사키뿔노린재(*Sastragala esakii*)



stoRy 모성애가 강한 에사키뿔노린재

누가 사람만 모성애가 있다고 했을까요?
새끼를 돌보는 몇 안되는 곤충 중 하나인 에사키뿔노린재가 모성애가 강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암컷은 모성애가 강해 알과 부화한 새끼들을 곁에서 돌보는데 몸으로 알과 애벌레를 감싸고 거미나 육식곤충에게서 지켜준답니다. 암컷은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대요~

특징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크다.
하트무늬가 매력포인트
모성애가 강한 곤충
안갖춘탈바꿈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로에 있는 층층나무나 말채나무의 잎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어요!
에사키뿔노린재는 우리가 아무리 노린재의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등에 있는 하트 무늬를 발견한다면 쉽게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을거에요^^

넓적배허리노린재(*Homoeocerus dilatatus*)

stoRy 콩과 식물을 좋아하는 노린재

앞날개 중앙 양쪽에 검은색 점이 한쌍 있으며 개체에 따라 진하고 옅은 차이가 심해요~
칡이나 콩 등에 관과 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답니다.
넓적배허리노린재를 관찰하고 싶다면 콩과 식물을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넓적배허리노린재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많은 노린재들을 관찰하며 쉽게 동정하기가 어렵지만 관심있게 관찰하다 보면 각 각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징

몸 빛은 누런 갈색이다.
더듬이는 붉은 색이다.
딱지날개에 검은 점이 있다.
콩과 식물의 해충이다.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stoRy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의 몸 빛깔은 어두운 갈색에 황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여기 저기 있어요!
개체에 따라서 적갈색이나 자록색의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답니다.
머리는 길고 앞 쪽으로 튀어나왔고, 더듬이는 5마디로 가늘고 검은색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썩덩나무노린재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특히 삼청공원에서 자주 발견 되요~
봄에서 가을까지 많은 노린재들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징

썩덩나무에서 채집된다.
어린열매에 주둥이를 꼽고 즙을 빨아 먹는다.
머리는 길고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우리가시허리노린재(*Cletus schmidti*)



stoRy 몸에 가시가 있는 노린재

우리가시허리노린재의 몸은 진한 갈색이고, 양쪽 어깨 부분이 가시처럼 뾰족해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시허리노린재입니다.
애벌레와 어른벌레 모두 화본과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며, 벼 · 보리 등의 식량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에요! 특히 벼에 반점미를 유발시켜 품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유익한 곤충은 아닙니다.

특징

더듬이는 갈색이다.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다.
앞가슴등판은 양 옆이 바늘 끝처럼 날카롭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우리가시허리노린재는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여름에 관찰을 한다면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일까요?

긴가위뿔노린재(*Acanthosomalabiduroides*)



stoRy 풀색과 같아 눈에 잘 안 띄어요!

긴가위뿔노린재의 몸길이는 약 17~19㎜로 몸의 등 면은 청록색 또는 선명한 초록색으로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검은 점각이 산재합니다.
앞 등의 양쪽은 붉은색이며, 암 · 수간 체형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다형현상을 가져 수컷의 배 끝에는 붉은색의 생식마디가 가위 모양으로 뒤까지 뻗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긴가위뿔노린재랍니다.

특징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노린재
앞가슴등판 양옆이 뾰족하다.
몸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이다.
수컷의 생식기가 배 끝으로 나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긴가위뿔노린재는 삼청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워낙 몸의 색이 초록색이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뭇잎에 붙어 있으면 쉽게 지나쳐 버리기 일쑤니까요~
긴가위뿔노린재를 관찰하고 싶다면 눈을 크게 떠야겠죠?

소요산매미 (*Leptosemia takanonis*)

stoRy 소요산에서 발견된 매미

소요산매미는 도시의 인가 부근에서는 서식하지 않으며 시골의 평지나 해발고도 600m 정도까지의 산지에 주로 서식해요. 낮은 나무에서 주로 우는데, 울음소리는 "지-잉 맹! 지-잉 맹! 지-잉 맹!"하고 한동안 울다가 노래가 끝날 때가 되면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타카 타카 타카" 하면서 노래를 그친답니다.
한국의 소요산에서 채집되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소요산매미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고, 내장산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매미 중 하나에요~
매미들마다 울음소리가 다른 데 매미를 관찰하며 울음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관찰해 보세요!

특징

머리와 가슴은 녹색이다.
이마에 Y자 모양이 있다.
수컷이 암컷보다 배가 길다.
수컷의 배 아래쪽은 반투명

유지매미 (*Graptopsaltria nigrofuscata*)

stoRy '지글지글지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유지매미는 저녁이 되면 활동이 활발해지며 한두 번 울다가 날아가고 또 한두 번 울다가 날아가는 것을 반복해요. 인가 근처에도 가까이 오지만 어두워지면 울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는 "지글지글지글"하고 톤이 굵은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점점 빨라지고 높아지다가 더 높아질 수 없을 때는 천천히 낮아지면서 사라져요. 울음이 그친 다음에는 "딱 따그르르르... 딱 따그르르르..."하는 소리를 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유지매미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다른 매미들보다 꽤 큰 편이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미들의 날개는 반투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지매미의 날개는 갈색이에요! 다른 매미들과 함께 관찰하며 비교해 보세요!

특징

몸의 빛깔은 대체적으로 검은색
이마에 두 개의 삼각형 무늬
이마에는 광택이 있다.
홑눈은 홍색, 겹눈은 갈색

참매미 *(Oncotympana fuscata)*



stoRy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매미

참매미는 뽕나무 · 오동나무 · 벚나무 · 감나무 · 배나무 등에 기생하며 수액을 빨아먹어요! 날아다니는 시간보다는 굵은 나뭇가지나 줄기에 앉아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울음소리는 "끄-" 또는 "지-"하는 소리로 시작해 충분히 소리가 커지면 "밈 밈 밈 밈...미-"하고 몇 번 반복해 울다가 "밈..."하면서 울음을 그쳐요. 울 때는 날개를 약간 벌리고 배를 위로 올리면서 소리를 내고 울음을 그치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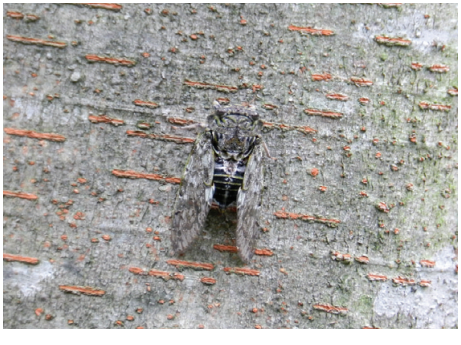
특징

몸이 윗 면은 검은색 바탕
몸의 아랫 면은 연한 녹색
배는 검은색, 은색의 가는 털
암컷은 날카로운 산란관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참매미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다른 매미들과는 겁이 없는지 가까이 다가가도 금방 도망가지는 않아요 ~
참매미를 가까이서 관찰해 보세요!

털매미 *(Platypleura kaempferi)*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털매미는 흔한 매미입니다.
다른 매미들과 함께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고 몸에 털이 있어서 털매미인데 관찰을 하며 털매미의 몸에 털이 있는지 찾아 보세요!

stoRy 털매미의 우화과정



특징

매미과 중 작은 편에 속한다.
몸통 전체에 짧은 털이 있다.
머리는 초록색을 띤 황갈색
울음소리는 "찌-" 또는 "쓰-"

네발나비 (*Polygonia c-aureum*)

stoRy 눈알 무늬를 가진 네발나비

네발나비라는 이름은 앞다리 한 쌍이 매우 작거나 퇴화하여 다리가 네 개만 있는 것 같아 붙은 것입니다.
눈알 무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작은 새의 천적이 뱀과 올빼미를 연상시켜서 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발나비의 애벌레는 환삼덩굴을 먹이로 삼으며, 그곳에 집을 지어 생활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네발나비는 매우 흔한 나비에요~
탐방로를 거닐며 만나는 나비들 중 네발나비가 가장 많습니다.
나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요!
쉽게 도망가거든요~

특징

한반도에 광역분포한다.
개체수는 매우 많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암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먹그늘나비 (*Lethe diana*)

stoRy 숲을 좋아하는 나비

먹그늘나비는 산지의 그늘 진 숲에서 만날 수 있어요!
조릿대가 많은 숲이나 근처를 낮게 날아다닙니다.
나무진이나 꽃의 꿀을 먹으며, 젖은 땅에서 물을 빨기도 한답니다. 그늘지고 흐린 날씨를 좋아하지만 잠깐씩 볕을 쬐기도 합니다.
그늘나비 종류 가운데서 가장 검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먹그늘나비는 삼청공원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나비입니다. 갈색빛을 띠며 날아다니는 먹그늘나비는 날개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눈알 무늬가 있어요!
아마도 천적에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텐데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특징

날개는 흑갈색이다.
뒷날개는 바깥선두리를 따라 6개의 고리 무늬가 있다.
전국에 걸쳐 흔한 나비이다.

모시나비 *(Parnassius stubbendorfii)*



story 개가 모시처럼 생긴 나비

날개가 모시처럼 반투명해서 모시나비라고 불린답니다.
수컷이 짝짓기를 마치고 나면 암컷에게 수태낭이 달리는데, 짝짓기가 끝나면 분비물을 뭍혀 이것이 차츰 굳어져서 수태낭이 만들어져요~
수컷은 배 밑으로 털이 아주 많이 수북합니다.
암컷은 이에 비해 배 밑에 털이 적고 노란 무늬가 보여요!

특징

맑은 날 풀밭 위를 낮게 난다.
암컷에게 수태낭이 생기면 다시 교미하지 않는다.
월동은 알로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모시나비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발견하는 모시나비는 수컷인데, 수컷은 배에 잔털이 있고, 암컷은 없어요!
비교해보면서 관찰해 보세요~

산네발나비 *(Polygonia c-album)*



story 꿀을 무척 좋아하는 산네발나비

산네발나비는 주로 계곡의 습지와 숲길이 가장자리에서 발견이 되요! 수컷은 물가에서 물을 빠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오후 해질 무렵까지 나무 위를 빠르게 날면서 점유행동을 하는데, 이 때 청띠신선나비와 함께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벌통의 꿀 냄새에 유인되어 모이기도 한답니다.

특징

산지성 나비이다.
계곡의 습지와 숲길에 많다.
네발나비와 형태가 비슷하다.
수컷은 물가에서 물을 빠는 일이 많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네발나비는 네발나비와 마찬가지로 계곡 근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 계곡의 물 위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물을 빨고 있는 산네발나비는 수컷이랍니다.

유리창나비 *(Dilipa fenestra)*



story 날개가 유리창을 닮은 나비

이른 봄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유리창나비는 앞날개의 끝 부분에 투명한 막질이 유리창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 초입의 계곡 주변에서 오전에 물을 마시는 모습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유리창나비는 아침 햇살에 황금빛 날개가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유리창나비는 삼청공원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유는 유리창나비는 단풍나무의 즙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른 봄에 단풍나무 근처에서 유리창나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이른 봄에 출현한다.
월동은 번데기로 한다.
암수 모두 단풍나무 즙을 빤다.
수컷은 황색, 암컷은 흑갈색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Maculinea arionides)*



story 개미와 공생관계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는 활엽수가 많은 해발 800m 이상의 높은 산지의 계곡과 숲 사이에 삽니다. 낮은 풀 위를 낮게 날아다니며 각종 꽃에서 꿀을 빠는데,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4령 애벌레 때 개미집으로 운반되어 개미의 애벌레나 번데기를 먹고 자라며, 자기 몸 등 쪽의 꿀샘에서 나오는 꿀을 개미들에게 제공하는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는 관찰로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어요! 해발 800m 이상의 높은 곳을 선호하는 나비이기에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를 관찰하고 싶다면 산을 올라 정상에 가야 한답니다.

특징

활엽수가 많은 해발 800m 이상 높은 산지에 계곡과 숲에 산다.
습지에는 모이지 않는다.
개미와 공생관계이다.

뿔나비 *(Libythea celtis)*



stoRy 뿔나비의 독특한 외모

많은 나비들이 그러하지만 뿔나비도 날개 안팎이 몹시 다른 녀석이에요~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뿔나비는 정말 멋대가리 없어 보일 정도랍니다.
하지만 날개를 편 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간결하면서도 독특한 무늬와 색감이 멋스러워요!
뿔처럼 길게 튀어나와 입처럼 보이는 것은 아랫입술 수염입니다. 그래서 뿔나비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특징

길 가 습지에서 떼지어 물을 먹는다.
여름에는 썩은 과일, 동물 사체에 잘 모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뿔나비는 봄이 되면 탐방로를 걷지 않아도 탐방안내소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수의 뿔나비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랍니다. 뿔나비는 서로 모여 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일제히 날아오르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암검은표범나비 *(Damora sagana)*



stoRy 암검은표범나비 이야기

암검은표범나비의 수컷은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개망초, 산초나무, 엉겅퀴 등의 꽃에서 꿀을 빨고 습지에서 물을 먹어요!
암컷은 날개색이 흑갈색인데, 이것은 의태 현상으로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특징

평지나 낮은 산지에 산다.
비교적 남부지방에 많다.
수컷은 빠르게 날아다닌다.
암컷의 날개는 흑갈색, 이것은 의태현상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암검은표범나비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표범 무늬가 보이는 나비를 발견했다면 암검은표범나비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큰줄흰나비(*Pieris melete*)



stoRy 배추흰나비 아니에요!

큰줄흰나비의 날개는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랫면은 윗면과 달리 옅게 노란색기가 나타나요~
암컷은 검은 비늘가루가 많고, 수컷에게는 향기나는 비늘가루가 있답니다.
미나리냉이, 꿀풀, 큰까치수영, 민들레 등의 꽃에서 꿀을 빨며 살아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줄흰나비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의 계곡 근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숲에서 "배추흰나비다!" 라고 외치면서 관찰하는 나비가 바로 큰줄흰나비랍니다.

특징

습지에서 물을 자주 빤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다.
낮은 산지에서 발견된다.
줄흰나비와 형태상 유사하다.



큰줄흰나비 암컷 →

큰주홍부전나비(*Lycaena dispar*)



stoRy 일본에는 없었던 나비

큰주홍부전나비는 중부지방 이북으로 서식을 하는 나비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강가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나비입니다.
큰주홍부전나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나비를 조사하던 일본인 학자가 이 나비가 너무 예뻐서 큰주홍부전나비의 알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부화시켜 일본에 없던 나비가 생겨나게 된 일화가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큰주홍부전나비는 숲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숲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큰주홍부전나비는 내장호자연학습시설에서 쉬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전에 큰주홍부전나비는 일광욕을 즐기기 때문에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징

주로 강둑이나 논밭 근처에 산다.
수컷은 오전에 풀잎 위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점유행동을 한다.
월동은 애벌레로 한다.

먹세줄흰가지나방(*Myrteta angelica*)



stoRy 나비처럼 예쁜 먹세줄흰가지나방

주변 산이 있는 숲에서 가을이면 만나게 되는 예쁜 날개의 먹세줄흰가지나방이 있어요! 앞날개에는 갈색의 굵고 비스듬한 세로줄 무늬가 3개 있어서 쉽게 구별되는데, 어른벌레는 늦은 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철에 이르기까지 때죽나무와 쪽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특징

전국에 분포한다.
낮에 활동한다.
몸과 날개는 백색이다.
더듬이는 수컷은 빗살모양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먹세줄흰가지나방은 다른 나방들과는 달리 낮에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가을이 되면서 쑥부쟁이가 있는 곳에는 먹세줄흰가지나방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붉은뒷날개나방(*Catocala dula*)



stoRy 비행할 때 눈에 잘 띄는 나방

붉은뒷날개나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뒷날개 부분에 붉은 색이 있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특히 앉아 있을 때는 앞날개의 색깔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나 비행할 때 붉은색의 뒷날개가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답니다.

특징

전국에 산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성충은 7~9월에 출현한다.
뒷날개가 붉은색이 있다.
중국 북부, 일본에도 분포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붉은뒷날개나방은 몸의 색이 짙은 갈색이어서 나무에 앉아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내장산에 많은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붉은뒷날개나방은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나방이랍니다.

연노랑제비가지나방(*Ourapteryx nivea*)



stoRy 노란색이 없는데! 이름에 연노랑?

연노랑제비가지나방은 매우 흔한 나비 중 하나에요~
몸과 날개는 백색이고, 이마는 암갈색입니다.
날개의 외연부는 다소 노란 기가 있는 아마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나봅니다. 뒷날개의 꼬리 모양 돌기 가까이에는 흑색으로 테 지어진 2개의 빨간색 무늬가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연노랑제비가지나방은 숲에서 발견되어 지는데, 높이 날아다니기 보단 낮은 지역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흰색이라 나비라고 착각할 지도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더듬이 모양이 다르거든요~

특징

날개가 암컷이 수컷보다 길다.
더듬이는 수컷이 미모상
몸에는 전처젝으로 털이 있다.
갖춘탈바꿈을 한다.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Actias gnoma*)



stoRy 팅커벨이라고 불리 우는 나방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은 날개의 길이가 7~9cm 나되어 팅커벨이라고도 불리 웁니다.
알은 갈색이고, 유충은 적색에 초록색이 됩니다.
성충의 날개는 옥색을 띠고 있어서 옥색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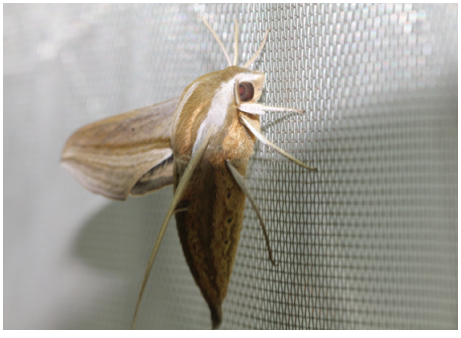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은 숲에서 만날 수 있어요!
가끔 탐방안내소 근처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크기가 약 7~9cm 정도로 꽤 큰 편입니다.
아마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을 발견하면 깜짝 놀랄거에요!

특징

전국에 분포한다.
암수 다 같이 날개꼬리가 길다.
알은 갈색, 유충은 적색에서 초록색
날개색은 옥색이다.

줄박각시(*Theretra japonica*)



stoRy 새도 아닌, 나비도 아닌 줄박각시

줄박각시는 머리와 가슴의 가장자리가 회백색인데, 가슴에는 등화색의 세로줄이 2줄 있어요! 앞날개의 바탕색은 황갈색이며, 뒷가두리의 중앙부는 가느다란 백색입니다. 날개 꼭지에서 뒷가두리를 향하여 6색의 경사진 암색선이 6줄 있는데 이 중 안쪽의 1줄이 제일 굵고 가로맥 위에는 조그마한 흑점이 있답니다.

특징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성충은 5~8월에 출현한다.
앞날개 끝에서 후연으로 6개의 암색 사선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줄박각시는 낮보단 오후 늦게 관찰하기 쉽습니다.
보통 숲보단 화장실의 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나방들과 모습이 달라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태극나방(*Spirama retorta*)



stoRy 최초의 나비 우표에 등장한 나방

1954년 우리나라의 우정사에서 곤충이 등장한 최초의 우표가 바로 태극나방이었어요!
태극나방아의 태극무늬를 정서가 다른 북한에서는 뱀눈으로 보고 '뱀눈밤나방', 일본에서는 소용돌이로 보고 '오스구로토모에' 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특징

암수의 앞뒷날개의 무늬가 다른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약간 크다.
앞날개에는 태극무늬가 선명
유충은 자귀나무의 잎을 먹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태극나방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유충이 자귀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봄에는 자귀나무 근처에서 유충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날개에 태극무늬가 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등얼룩풍뎅이 *(Blitopertha orientalis)*

stoRy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풍뎅이

등얼룩풍뎅이는 주로 골프장에서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유충이 뿌리를 갉아 먹으며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곤충이랍니다.
굳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디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생활하는 풍뎅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등얼국풍뎅이는 작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삼청공원에서 단풍나무 근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이긴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이에요!

특징

6~7월에 가장 많다.
주로 활엽수의 잎을 먹는다.
농작물의 해충이기도 하다.
몸은 약하게 광택이 있다.

사슴풍뎅이 *(Dicranocephalus adamsi)*

stoRy 사슴뿔을 가진 풍뎅이

사슴풍뎅이는 머리는 검은색이고 겹눈 언저리를 따라서 회백색 얼룩무늬가 있어요! 수컷은 머리 앞쪽에 1쌍의 사슴뿔 모양의 돌기가 있고, 그 끝은 강하게 위쪽으로 구부러졌어요!
또 수컷은 앞다리의 발목마디가 특히 길지만 암컷은 돌기도 없고, 발목마미도 더 길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사슴풍뎅이는 마치 장수풍뎅이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색이 달라요~
뿔이 있어서 전투용으로 사용할 것 같지만, 전투시에는 긴 앞다리로 싸움을 한답니다.

특징

사슴풍뎅이속에 딸린 꽃무지다.
꽃무지아과 중 유일하게 뿔이 있다.
뿔의 용도는 장수풍뎅이와 같다.
함컷은 뿔이 없고 검은색이다.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



stoRy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

장수풍뎅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풍뎅이 종류 중 가장 몸집이 크고 잘 알려진 곤충이에요~
수컷의 머리에는 긴 뿔이 나있고 가슴 등판에도 뿔이 있는데, 장수풍뎅이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계적으로 약 2,000종이 있어요!
숲 속의 참나무에서 주로 발견되며 오래 된 나무에서 흐르는 진을 빨아 먹고 산답니다.

특징

우리나라 풍뎅이 중 가장 크다.
수컷의 머리에는 뿔이 있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더듬이는 짧고 끝이 뭉툭하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장수풍뎅이는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워낙 큰 풍뎅이여서 눈에 잘 띈답니다.
하지만 장수풍뎅이를 만났다고 만지면 안되요! 수컷은 단단한 입으로 물 수도 있어요!

풍뎅이(*Mimela splendens*)



stoRy 제주 밭을 망 속 굼벵이

우리 조상들은 가을걷이가 끝나면 즉시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데, 이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던 일이 초가지붕 교체에요~
초가지붕을 교체하려고 걷어내면 제일 먼저 꼬물꼬물 굼벵이가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초가지붕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굼벵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굼벵이와는 달라요!
그 굼벵이는 뽀얗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라면 흰점박이꽃무지라 불리는 풍뎅이가 된답니다.

특징

몸빛깔은 짙은 초록색, 금빛 광택
몸빛깔에 개체변이가 심하다.
애벌레로 겨울나기를 한다.
야간에 불빛에 반응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풍뎅이는 모든 풍뎅이 종류 중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몸빛깔이 초록색이어서 풀잎에 붙어 있으면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간혹 비단벌레와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엄연히 비단벌레와 풍뎅이는 다르답니다.

진강도래(*Oyamia nigribasis*)

stoRy 어렸을 때는 물속에서 살아요!

강도래는 머리에 황갈색의 무늬가 있어요!
더듬이의 뒤쪽은 노란색이고 앞쪽은 흑갈색이며, 날개는 담황갈색으로 매우 얇답니다.
유충은 시냇물의 돌 밑과 물속의 나뭇잎에 살며,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에 많아요!
초여름에 성충이 나타나는데, 우화 때는 잠자리와 같이 물위의 돌이나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서 탈피하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진강도래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계곡을 내려가면 물속에 강도래의 유충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유충 때는 수중생활을 하지만 성충이 되면 땅 위에서 생활을 해요!

특징

머리와 가슴은 검은색
겹눈, 홑눈 사이에 황갈색 무늬
불완전변태를 한다.
밤에 등불 근처로 모여든다.

길앞잡이(*Cicindela chinensis*)

stoRy 따뜻한 햇볕을 즐기는 몸

오전 10시가 넘으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길앞잡이들이 한껏 몸을 낮추어 햇볕을 더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녀석들은 아예 다리를 쭉 뻗고 엎드린 채로 일광욕을 한답니다.
길앞잡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특이한 몸 구조 때문인데, 몸의 체온을 높여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길앞잡이는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워낙 날쌘 곤충이기에 자세히 관찰하리 어렵습니다.
색이 워낙 예쁘고 광택이 있어서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면서 눈을 사로잡습니다.

특징

4~6, 8~9월에 나타난다.
딱정벌레 중 가장 아름다운 종
날개에 금녹색 광택
예전에는 비단길앞잡이라 불렸다.

남색초원하늘소(*Agapanthia pilicornis*)



stoRy 더듬이에 방울 달고 신비한 짝짓기

남색초원하늘소는 더듬이가 제 3,4마디에 달려있는 흑색 털 뭉치가 마치 송낙수염 모양이라서 일명 송낙수염털보하늘소라고도 불리웁니다.
몸 빛깔은 짙은 청색, 또는 남색이며 가늘고 길죽한 원통형 모양이에요! 전체가 잔털로 덮혀 있으며, 앞가슴 등판에도 짧은 흑색 털이 많습니다.

특징

전국에 분포한다.
5~7월에 산지의 풀밭에서 생활
국화 쑥 등의 줄기에서 관찰
몸은 가늘고 원통형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남색초원하늘소는 이름 그대로 초원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의 잔디밭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 특히 개망초를 좋아하는 곤충이어서 개망초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남색초원하늘소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알락하늘소(*Anoplophora malasiaca*)



stoRy 버드나무를 좋아하는 하늘소

알락하늘소는 지대가 낮은 곳의 버드나무 류 줄기에서 서식해요~ 어른벌레는 살아 있는 버드나무의 껍질을 먹으며, 대개 낮에 활동하지만 불빛에 모여들기도 합니다.
애벌레는 버드나무나 플라타너스 등에 기생하여 처음에는 나무껍질 밑을, 나중에는 목질부분을 먹고 자라며, 뿌리 속까지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징

몸빛까은 검은색, 광택이 있다.
수컷은 더듬이가 몸길이의 두 배
버드나무 류 줄기에서 서식한다.
버드나무 껍질을 먹으며 산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알락하늘소는 버드나무를 좋아해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는 우화정에서 관찰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습을 쉽게 보여주진 않아요~ 이리 보고 저리 봐야 알락하늘소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대벌레 *(Baculum elongatum)*



stoRy 은둔술의 달인

대벌레는 생김이 대나무 가지와 비슷해 동양에서는 대벌레, 서양에서는 지팡이벌레라고 불러요! 이들은 식물의 특정한 부분을 닮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서식지 주변 환경에 맞춰 몸을 위장하고 있답니다. 같은 종류라도 몸 빛깔이 갈색과 녹색의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초목 사이에 앉아 있으면 은둔술의 달인답게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찾아내기 어렵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대벌레는 숲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마치 나뭇가지와 같이 은신을 하는 곤충인데 움직임도 매우 느리고 날 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답니다.

특징

한자어로 죽철충이라고 한다.
몸은 가늘고 길다.
날개는 퇴화해 날지 못한다.
불완전변태를 한다.



갈색의 대벌레 →

대유동방아벌레 *(Agrypnus argillaceus)*



stoRy 뒤집기의 지존, 방아벌레

방아벌레는 땅에 떨어져 뒤집히면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리가 짧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방아벌레만의 특유한 동작으로 톡 하고 튀어 올라 몸을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다리를 움츠린 후 몸을 활처럼 구부려 툭 하고 소리를 내어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것이지요. 마치 방아를 찧는 동작처럼!!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대유동방아벌레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몸의 색이 붉은색이어서 나뭇잎에 앉아 있으면 발견하기 쉽답니다.
만져보려고 손을 대면 '딱'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오르는데 여러분도 직접 실험해 보세요~

특징

완전탈바꿈을 한다.
빨간색이어서 눈에 잘 띈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 검은 털 뭉치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 같다.

비단벌레(*Chrysochroa fulgidissima*)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2급, 천연기념물 제496호



stoRy 안 낮에만 비행하는 비단벌레

비단벌레는 한여름 정오경에는 활발하게 날아다녀요~
해가 지는 오후부터 아침까지는 나뭇잎의 표면에 정지하고 그다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단벌레는 특정한 나무에 모여 사는데 여기에는 생존을 위한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비단벌레 집단이 햇빛에 반사되면 나무 전체가 무대 조명처럼 빛나 새들이 놀라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징

몸빛깔은 초록색, 금록색
매우 화려한 곤충이다.
유충은 해충이다.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곤충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비단벌레는 8월에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멸종위기종 이므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은 아니랍니다. 가끔 하늘을 쳐다 볼 때면 녹색의 화려한 곤충이 날고 있으면 거의 비단벌레입니다.

염소하늘소(*Olenecamptus octopustulatus*)



stoRy 버드나무를 좋아하는 하늘소

-굴피염소하늘소 : 굴피나무를 기주로 삼는다.
-염소하늘소 : 사슴벌레처럼 부르기 쉽게 염소라고 부른다.
-점박이염소하늘소 : 등에 박힌 검은 점이 6개 이다.
-테두리염소하늘소 : 몸에 테두리가 있고, 갈색 무늬가 있다.
-흰염소하늘소 : 이름 그대로 매우 희다.

특징

크기는 8~12mm 이다.
5~6월경에 출현한다.
동북아시아에 분포한다.
더듬이가 길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염소하늘소는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곤충은 아닙니다.
워낙 몸집이 작고 가늘어서 풀숲에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발견한다면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흰색과 갈색의 조화가 너무 예쁜 하늘소랍니다.

소금쟁이(*Aquarius paludum*)

stoRy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이유?

소금쟁이가 물에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 표면의 막이 소금쟁이를 떠받쳐주고 있지만 소금쟁이가 떠 있는 발 부분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소금쟁이는 이러한 표면장력 때문에 물에 뜰 수 있는 것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막을 딛고 그 위에 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소금쟁이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모든 탐방로 근처의 계곡에서 소금쟁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소금쟁이를 찾아보고 어떻게 물위에 떠 있는지 생각해보며 관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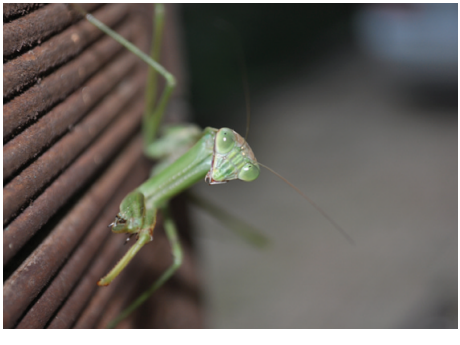
특징

물위를 걸어다닌다.
날개가 긴 형과 짧은 형이 있다.
몸과 다리는 검은색
몸의 아랫면은 부드러운 털

왕사마귀(*Tenodera aridifolia*)

stoRy 소름 돋는 매력의 소유자

가을 수풀 사이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마귀들, 그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왕사마귀!
왕사마귀의 노려보는 듯한 눈빛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귀를 보면서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사마귀를 자세히 보세요! 빠질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왕사마귀는 모든 탐방로에서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마귀들이 관찰이 되어 지지만 그 중 왕사마귀가 관찰하기에는 적당히 큰 것 같아요!
사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특징

사마귀보다 약간 크다.
몸빛깔은 녹색 또는 갈색이다.
배는 앞가슴보다 길다.
더듬이는 짧다.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inclinatus)*



stoRy 성격도 급하지, 톱사슴벌레

톱사슴벌레는 졸참나무나 신갈나무 숲에서 많이 살아가요~
사슴벌레 중 성격이 가장 급하여 적이 나타나면 턱으로 물어서 들어올리는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톱사슴벌레를 나뭇가지에 올려놓으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특징

몸빛깔은 붉은빛, 검은빛
몸의 크기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야행성이다.
밤에 등불에 날아든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톱사슴벌레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곤충입니다.
간혹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 등불을 켜놓을 때가 있는데 많은 곤충들과 함께 톱사슴벌레도 이 때 관찰할 수 있어요!

팔공산밑들이메뚜기 *(Anapodisma beybienkoi)*



stoRy 긴 날개를 가지고픈 메뚜기

메뚜기들에게 있어서 약충과 어른벌레의 구분은 날개의 유무를 따져서 날개가 있으면 어른벌레로 취급하지만, 팔공산밑들이메뚜기의 경우에는 유충처럼 작은 날개의 흔적만 남아 있답니다.
그리고 팔공산밑들이메뚜기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특징

몸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띤다.
더듬이는 황색이다.
날개가 매우 작아 없는 것 같다.
안갖춘탈바꿈을 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팔공산밑들이메뚜기는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의 잔디밭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마치 날개가 없는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작은 날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등검정쌍살벌 *(Polistes jadwigae)*

stoRy 검정쌍살벌? 왕바다리?

등검정쌍살벌은 왕바다리와 크기가 흡사하여 일반인은 서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생태도 흡사하지만 벌집에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등검정쌍살벌은 벌집이 편편한데 반해 왕바다리는 삿갓 모양이거든요~

예전엔 쌍살벌이나 왕바다리난 흔한 벌들이었지만 지금은 흔한 벌들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등검정쌍살벌은 내장산에서 보이는 쌍살벌 중 가장 많아요!
쏘이면 아프답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의 처마 밑에 집을 만드는데 만약 쌍살벌의 집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특징

몸빛깔은 흑색이다.
더듬이는 적갈색이다.
가장 흔한 쌍살벌이다.
나비, 나방의 유충을 먹는다.

뱀허물쌍살벌 *(Parapolybia Varia)*

stoRy 뱀허물을 닮은 길쭉한 벌집

뱀허물쌍살벌은 대개 우거진 숲 속에서 사는 벌로 몸은 밝은 황색이에요! 벌집은 길쭉하게 위에서 아래로 짓는데 길이가 긴 것은 50cm에 달합니다.
벌은 작으며 독성도 약하고 공격성도 약한 편이에요~
가을이 되면 벌은 사라지고 빈 집만 남으며 다음해에 또 사용하는 일은 없고 버려집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허물쌍살벌은 건물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집의 모양이 길쭉하게 생겼고, 집 주변에 머물고 있답니다.
벌집을 발견했다고 가까이 가면 안 되요~
독성은 약하지만 쏘이면 아프답니다.

특징

완전탈바꿈한다.
몸의 무늬가 뱀이 벗어 놓은 허물같다.
비가 오면 입으로 물을 빨아 습기를 없애고, 날갯짓으로 더위도 식힌다.

세 번째 이야기

내장산에서 만나는 버섯



버섯 균류

내장산의 버섯


노랑망태버섯


노린재동충하초


애기낙엽버섯

내장산의 버섯

달걀버섯 외 39종

달걀버섯(*Amanita hemibapha subsp.*)





유균은 달걀형입니다.
흰색의 외피막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외피를 찢고 갓이 나온 모습인데 이 모습이 마치 달걀 같다고 해서 '달걀버섯'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달걀버섯이 모두 성장하면 갓은 적황색을 띠고, 대는 옅은 노란색일 띕니다.
식용버섯이며 매우 아름다운 버섯입니다.

stoRy 로마황제가 좋아했던 버섯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영지버섯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버섯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식품으로 인정 받아왔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평민들에게 버섯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시대에 네로 황제에게 버섯을 진상하면 그 무게를 달아 같은 양의 황금을 하사했는데, 그 버섯이 바로 달걀버섯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근래에 버섯의 전체가 순백색인 흰달걀버섯이 한국 특산종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달걀버섯은 비온 뒤 7월에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간혹 냄새무당버섯과 헷갈릴 수 있지만 냄새가 고약한지 아닌지를 알면 달걀버섯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노랑망태버섯(*Dictyophora indusiata*)



stoRy 여름 숲의 여왕, 망태버섯!

망태버섯은 여름 숲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신비로운 모양부터 그 탄생의 모습까지 비밀이라 여간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 버섯이에요~
보통 동이 터오는 무렵부터 빠르게 자라기 시작해 완전히 만개한 아름다운 여왕의 모습을 드러낸 후 약 두 시간 가량을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가 햇볕이 들면 이내 사그라져 버린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볼 수 있대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7월에 장마철이 지나면 내장산국립공원의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주로 새벽에 성장하고 성장시간은 약 2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기 쉬운 낮에는 이미 시들었을지도 몰라요^^

특징

악취가 난다.
주로 대나무에서 발생
망사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 모습



흰망태버섯 →

큰낙엽버섯(*Marasmius maximus*)



stoRy 우리 산야의 자연버섯인 큰낙엽버섯

큰낙엽버섯은 종모양 또는 둥근 산모양에서 가운데가 볼록한 편평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갓 표면은 홈이 져있는 방사상의 줄무늬가 주름을 만들고 있으며 가죽색 또는 녹색이에요~ 가운데가 갈색이지만 물기가 마르면 흰색으로 변한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봄부터 가을까지 숲속이나 조릿대 숲의 낙엽에 무리지어 자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낙엽버섯들이 대체로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수도 있지만 다른 낙엽버섯들보단 크기가 커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특징

북한명은 큰가랑잎버섯
대나무숲의 낙엽에 발생
홀씨는 타원이나 아몬드 모양
낙엽분해균으로 균사가 낙엽을 털가죽처럼 둘러싼다.

목도리방귀버섯(*Geastrum triplex*)



stoRy 방귀를 뀌는 버섯

목도리방귀버섯은 숲 속의 낙엽이 있는 곳에서 군생해요~
외피는 5~7개의 조각으로 갈라지고, 뒤집혀 편평한 방석모양이 되며 내피는 공 모양입니다.
외피가 다 크면 목도리처럼 2중으로 갈라지는데, 내피 끝 뾰족한 곳을 누르면 포자를 터뜨려 방귀를 뀌는 모양처럼 됩니다.

특징

구형이며 외피는 황록색
5~7조각의 별모양으로 갈라진다.
회백색의 내피가 뒤집어지면서 기본체가 노출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목도리방귀버섯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여름에 장마가 지난 후 탐방로 근처에서 방귀버섯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언뜻 보면 버섯처럼 안생겼어요~

테두리방귀버섯(*Geastrum fimbriatum*)



stoRy 방귀 뿡~ 뿡~

테두리방귀버섯은 목도리방귀버섯과 마찬가지로 포자를 날리는 모습이 방귀를 뀌는 모습 같다 해서 이름이 지어진 버섯이에요~ 외부에서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 맨 위에 뚫려 있는 구멍 밖으로 가스를 분출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냄새도 흙, 나무냄새가 납니다.

특징

가을에 낙엽 사이에 무리지어 난다.
자실체는 처음에 공 모양
외피는 위로 뒤집히고 아래로 구부러져 둥근 방석처럼 된다.
내피층은 살구색, 붉은 갈색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테두리방귀버섯은 목도리방귀버섯과 함께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보통 두 버섯이 같이 모여 있답니다.
테두리방귀버섯과 목도리방귀버섯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보세요~

간버섯(*Pycnoporus Coccineus*)

stoRy 항균작용을 하는"간버섯"

간버섯은 약용버섯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버섯이에요~
간버섯은 연구결과 항균작용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각종 만성염증,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구요~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버섯에 대해서 효능이 입증이 되기는 했으나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니 함부로 먹으면 안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간버섯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의 전나무나 삼나무 등에서 볼 수 있어요!
간버섯인지 모르고 관찰하면 버섯이 아닌 균류라고 착각할지 몰라요~
높은 곳에 있을 지도 모르니 고개를 들어 관찰하세요!

특징

일 년 내내 침엽수와 활엽수의 죽은 줄기나 가지에 홀로 난다.
살은 약간 누런빛을 띤 붉은색
자루가 없으며 질긴 가죽질

개암버섯(*Naematoloma sublateritium*)

stoRy 개암버섯의 갓 이야기

개암버섯은 처음에는 반구형이나 성장하면서 편평형이 되며, 갓 가장자리에 백색의 섬유질상 내피막 잔유물이 있으나 성장하면서 소실되요~
갓 표면은 갈황색 또는 적갈색이며, 습할 때 점성이 있고 갓 주변부는 연한 색이며, 백색의 섬유상 인편이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개암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버섯들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버섯의 동정은 매우 어렵답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구별도 어려워 함부로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되요!

특징

가을에 각종 수목의 죽은가지, 그루터기에 속생 또는 군생
갓은 평반 구형이나 점차 편평형
주름살은 완전 붙은형
식용버섯이다.

고깔먹물버섯(*Coprinus disseminatus*)



stoRy 무리지어 자라는 버섯

고깔먹물버섯은 무리지어 자라는 소형버섯으로 애기고깔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지름 1cm 정도의 종모양 갓과 굵기 1~2mm, 길이 2~3cm의 자루가 있는 순백색의 자실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갓은 달걀모양에서 종 모양으로 회색빛을 띤 흰색에서 나중에는 연한 자줏빛을 띤 회색으로 작은 털이 있으며 주름살은 끝붙은 형이랍니다.

특징

갓은 지름이 1~2cm 정도
갓 표면은 백색, 가운데는 홍색
조직은 얇고 회백색
주름살은 끝붙은주름살형
대의 속은 비어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깔먹물버섯은 단풍터널의 부도전 앞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매우 빽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섯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구름버섯(*Coriolus versicolor*)



stoRy 구름을 닮은 버섯, 구름버섯

하늘에 뜬 구름과 닮아서 구름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운지버섯이나 구름송편버섯이라고도 합니다.
구름버섯은 봄과 가을 사이에 오래된 바늘잎나무, 넓은잎나무 그루터기에서 납니다. 주로 약으로 먹는데 값이 싸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버섯이래요~

특징

갓은 반원형으로 얇다.
표면은 흑색 또는 회색, 황갈색 짧은 털로 덮여 있다.
조직은 백색, 질기다.
포자모양은 원통형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구름버섯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구름버섯을 만나면 썩은 나무에 마치 구름이 있는 것처럼 버섯이 피어 있답니다.
구름버섯은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목이(*Auricularia auricula*)

stoRy 향균작용을 하는 "검버섯"

목이버섯은 중국요리에 널리 쓰이고 있어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과 검은 색깔로 시각적인 면에서 즐길 수 있는 식품이랍니다.
시판되는 건조상품에는 목이와 유사종인 털목이가 혼입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목이는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 목이를 발견하게 되면 미끌미끌한 것처럼 보여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목이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알게 되면 재미있는 버섯이랍니다.

특징

주발모양 또는 귀모양 등 다양
젤라틴질이다.
색상은 홍갈색 또는 황갈색
노후되면 거의 검은색
포자모양은 콩팥형

세발버섯(*Pseudocolus schellenbergiae*)

stoRy 땅속에서 손이 쑤욱~ 세발버섯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땅속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 중에도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버섯이 있어요! 바로 세발버섯입니다.
세발버섯을 보고 게발을 생각하는 사람, 오징어 발을 생각하는 사람, 닭발을 생각하는 사람 등 저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다르나 먹지는 못해요~
여러분은 세발버섯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세발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의 모양과는 많이 듭니다.
버섯이 마치 세 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닮았답니다.

특징

산림 내 부식질의 땅위에 군생한다.
유균은 난형이고, 백색이다.
대의 아래쪽은 원통형, 백색이다.
자실체 안쪽에는 강한 악취가 난다.
식용불명이다.

고동색우산버섯(*Amanita Vaginata var.fulra*)



stoRy 자랄 때 우산을 펴는 모습과 비슷한 버섯

고동색우산버섯은 처음에는 갓이 종처럼 생겼지만 자라면서 점점 판판해집니다.
자라는 모습이 우산을 펼 때와 비슷해요!
나중에는 가장자리가 위로 올라가 오목한 접시꼴이 되기도 합니다. 갓 위쪽 가운데는 볼록하게 솟아 있고 색깔은 진한 적갈색이에요~

특징

갓은 종 모양에서 볼록편평형
표면은 적갈색이다.
습기가 있을 때는 끈적거린다.
표면에는 연한 황갈색의 비단모양
포자모양은 구형이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고동색우산버섯은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요!
갓을 보게 되면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끈적거리는지 만져보며 관찰해 보세요!

노란꼭지외대버섯(*Rhodophyllus murraii*)



stoRy 독버섯이니까 조심하세요!

노란꼭지외대버섯은 갓의 모양이 원추상의 종 모양이며, 가운데에 연필심과 같은 돌기가 있고 습기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줄무늬 선을 나타내요~
주름살은 처음에 백색에서 붉은 살색으로 되며 폭이 넓고 바른 또는 올린주름살이며 조금 성깁니다.
노란꼭지외대버섯은 독버섯이니까 먹으면 안됩니다.

특징

여름부터 가을까지 자란다.
갓은 원뿔모양, 원뿔형 종 모양
갓 표면은 노란색, 축축한 편
버섯대 표면은 노란색
주름살은 바른주름살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란꼭지외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버섯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낙엽 속에 있으면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대들주발버섯(*Aleuria rhenana*)

stoRy 접시를 닮은 버섯

대들주발버섯은 '대가 있는 들(야생) 주발모양'의 버섯이에요~ 갓이 주발형이고, 분말상 털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보통 대는 땅 위로 노출이 되지 않고 묻혀요!
갓지름과 대의 높이가 2~3cm 되는 소형버섯으로 모여 납니다. 봄과 가을에 산림내의 땅에서 발생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대들주발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버섯의 모양이 마치 접시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보자마자 왜 주발버섯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을거에요!

특징

여름과 가을에 땅 위에 속생
대는 땅 속에 묻혀 있다.
표면은 담백황색이다.
포자문은 백색이다.
식용불명이다.

띠미로버섯(*Daedalea dickinsii*)

stoRy 등갈색미로버섯이라고 불리는 버섯

띠미로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루터기, 쓰러진 나무 재목 위에 발생하는 1년생 버섯입니다.
가끔 1년 이상 또는 다년생 사는 것도 있어요!
독이 없지만 식용은 하지 않고 약용버섯으로만 분류가 되는 버섯이에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띠미로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보통 쓰러진 나무에 발생하는데, 구름버섯과 함께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답니다.
자실체는 코르크질인데, 어떤 느낌인지 만져 보세요~

특징

활엽수의 그루터기에 발생
갓은 반원형~편평형
표면은 황갈색~오갈백색
갓 끝은 예리하다.
포자문은 백색이다.

말총낙엽버섯(*Marasmius crinisequi*)



stoRy 엄지손톱만큼 작고 예쁜 버섯

물기 머금은 초가을 숲에서 갖가지 빛깔과 모양의 버섯이 피어올라요~
그 가운데 말총낙엽버섯은 갓이 엄지손톱만큼 작고 예쁩니다. 버섯은 크든 작든 며칠밖에 살지 못하지만, 자연이 남긴 찌꺼기를 썩혀 흙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지요~

특징

균모는 백색에서 황갈색이다.
주름살의 수가 몇 개 안된다.
자루는 머리카락처럼 가늘다.
자루의 속은 살이 차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말총낙엽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 낙엽들 사이에서 발견이 되고 말총낙엽버섯뿐만 아니라 애기낙엽버섯 등 다양한 낙엽버섯들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메꽃버섯부치(*Microporus affinis*)



stoRy 꽃처럼 생긴 버섯

메꽃버섯부치는 숲을 걷다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버섯이에요~ 한여름 짙푸른 숲 속은 햇볕이 안 들어 꽃이 별로 없는데 죽은 나뭇가지에 꽃처럼 핀 버섯입니다.
북한명은 반들부채버섯이라고 하고 주로 침엽수의 살아 있거나 죽은 나무 또는 넘어진 나무에 무리를 지어 자랍니다.

특징

균모는 단단한 가죽질로 콩팥형
표면은 연한 황백색, 크림 갈색
구멍은 작고 길다.
표면에는 털이 없다.
기주에 둥글게 붙는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메꽃버섯부치는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썩은 나무나 부러진 나무에서 발견이 되고, 만지면 쉽게 부서져버릴 것은 느낌이 있습니다.
촉감이 어떨지 만져보고 관찰해 보세요!

뱀껍질광대버섯(*Amanita spissacea*)

stoRy 갓이 뱀껍질처럼 갈라지는 모습

뱀껍질광대버섯은 갓의 모양이 뱀의 껍질이 갈라지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북한명은 나도털자루닭아버섯이라고도 합니다.
갓 표면은 잿빛 갈색이며 약간 섬유처럼 생겼고 어려서는 갓 표면에 고갈처럼 생긴 가루질의 작은 사마귀 돌기가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껍질광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광대버섯들은 대부분 깊은 숲 속에서 발견이 된답니다.
특히 광대버섯들은 독버섯이 많으니 만지면 안되요!

특징

갓은 반구형, 성장하면서 편평
갓 표면은 건성, 갈회색
조직은 두껍고 백색, 육질형
주름살은 떨어진주름살형
포자모양은 타원형

흰가시광대버섯(*Amanita virgineoides*)

stoRy 독버섯 구별법

- 빛깔이 화려하고 진하거나 원색인 것
- 냄새가 고약한 것
- 끈적끈적한 점액, 즙액이 있는 것
-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 것
- 대에 띠가 없는 것
- 벌레가 먹지 않은 것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흰가시광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는 다양한 광대버섯들이 있는데, 대부분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먹거나 만지면 위험하답니다.

특징

갓은 전체가 백색
갓에는 가시 모양의 인편이 있다.
주름살은 떨어진주름살형
턱받이는 성장하면서 탈락된다.
포자 모양은 타원형

뱀버섯(*Mutinus caninus*)



stoRy 뱀을 닮아서 뱀버섯?

뱀버섯은 가을철 등산로의 땅이나 썩은 나무에 무리를 지어 자라거나 한 개씩 자랍니다. 버섯을 자세히 바라보면 머리 부분과 버섯대 사이에 형태적 분화가 없어요!

버섯대는 원기둥 모양으로 그 위 끝에 기본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 기본체가 어두운 녹색의 점액을 덮고 있습니다.

특징

자루는 홍색 또는 연한 홍색
두부와 자루가 구분이 안된다.
표면은 짙은 홍색
자루의 속은 비어 있다.
자루의 끝은 흰대주머니에 싸여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길 가보단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곳과 숲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버섯의 모습이 매우 특이해서 눈에 잘 띕니다.

보라꽃외대버섯(*Rhodophyllus violaceus*)



stoRy 그대는 보랏빛 버섯

보라꽃외대버섯의 균모는 종형이나 반구형입니다. 배꼽형으로 회적색이고 중앙이 회갈색이나 회적색으로 분말이 방사선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버섯자루가 자회색 그리고 흑자회색이고 기부는 황회색이며 살은 백색으로 속은 비어 있답니다.

특징

풀밭의 흙에 무리를 지어 자란다.
갓은 종 모양, 반구 모양
주름살은 끝붙은주름살
버섯대는 자회색 또는 검은 자주색
균사는 방망이 모양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보라꽃외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름에 보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섯의 색도 보라색에 가깝답니다.
무리지어 생기지 않고 단생으로 나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버섯들은 없어요!

노랑창싸리버섯(*Clavulinopsis fusiformis*)

stoRy 산호를 닮은 버섯

싸리버섯은 싸리, 산호, 나뭇가지, 꽃양배추와 비슷하게 생겼고, 크기도 커서 눈에 잘 띕니다. 자루에서 여러 개가 뻗어 나오고, 그것이 또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자루는 나무토막처럼 뭉툭하게 생겼어요~
싸리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넓은잎나무가 있는 숲 속에서 자랍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랑창싸리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은 아닙니다.
싸리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훨씬 커요!
마치 산호초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포자는 백색~담황색
여름과 가을에 잡목림 내 땅위에 산생, 속생
조직은 황색이고, 속은 비어있다.

빨판애주름버섯(*Mycena stylobates*)

stoRy 수레바퀴 모양의 주름버섯

빨판애주름버섯은 북반구와 온대에 분포하고 늦은 봄 까지 혼합림의 습한 지역에서 자라요~
식용은 할 수 없고 비 맞은 후의 갓의 표면은 줄무늬선과 선명한 주름살이 매우 아름다워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빨판애주름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보통 썩은 나무에서 발견이 되고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찰해야 알 수 있답니다.
마치 외계인과 비슷한 모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징

자실체는 원추형에서 종형
표면은 백색, 중앙부는 회갈색
자루는 백색이며 반투명하다.
기부에는 흡반이 있다.
주름살은 떨어진형

산느타리버섯(*Pleurotus pulmonarius*)



stoRy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버섯

느타리버섯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버섯이에요!
어릴 대는 갓이 반 둥근꼴이고 자라면서 콩팥이나 조개 꼴이 되고, 깔때기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색깔은 흑갈색이었다가 점점 옅어지면서 청회색으로 바뀝니다. 살은 흰색이고 탱탱하며 물기를 잘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죽은 나무, 나뭇가지에 자란다.
갓은 둥근 산 모양이다.
살은 얇고 밀가루 냄새가 난다.
주름살은 촘촘하다.
식용할 수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느타리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타리버섯이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이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버섯을 채취하시면 안되요!

삼색도장버섯(*Daedaleopsis confragosa*)



stoRy 주름살이 관공으로 된 버섯

주름살이 관공으로 된 버섯 중에는 그물버섯류가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관공 속에 담자기를 형성하여 포자를 만듭니다.
구멍장이버섯류 중에도 관공이 없고 주름살로 된 삼색도장버섯이 있어요! 버섯이 왜 이렇게 관공 속에 포자를 만드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나 바람, 곤충,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징

갓은 반원형, 편평한 조개껍질 모양
조직은 회백색, 백황색
자실층은 방사성으로 배열된 주름상
삿의 한 끝이 기주에 부착
포자 모양은 원통형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삼색도장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름에 삼색이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세 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직접 관찰해 보며 어떠한 색이 있는지 알아 보세요!

소나무잔나비버섯(*Fomitopsis pinicola*)

stoRy 당뇨에 좋은 소나무잔나비버섯

소나무잔나비버섯은 위암, 심장병, 항종양, 간암, 콜레스테롤 배출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췌장, 당뇨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해요!
또 민간요법으로는 폐렴, 폐암, 감기 등 해열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버섯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상 함부로 먹으면 안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소나무잔나비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 됩니다.
마치 말굽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버섯이에요!

특징

다년생이다.
갓은 반구형, 편평한 말굽형
갓의 색은 백색
자실층은 황백색
포자 모양은 타원형이다.

영지버섯(*Ganoderma lucidum*)

stoRy 불로초, 영지버섯

불로초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넓은잎나무 밑동이나 그루터기에서 자라요! 귀한 버섯이고 한약 재료로 많이 쓰인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이 고루 나고 독이 없어요!
좋은 불로초는 표면이 매끄럽고 옅은 갈색이나 적갈색이어야 합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영지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로초가 바로 영지버섯이랍니다.
하지만 귀한 버섯이라고 따서 가져가면 안되요!
꼭 눈으로만 관찰해 주세요~

특징

불로초라고도 한다.
여름에 그루터기에서 발생
광택이 있는 1년생 버섯이다.
갓 표면은 누런 갈색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다.

이끼패랭이버섯(*Gerronema fibula*)



story 이끼패랭이버섯, 작은 맵시를 뽐내다

이끼패랭이버섯은 이끼로 중무장한 많은 바위틈을 비집고 아주 작고 앙증맞게 자리 잡고 있는 버섯이에요~

갓은 황색 또는 황토색 바탕에 녹색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주름은 자루에 올려 붙어 있고 황색입니다.

자루는 황색이나 위쪽은 녹색을 띠며 끈적끈적해요~

특징

갓은 종형, 반구형
갓 표면은 등황색, 등황적색
주름살은 내린주름살형
조직은 연약해서 쉽게 부서진다.
포자 모양은 긴 타원형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이끼패랭이버섯은 이끼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버섯이 매우 작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버섯 중 하나이므로 꼭 관찰해 보세요!

잔나비걸상버섯(*Elfvingia applanata*)



story 잔나비불로초라고도 불려요~

잔나비걸상버섯은 나무와 수평을 이루며 자라는데, 반 둥근꼴 판이나 말굽처럼 생겼어요!

겉이 판판하고 매끄러우며 고리 무늬가 있답니다.

갓은 처음에는 옅은 갈색이다가 나중에는 회갈색으로 바뀝니다. 갓 가장자리는 흰색에서 회갈색이 됩니다.

특징

균모는 낮은 산 모양, 말굽 모양
표면은 각피로 덮여 있다.
살은 초콜렛색, 코르크질
관공은 황백색, 백색
자루는 없고 균모가 기주 옆에 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잔나비걸상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영지버섯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색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버섯이므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개껍질버섯(*Lenzites betulina*)

stoRy 조개껍데기를 닮은 버섯

조개껍질버섯은 이름 그대로 조개껍질을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일 년 내내 침엽수 또는 활엽수의 죽은 나무 또는 재목에 무리를 지어 자라요!
버섯 갓은 반원형 부채꼴 도는 조개껍데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조개껍질버섯은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매우 흔한 버섯 중 하나이고, 버섯이 마치 조개껍질을 닮았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조개껍질을 찾아보세요~

특징

갓은 반원형 부채꼴
갓 표면에는 짧은 털이 있다.
살은 흰색 가죽질
목재를 썩게 하는 백색부후균
홀씨는 긴 타원형

치마버섯(*Schizophyllum commune*)

stoRy 여자들의 치마를 닮아서 치마버섯

치마버섯은 최근에 가장 주목 받는 버섯이래요~
항암제,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하는 버섯입니다.
치마버섯은 말 그대로 치맛자락, 즉 치마의 주름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치마버섯은 죽은 나무나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볼 수 가 있어요!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치마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백색의 버섯이 자잘한 털로 이루어져 마치 독버섯처럼 생겼답니다. 그렇다고 식용을 할 수 있는 버섯은 아니에요~
식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징

갓은 부채형, 치마모양
표면은 백색, 회색, 회갈색
조직은 가죽처럼 질기다.
주름살은 백색 또는 회백색
포자 모양은 원통형

애기낙엽버섯(*Marasmius siccus*)



stoRy 등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버섯

애기낙엽버섯은 마치 낙엽 위에 등불을 밝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활엽수의 낙엽 위에 무리를 지어 자랍니다.
종이꽃낙엽버섯과 모양이 비슷한데 색깔이 종이꽃낙엽버섯은 자색을 띠는 것이 달라요~

특징

균모는 종 모양, 둥근 산 모양
살은 아주 얇아 종이와 비슷
주름살은 바른주름살
포자는 전체적으로 가늘다.
포자문은 흰색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애기낙엽버섯은 자연사랑길과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해 보세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낙엽버섯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무당버섯(*Russula aurata*)



stoRy 금무당버섯이라고도 불리 웁니다.

황금무당버섯은 북한에서 흰갓버섯 또는 감빛노란갓버섯이라고도 불려요~ 갓은 처음에 만두 모양이다가 자라면서 편평하게 펴지면서 가운데가 오므라들어요!
갓 표면은 색이 가운데일수록 더 진하며 매끈하고 습기가 있을 때에는 끈적끈적하답니다.

특징

갓은 반구형, 오목편평형이 된다.
갓 표면은 적황색, 연한 황색
조직은 백색, 표피 밑은 황색
주름살은 떨어진주름살형
포자 모양은 유구형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황금무당버섯은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색깔이 적황색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색이 예쁜 버섯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쁘다고 만지거나 따서 가져가면 안됩니다.

흰둘레줄버섯(*Bjerkandera fumosa*)

stoRy 겨울에도 살아 있는 흰둘레줄버섯

흰둘레줄버섯은 겨울에도 관찰할 수 있는 버섯 중 하나인데 자실체는 반배착성~완전배착성이에요! 기주 위에 기와 모양의 층을 이루고, 이때 자실층은 내린형이 됩니다.
갓 표면은 솜털이 없으며, 회갈색~갈색이며 가장자리는 날카롭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흰둘레줄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버섯의 모양이 물결 모양으로 마치 버섯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버섯이 맞답니다.

특징

자실체는 1년생이다.
갓은 조개껍질모양
표면은 물결모양이고 거칠다.
관공은 구멍은 작고, 원형
포자 모양은 타원형이다.

쇠뜨기버섯(*Ramariopsis*)

stoRy 쇠뜨기를 닮은 버섯, 쇠뜨기버섯

쇠뜨기버섯은 숲 속의 낙엽 썩은 부식토나 가지 등에서 자라는데, 자라는 모양이 쇠뜨기풀을 닮았다고 쇠뜨기버섯이에요~
얼핏 보면 산호초를 닮기도 했고, 무리지어 핀 모습은 가지가 많은 미황색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쇠뜨기버섯은 삼청공원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버섯이에요~
매우 특이한 버섯이어서 발견한다 해도 버섯인지 나뭇가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꼭 쇠뜨기버섯을 찾아보세요!

특징

숲 속, 들판, 썩은 나무에서 자란다.
자실체는 흰색 또는 상아색
버섯대와 주된 가지에 털이 있다.
홀씨는 넓은 타원형
기부는 빗자루 모양이다.

노린재동충하초(*Cordyceps nutans*)



stoRy 등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버섯

동충하초는 동물의 단백질을 먹고 자라는 버섯이에요~

이것들의 포자는 곤충의 성충이나 애벌레, 번데기의 눈, 입, 배, 날개 등에 붙어서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곳에서 발아하여 균사가 나오게 됩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긴 곤충은 결국 죽게 되고 대신 동충하초라는 버섯이 나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특징

자실체는 노린재의 성충 머리
자실체는 두부와 대로 나뉜다.
조직은 단단하고 질기다.
포자 모양은 원주형이다.
식용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노린재동충하초는 삼청공원과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숙주인 노린재는 땅 속에 있어서 자실체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노린재와 함께 관찰하려면 땅 속에 있는 것을 꺼내야 하는데 힘을 주어 꺼내면 자실체와 분리되어 버리니 조심해야 해요~

벌동충하초(*Cordyceps sphecocephala*)



stoRy 금무당버섯이라고도 불리 웁니다.

동충하초에 대한 기록은 2천 년 이상이나 되었어요~ 그리스나 로마의 과학자들이 곤충의 유충에 침입하는 병에 대해 기록한 것이 남아 있어요~

곤충병리균과 곤충의 관계가 알려지기 전 유럽에서는 곤충과 식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곤충의 사체가 식물로 되었다가 식물이 곤충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징

자실체는 기주인 벌의 성충 머리
두부는 원통형, 정단부는 둥근모양
대는 긴 실모양
포자 모양은 긴 타원형
약용버섯으로 이용한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벌동충하초는 삼청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린재동충하초와 마찬가지로 땅 속에 벌의 몸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관찰하려면 땅 속에서 꺼내야 한답니다.

역시 분리가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겠죠?

눈꽃동충하초(*Isaria japonica*)

stoRy 나뭇가지에 핀 눈꽃!!

눈꽃동충하초는 봄과 가을 사이에 숲 속이나 낙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나비, 나방, 애벌레나 번데기 몸 안에 있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줄기 끝에 흰색 홀씨가 앉은 모습이 나뭇가지에 핀 눈꽃과 닮아서 눈꽃동충하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줄기 끝에는 흰색 분생 홀씨가 덮여 있는데, 눈이나 밀가루처럼 보이며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날립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눈꽃동충하초는 삼청공원의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근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매미의 유충에 기생을 하는 눈꽃동충하초가 많이 발견이 되며 마치 흙 위에 흰 색의 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징

전체적으로 산호처럼 생겼다.
분생자자루가 다발을 이룬다.
자루는 주황색, 머리는 흰색
불와전세대형의 동충하초
숙주는 애벌레, 번데기 등

산딸기점균(*Tubifera ferruginosa*)

stoRy 딸기와 비슷하게 생긴 점균

점균이란 무엇일까요? 점균은 영양체는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원형질 덩어리로 세포벽이 없는 다핵균으로 자실체를 만들어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딸기점균은 썩은 나무에서 발생하는데 꼭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관찰포인트*를 알아볼까요 ^^

산딸기점균은 모든 탐방로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썩은 나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모양이 마치 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딸기는 아니니 먹으면 안됩니다.

특징

자실체는 장난형, 함께 군집
얇고 투명하다.
대는 백갈홍색, 스펀지상
포자는 구형이며 갈색이다.
표면은 망목상이다.

내장산을 사랑하는 이야기 보따리꾼, "자연환경해설사"의 이모저모

⦿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 생태관광 운영, 탐방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 해설 · 홍보 · 교육 · 생태 탐방안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를 소개합니다.



⦿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들의 한마디!!!

○ 자연환경해설사로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겪을거라 예상합니다^^;; 아쉬운 일, 속상한 일보다 좋은 일, 뿌듯한 일을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윤지

○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 배성연

○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탐방객에게 전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라는 직업은 날이 갈수록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도감을 보며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도감 만든 배성연 해설사님 수고많았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 석의주

○ 내장산과 희노애락을 함께한지도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에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시작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해설을 한다는 자체가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내장산을 알리는 일은 저에게 있어 뿌듯함으로 남습니다. 항상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야기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

○ 내장산에서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자연을 많은 탐방객들에게 좀 더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에게 많은 도움 받아가며..^^ – 이수진

○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내장산을 지킨 해설사들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 송준호

○ 지난 시간 자연환경해설사들의 노력을 작은 책자하나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인 듯 합니다. 편집하느라 고생한 에코들과 담당자,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해설사가 되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 이철호

○ 신규 자연환경해설사로써 다양한 일들을 해내는 동료 해설사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되돌아보게 되구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다들 파이팅입니다.! 모두들~ – 진현주

⦿ 해설사에게 있어 국립공원은..?

○ 자연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 – 배성연

○ 하나뿐인 지구 = 하나뿐인 내장산국립공원 – 이수진

○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 – 박윤지

○ 빈 도화지다. 아직 그리기 전 도화지는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나 또한 국립공원에 일하는 사람으로써 나만의 색으로 국립공원으로써 나만의 색으로 국립공원이란 도화지 안에 채워 놓고 싶기 때문이다. – 김영

○ 자연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곳 – 진현주

○ 우리들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유산 – 송준호

○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쉼터 – 이철호

○ 모두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자연/가꾸고 지켜야 하는 곳 – 석의주

2013년도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자연해설프로그램


탐방안내소 해설


자연공작교실


숲과 문화를 체험하는 내장산


숨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서


골거리나무군락지와 전망대 경관 해설

생태관광 프로그램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생태관광 프로그램)



단풍숲에서 즐거운 우리가족 행복힐링체험
(가족대상 힐링프로그램)


너와 내가 친구 되는 감동 여행
(수학여행 프로그램)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소외계층 아동 대상 생태나누리



다문화가정 대상 생태나누리


장애인 대상 생태나누리

방과후 수업 '단풍숲 환경 학교'


수곡 초등학교


내장 초등학교


입암 초등학교


현장 학습

숲유치원 '내장산 단풍숲 놀이터'


숲엔 무엇이 있을까요?


수서생물 알아보기


새집엔 누가 살까요?


단체사진

미래세대 사회성증진 힐링프로그램 (친구와 함께 즐기는 희망찾기 에코힐링체험)


HTP 그림 검사


고리 만들기


친구와 의자 만들기


단체사진

여름철에도 신나게 즐기는 친환경 녹색힐링체험


씽~ 씽~ 자전거를 타고


그린카 체험


여름밤에 즐기는 영화한편!


별자리 관찰

기타


자원모니터링


해설운영구간 해설판 점검


자체교육-모니터링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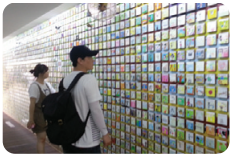


외부 전문교육 참여

외부 현장교육









순천만습지센터 및 순천만정원박람회 벤치마킹

내장산국립공원 홍보 부스 운영



지구의 날



장애인과 함께하는
샘고을 한마음 걷기 대회



전라북도민 모두와 함께
그린웨이 환경축제


지역문화행사 지원
황토현 동학 축제

내장산국립공원의 월별 생태달력 (2012년도 기준)

1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작살나무 열매	벼룩 열매	갈기리나무	차나무 꽃	음나무 수피	좀작살나무	찔레나무 열매
8	9	10	11	12	13	14
참빗살나무 열매	오화정의 겨울	붉은겨우살이	딱새	박새	가작나무 열매	감태싸리 열매
15	16	17	18	19	20	21
이나무 열매	고욤나무 열매	곤줄박이	쇠딱따구리	까치박달	쇠박새	고삼 열매
22	23	24	25	26	27	28
노박덩굴 열매	비자나무	사위질빵 씨앗	마삭줄 씨앗	주엽나무 열매	주엽나무 가시	개복끼리 열매
29	30	31				
회잎나무 열매	고라니	참작나무 열매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생강나무 겨울눈	쌀개나방 알집	개오동의 열매	매미나방 알집
5	6	7	8	9	10	11
이나무 열매	가작나무 열매	참개암나무 꽃	사위질빵 열매	왕벚나무 겨울눈	산철쭉 열매	벽오동 열매
12	13	14	15	16	17	18
단풍나무 세싹	조개껍질버섯	신나무 열매	참나무 열매	개오동의 열매	직박구리	벽오동 겨울눈
19	20	21	22	23	24	25
제비꽃	광대나물	먹물버섯류	마삭줄 열매	나무뜨의	쇠별꽃	개버들
26	27	28	29			
쇠딱따구리	노루귀	개암가지	함다리나무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월 생태달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개복수초	2 다람쥐	3 갈색꼬리밤버섯
4 변산바람꽃	5 겟버들	6 박주가리씨앗	7 큰개별꽃 꽃	8 너도바람꽃	9 도롱뇽	10 쇠별꽃
11 참개암나무	12 봄맞이	13 꽃다지	14 제비꽃	15 괭이밥	16 산자고	17 노루귀
18 나도밤나무	19 깽깽이풀	20 도둠나무	21 얼레지	22 매화나무 꽃	23 현호색	24 나도물푸레
25 생강나무 꽃	26 산수유나무 꽃	27 족의무릇	28 만주바람꽃	29 붉은대극	30 광대나물	31 개나리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월 생태달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백양산괴불	2 내장금창초	3 함삼나무	4 오름꽃	5 큰괭이밥	6 민들레	7 남방큰나비
8 금낭화	9 단풍나무꽃	10 도둠풀	11 나랑꽃	12 수양버들나무	13 노루귀	14 쇠딱따구리
15 양지꽃	16 미나리냉이	17 왕벚나무	18 애기괭이눈	19 깽깽이풀	20 쇠딱따구리	21 도둠개구리
22 정금나무꽃	23 큰괭이밥	24 제비꽃	25 도둠현호색	26 자주괭이눈나니	27 족제	28 각시붓꽃
29 중드테풀	30 목련꽃대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월 생태달력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까마귀밥여름나무	2 금난초	3 엉겅퀴	4 큰천남성	5 백작약
6 갈참꽃	7 이팝나무꽃	8 당단풍나무꽃	9 산철쭉	10 이팝나무	11 고로쇠나무	12 큰주황나비
13 바위취	14 회양목	15 참꼬마리	16 삼색병꽃나무	17 산딸나무	18 고추나무	19 길앞잡이
20 백양더부살이	21 회오리쑥	22 벌깨덩굴	23 백선	24 때죽나무	25 광릉물꼬리풀	26 노랑눈썹미세
27 약난초	28 은방울꽃	29 물레나물	30 비목	31 개모단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6월 생태달력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으아리	2 기생나비
3 엉겅퀴	4 회양목	5 약난초	6 찔레꽃	7 좀사데	8 말똥비름	9 남색초원알락
10 좁쌀바리	11 큰까치수염	12 개다래	13 박주가리	14 인동덩굴	15 마삭줄	16 애물결나비
17 병자	18 잔털댕나무열매	19 박쥐나무	20 고광나무	21 우산나물	22 냄새똥풀	23 광대나리재
24 참나리	25 개모단나무	26 쑴바귀	27 가지더부살이	28 처마	29 자귀나무	30 다리무늬톡토기재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붓꽃	2 바위손	3 개미취	4 산수국	5 자주땅의다리	6 노란망태버섯	7 가시노린재
8 꽃며느리밥풀	9 왕관나물	10 며루	11 연리	12 대왕나	13 이삭여뀌	14 알거염버나비
15 타래난초	16 하늘말나리	17 노루오줌	18 질신나물	19 사위질빵	20 개모시풀	21 진강대
22 솔패랭이꽃	23 긴금강대버섯아재비	23 진노랑상사화	24 무릇	25 함타리	26 흰인질풀	27 소쩍새
28 큰뚜껑밤가그리	29 영아자	30 고마리	31 기름나물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계뚱	2 털중나리	3 아까시재목버섯	4 골등나비
5 진노랑상사화	6 뻐꾹나리	7 노란말말나리	8 고마리	9 마타리	10 세발버섯	11 호랑거미
12 물봉선	13 닭의장풀	14 며루나물	15 노티장나물	16 이질풀	17 턴자모인상자버섯	18 물의나비
19 닭의장풀	20 소엽가래꽃	21 자주땅의비름	22 꼽의	23 며루	24 민가시광대버섯	25 검은줄장자리
26 영아	27 숫잔대	28 층꽃나무	29 백양꽃	30 칡	31 소가치개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말매미
2 등골꽃	3 좀꼬리망초	4 좀바위솔	5 물푸	6 의림털선이끼	7 테두리방귀버섯	8 두꺼비
9 산부추	10 초롱장대	11 미역취	12 까리뱀	13 용담	14 배초향	15 물잠나비
16 갈퀴나물	17 양모	18 나도수일	19 털진득찰	20 석산	21 콩꼬투리버섯	22 애기좀작리
23/30 고려엉겅퀴	24 까마귀베개	25 갈대	26 자주쓴풀	27 구절초	28 나랑끈지의대버섯	29 곰팃갈리나방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0월 생태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노린재나무	2 쑥부쟁이	3 넓은잎고추풀	4 애기낙엽버섯	5 끝검은땡땡버섯	6 고깔먹물버섯
7 서래봉	8 비자나무	9 참빗살나무	10 겨울꼬리	11 새주둥이버섯	12 시알강대버섯	13 젤리귀버섯
14 오와정	15 고참나무	16 은행	17 해국	18 계란버섯	19 금버섯	20 젤리가죽대버섯
21 전망대	22 신갈나무	23 댑싸리	24 산국	25 진갈색점먹버섯	26 노나로찬나비버섯	27 매끗버섯붙치
28 내장산국립공원	29 비자로화	30 개회나무	31 작살나무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1월 생태달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고욤나무	2 비목	3 줄점팔랑나비
4 밤새	5 은행나무	6 신나무	7 붉가기나무	8 감탕나무	9 팽귤	10 노랑배허리노린재
11 오색딱따구리	12 검은머리방울새	13 붉은	14 천남성	15 산꼬리풀	16 박주가리	17 넉점박이송장벌레
18 곤줄박이	19 은단풍	20 은산나물	21 잎	22 말냉이장구채	23 회잎나무	24 긴가위벌난재
25 어치	26 초피나무	27 일모티나무	28 갈황색미치광이버섯	29 벚나무버섯류	30 박쥐등다리	

*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2월 생태달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적부리
2 청둥오리	3 가시나무	4 조릿대	5 작살나무	6 찔레나무	7 산국	8 비오리
9 원앙(수컷)	10 잣나무	11 회나무	12 겨우살이	13 은단풍	14 굴거리나무	15 쇠오리(수컷)
16 동박새	17 가막살나무	18 상수리	19 신나무	20 산수유	21 배롱나무	22 쇠딱따구리
23 /30 개개오리	24 /31 단풍의	25 붉은	26 산수국	27 노린재나무	28 비목	29 뜸세

*.위 자료는 2011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해설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월별 생태달력은 2011년도 내장산국립공원 직원의 자원모니터링과 자연자원모니터링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을 마무리 하며… |

내장산국립공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좋아하는 동 · 식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국립공원을 여행하는 중에 들리는 장소이지만 저희들은 매일 출근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이죠.
내장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사들은 내장산국립공원의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해설자원모니터링을 하며 틈틈이 한 해, 두 해 모은 많은 동 · 식물의 사진자료를 가지고 내장산을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료를 미래세대와 탐방객들에게 더 좋은 교보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본 결과물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며 만들어진 이 교보재에는 그동안의 내장산의 자연환경해설사들의 노고가 담겨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국립공원을 사랑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을 탐방하며 눈으로만 보고 지나쳤다면, 이 책을 가지고 탐방을 하면서 내장산에 어떤 동 · 식물이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탐방을 하면서 보기에 어렵지 않고, 내장산국립공원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곳이고, 이곳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들으며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일동



| 참고자료 |

한국의 야생화와 자원식물 (김태정, 2008, 서울대학교출판부)
원색 대한식물도감 (이창복, 2003, 향문사)
쉽게 찾는 야생화 (김태정 외, 2010, 현암사)
풀꽃지기가 들려주는 재미난 풀꽃 이야기 풀꽃 친구야 안녕? (이영득 외, 2004, 황소걸음)
호주머니 속의 자연 2. 나무 쉽게 찾기 (윤주복, 2004, 진선 BOOKS)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모든 것 나무 해설 도감 (윤주복, 2008, 진선 BOOKS)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나무 도감 처음 만나는 나무이야기 (이동혁, 2006, 도서출판 이비컴)
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도감 나무도감 (도토리 외, 2001, ㈜도서출판 보리)
세밀화로 그린 동물 흔적 도감 (박인주 외, 2006, ㈜도서출판 보리)
사라져가는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 (김연수 외, 2003, 도서출판 당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 백 가지(이우신 외, 2001, 현암사)
세밀화로 보는 한반도 조류도감 (송순창 외, 2005, 김영사)
두산동아 자연 핸드북 도감 5. 파충류와 양서류 (마크 오시 외, 2005, ㈜두산동아)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양서 파충류 도감 (이주영 외, 2012, ㈜도서출판 보리)
보리 어린이 첫 도감 개구리와 뱀 (도토리 외, 2006, ㈜도서출판 보리)
한국곤충생태도감 (배연재 외, 1998,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
한국의 나비 (주흥재 외, 1997, 교학사)
토박이 곤충기 (김정환, 2005, 진선)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버섯 도감 (토박이 외, 2008, ㈜도서출판 보리)
원색도감 한국의 버섯 (박완희 외, 1991, 교학사)
지성자연사박물관 4. 버섯 (조덕현, 2001, 지성사)
내장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8차년도 2012. 12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의 재미있는 식물이야기 지리산편 2011. 12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발 행 일 : 2013. 11. 10
발 행 인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윤석
총　　괄 : 탐방시설과장 황규태
제　　작 : 탐방업무담당 박혜림
자연환경해설사 배성연 송준호 이철호 이수진
김 영 박윤지 석의주 진현주
발 행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936
전　　화 : 063)538-7875,6 / Fax : 063)538-7871
홈페이지 : http://naejang.knps.or.kr

* 이 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내장산 자연환경해설사들의 해설자원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걸으며 만나는
내장산의
자연이야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NAEJANGSAN NATIONAL PARK OFFICE